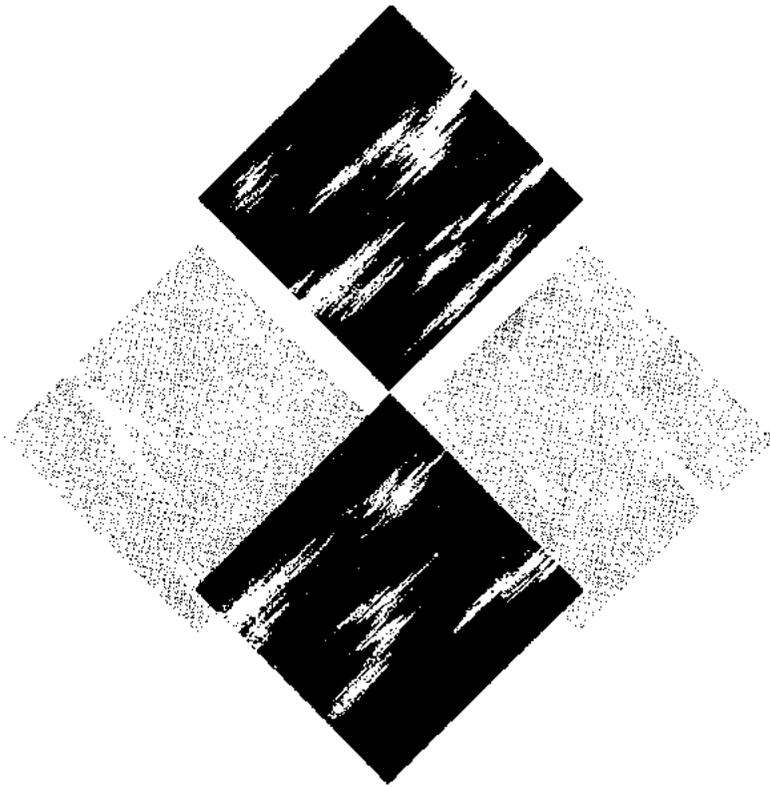




大陸아스타일

TAE LYUK ASPHALT, FLOOR, TILE



12大受賞의建築材

大法院長賞(最優秀賞)
 經濟企劃院長官賞(優秀賞)
 商工部長官賞(優秀賞)
 建設部長官賞(優良賞)
 서울特別市長賞(優良賞)
 六九年度서울特別市優良工産品(優秀賞)
 鳳凰大賞(第一回消費者投票賞)
 釜山産業博覽會(優秀賞)
 遞信部長官賞(優秀賞)
 서울特別市優良工産品(優秀賞)
 大韓建築士協會長賞(優秀賞)
 大韓建設協會長賞(優秀賞)

美聯邦規格의 美 8 軍納品

전통과 신용을 보장하는
아스타일 전문 메이커

大陸特殊고무工業社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中林洞155 Tel. 23-7375 · 23-9860

Tae Lyuk Asphalt Tile Manufacturing Ind., Co.

☎ 155 Choong Nim-Dong, Sudaem oon-Ku

SEOUL, KOREA

오일바나...

暖房設備의 心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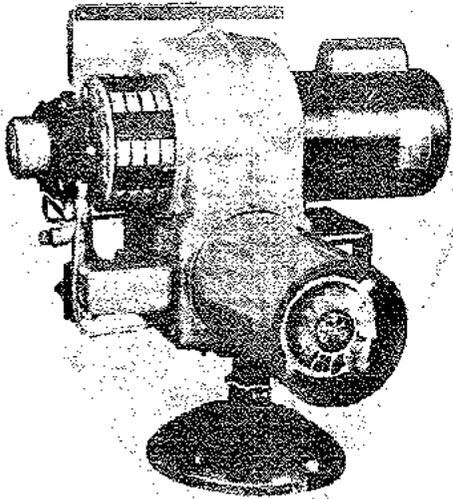
燃料費를 半減시킨

ABC 오일바나

70 年의 歷

튼튼하고 믿음직스런

존슨 로라리 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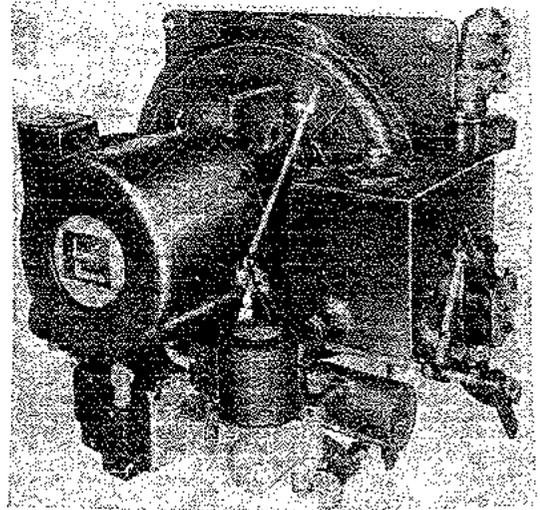
— 輕油用 (完全自動) —

ABC바나의 特徵

1. 最新式 完全自動이라 사용이 便利하다.
2. 必要時에만 燃焼함으로 經濟的이다.
3. 五重安全裝置가 되어있어 위험이 없다.
4. 設置가 簡単하여 누구나 取扱할 수 있다.
5. アフター 서비스를 長期間 保障.

製造元 ————— 美國 —————

Automatic Burner Corporation



방카 O 油用 (輸入完製品)

1. 計測器式이므로 正確한 燃焼量을
2. 모든 事故를 完全히 防止하는 安全裝
3. 어떠한 보일러에도 適合한 構造
4. 自由로히 選擇할 수 있는 自動方式.
5. アフター 서비스를 長期間保障

製造元 ————— 美國 —————

S. T. Johnson Compan



韓國總代理店

三成設備工業株式会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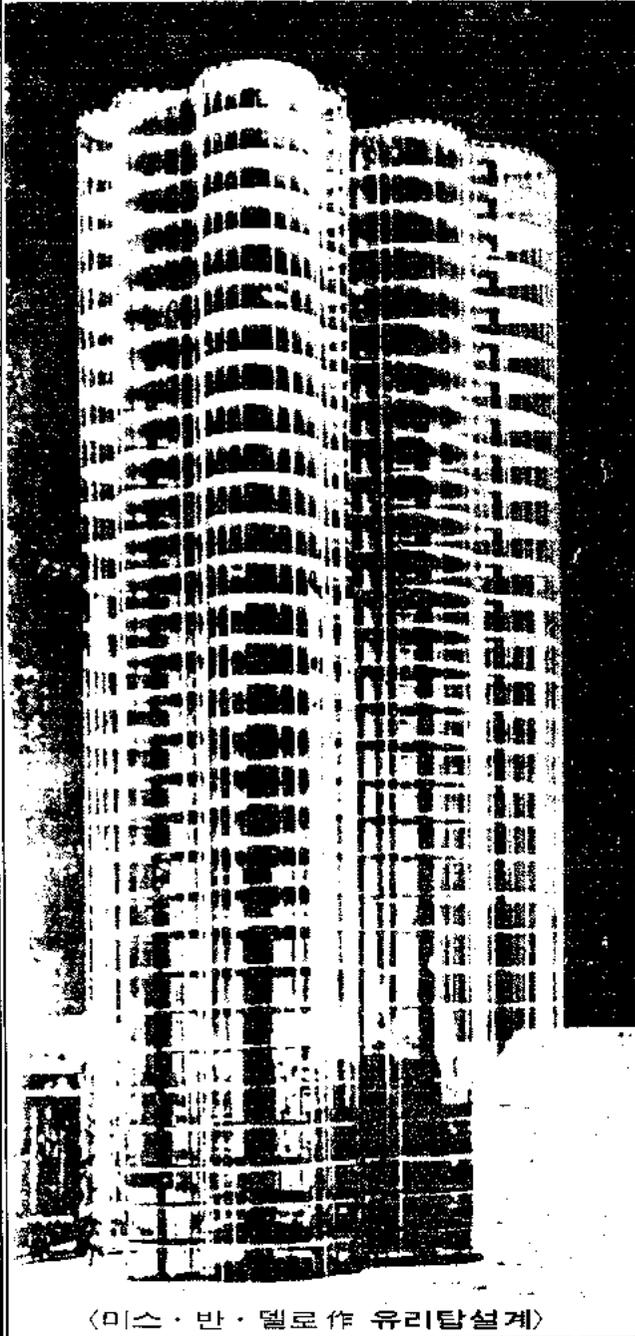
서울中區乙支路2街163의5호(東洋빌딩5層)

TEL. 23-9696/9697/9698

카다록 및 설계상 필요하신 자료와 문헌은 위의 주소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리의 건물 NO. 1

유리의 멋!



〈미스·반·델로 作 유리탑설계〉

한국유리는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 유리시대의 선구자 한국유리는 建築士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성실하게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설계의 첫째조건

- 좋은 설계의 첫째조건은 적은 비용으로 큰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축에서 큰효과를 내는 무늬유리는 맑은유리와 가격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좋은 품질의 무늬유리를 사용하여 좋은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연구·노력

- 오랜 전통의 한국유리는 꾸준히 연구 노력하여 맑은유리의 품질을 개선하여 가장 현대식 공법으로 더욱 좋은 품질의 맑은유리를 생산할 것입니다.

◀ **제품안내** ▶

- 맑은유리
- 무늬유리
- 유리블록
- 관 유리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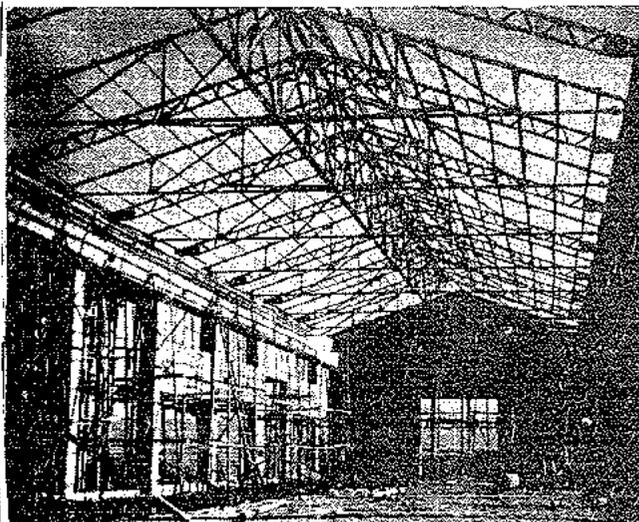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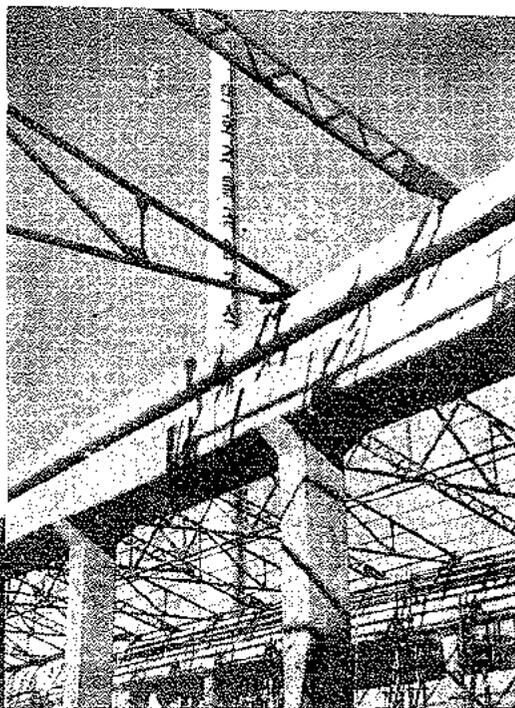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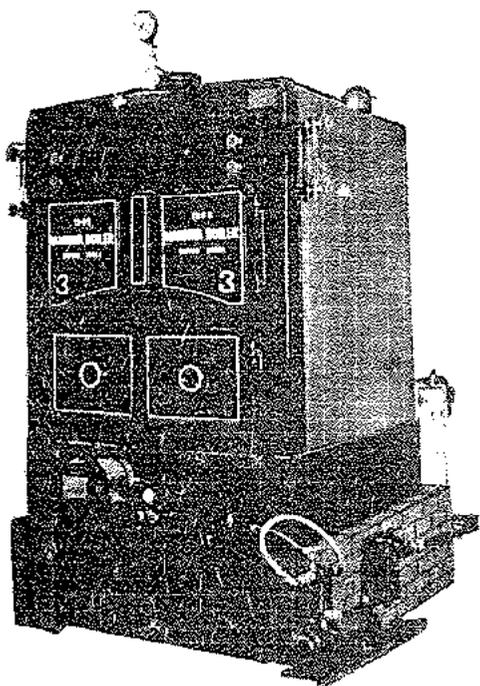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75

TEL. 23-7141~45



새로운 보일러·라지에타 생산을 위하여

현대화 하는 만화주물



만화주물공업주식회사

본 사	인천시 남구 송의동	349
	전화	☎ 2 - 0930
		2 - 3491
		3 - 1156
		3 - 1157
서울연락소	서울특별시중구장교동	48
	전화	☎ 28 - 3716
		28 - 7716
		24 - 1316



표시허가 제374호
5c - 650



기술의 상징
KANGWON BRAND



강원라디에터

- 5c - 650 RADIATOR
- 5c - 500 RADIATOR
- WALL RADIATOR W - 7B
W - 9B
- GILLED RADIATOR SG Type
MG Type
(5 kg/cm² 水压試驗 合格品)
- SECTIONAL BOILER
- HOME BOILER
- CONVECTOR
- PIPE FITTINGS

暖房·配管用
生産品種



【特 徵】

- 徹底한 品質管理
- 美麗한 外觀
- 優秀한 鑄物
- 低廉한 價格
- 徹底한 AFTER SERVICE

国内 最大規模의 量産体制로서
여러분께 奉仕하고 있습니다.

【兼營業種】

江原製作所· 江原炭砒· 三稟煉炭
三稟石油· 三稟骨材· 三江運輸

江原産業株式会社

本社 서울特別市鍾路区新門路二街6 TEL. 75-2381~5
(直) 73-5514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S
JANUARY 1970

Published monthly at 25, 1ka, Euljiro, Chung-ku,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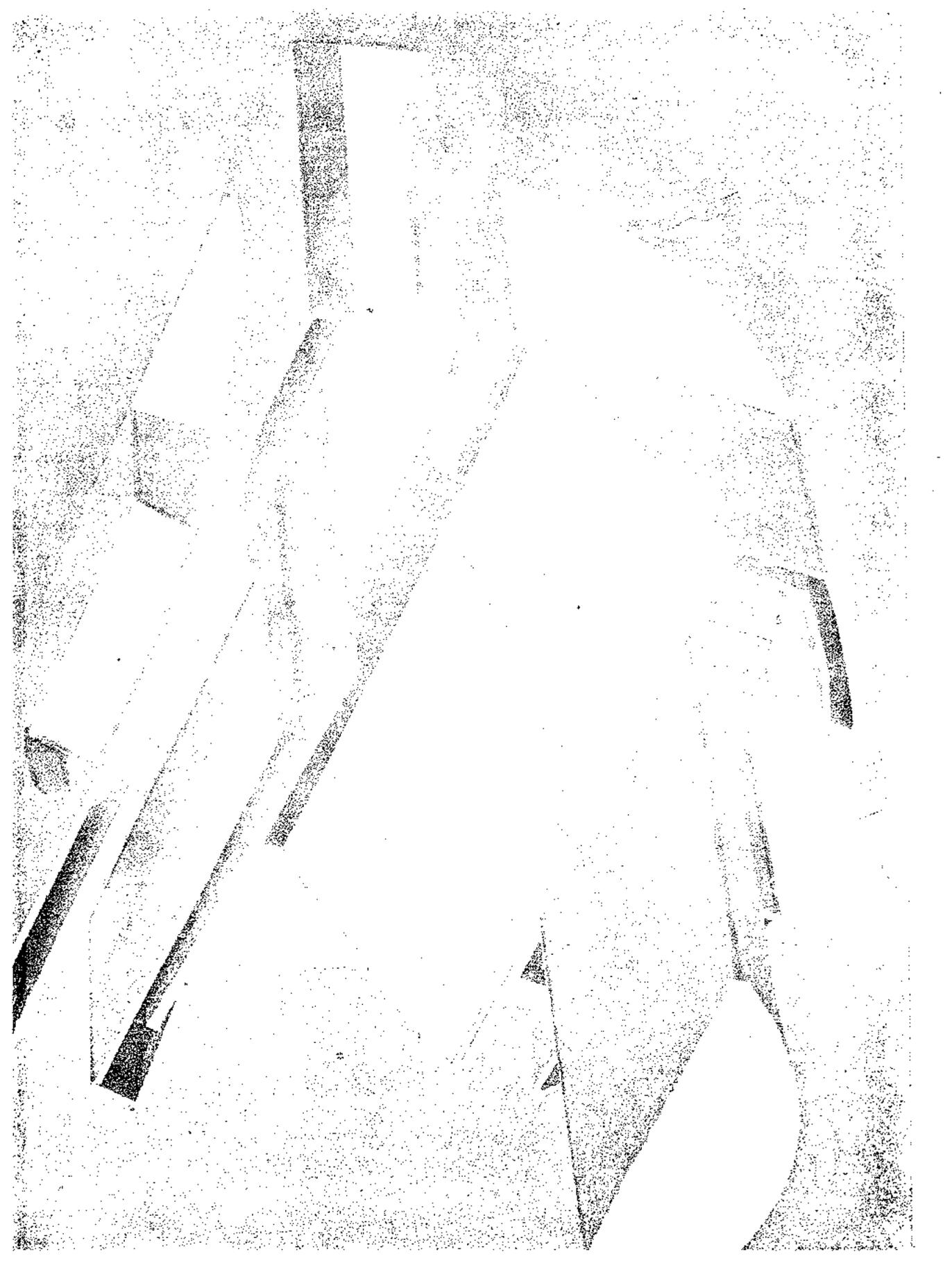
U. D. C. 69/72(054-1) : 061-22(519) 1970년 1월 31일 발행(월간)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7 호
구입년월일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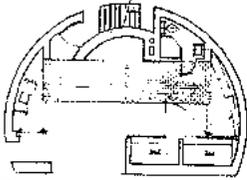
70년대의 작가 ① 로버트 벤츄리	6	편집위원회
이달의 작품	24	
제주대 학본관		김중업
제주대 학수산학부		김중업
EXPO '70 한국관		김수근
여의도교회		김수근
간슈리크럽		나상진 후후
건축가의 집		김하진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35	김수근 윤승중
서울 마스터프란의 제안	39	김태수
나외 방법① 제임스·스털링	44	한창진 역
유공랑의 설계	53	신중순
찰 문	55	나상진 편
빈 현대건축① 알헬트 슈필	59	김명구 편
건축법령 개정법률	63	
1970년도 사업계획	67	
협회기사	7	

■ 발행소 / 사단법인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25번지 정양빌딩 601호실 / 전화 28-9802
 ■ 발행인 겸 편집인 / 강명구 ■ 인쇄처 / 대한공문사 ■ 등록일자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 / 1970년 1월 8일 ■ 분류번호 / 바-216호 ■ 인쇄 / 1970년 1월 28일 ■ 발행 / 1970년 1월 31일 ■ 월간 ■ 권제 17호 / 한은무교지점 195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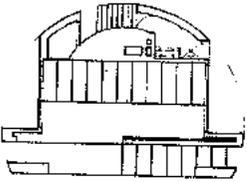


ROBERT VENTU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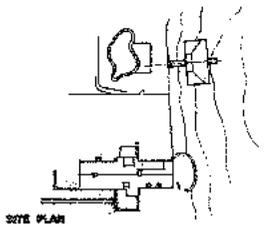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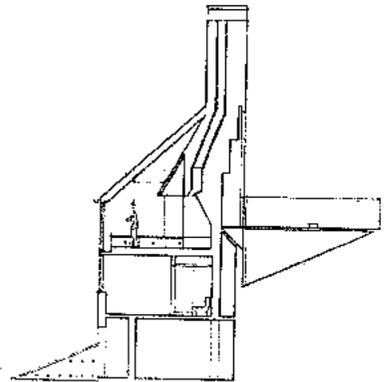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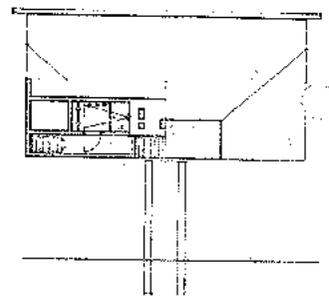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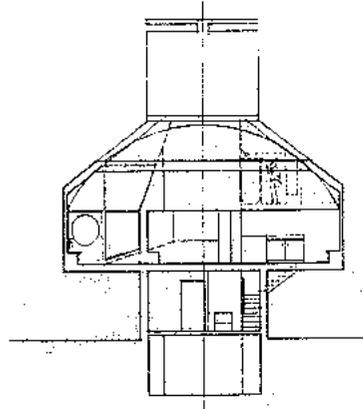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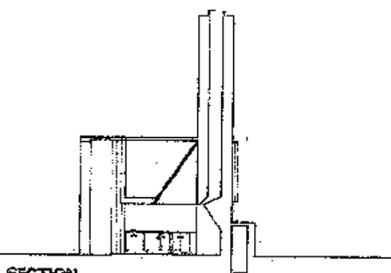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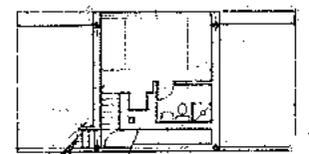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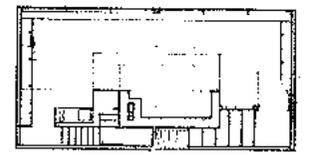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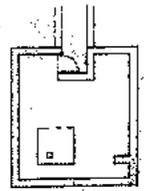
SECTION



SECTION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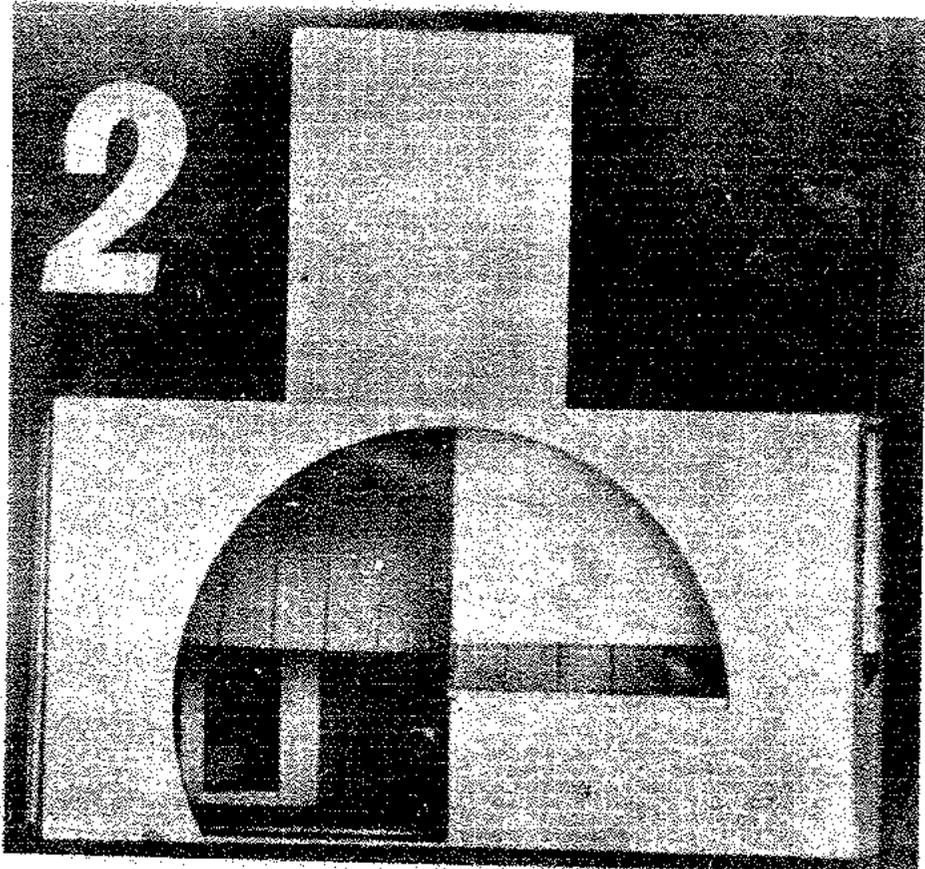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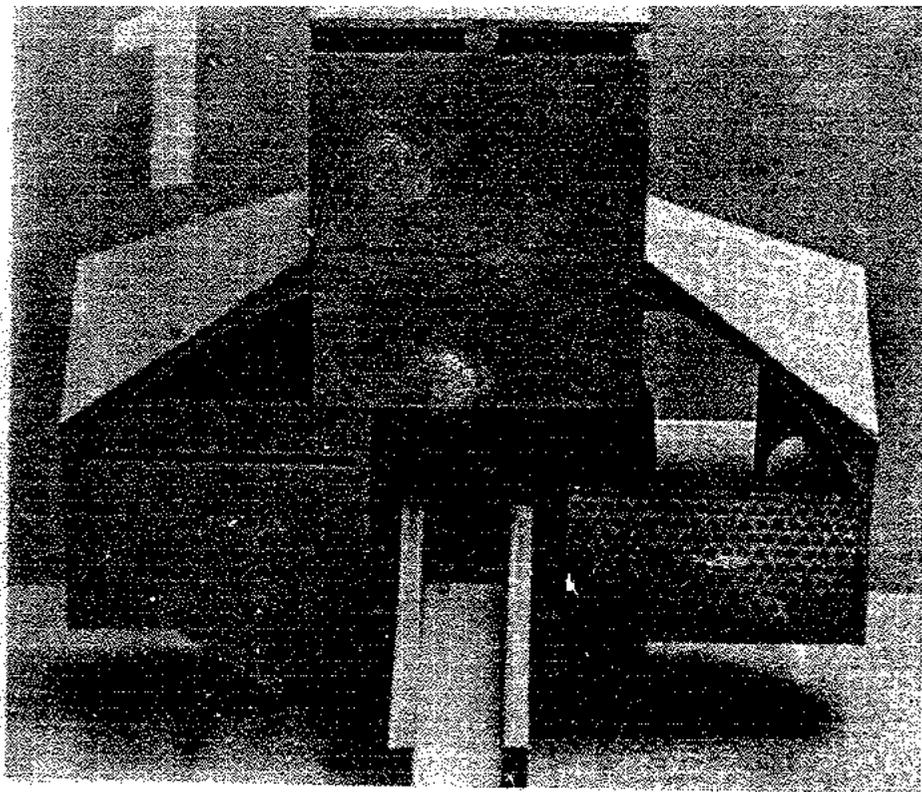
PL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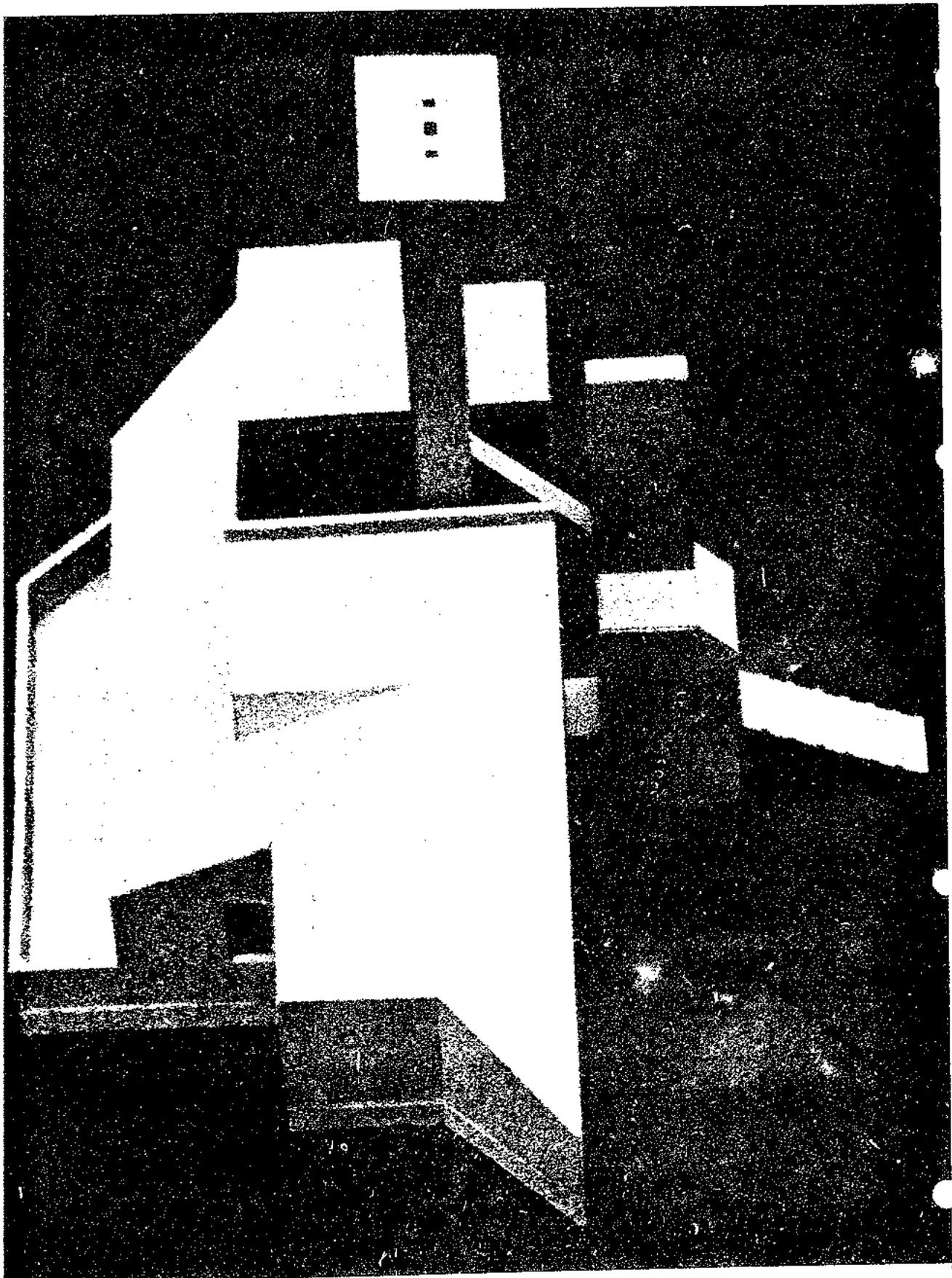
PRELIMINARY DESIGN.

1

FINAL DESIGN.

2





WEEKEND HOUSE BY ROBERT VENTURI
Elevation, section, and photo of model.

극히 최근까지 우리에게 로버트·벤처리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그러나 서서히 그의 이름은 현대건축에 한 사건으로 피어가고 있다. 최근의 많은 논쟁은 대부분 그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다. 앨런·콕코한은 그를 수상하다고 하고 빈센트·스칼리는 그를 현대건축의 한 이포크라고 말한다.

좀처럼 남의 건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루이스·간도 벤추리는 자주 인용한다.

요즘 외국잡지들은 벤츨리의 아르로 붐비고 있다.

어쩔수 없이 우리는 루이스·칸의 모습뒤에서 로버트·벤츨리 외 투명한 반어와 표상성을 보게될 것이다.

그는 거침없는 아이러니와 해학으로 현대건축을 아우른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소박한 합리주의와 외곡된 조형의지에 불투해 있을때 그는 잊혀진 건축의 고전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극히 정통적인데 파격적이고 괴상하면서도 정교한 그의 작품들과 비록 완벽한 체계를 갖추지는 않고 있지만 놀라운 에스프리를 보여주는 그의 말들은 피폐한 현대건축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어쨌던 그는 뽀뽀며 우리는 일단 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건축에서의 복합과 모순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벤츨리는 현대건축에서의 복합과 모순이라는 제목의 건축론을 저술했다. 이책은 두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변명 비슷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성》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단순성 대신에 《복합성과 모순성》을 내세운다. 그리고 현대의 기능주의와 합리주의가 건축의 이러한면을 무시하고 있지만 건축작품에는 필연적으로 이누개념이 내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개념이 벤츨리의 기본개념이고 작품에서 《반어적:ironic》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절충주의의 옹호

정통적인 생각으로 보면 건축가는 공간을 소재로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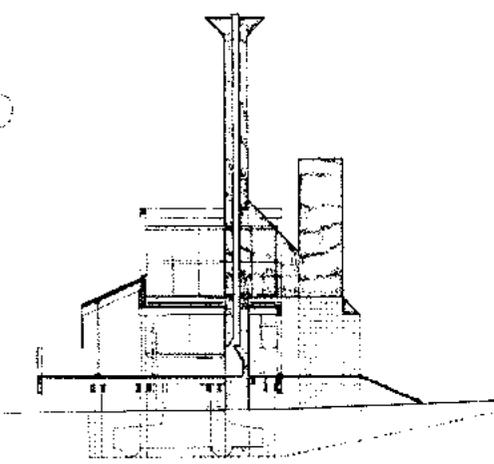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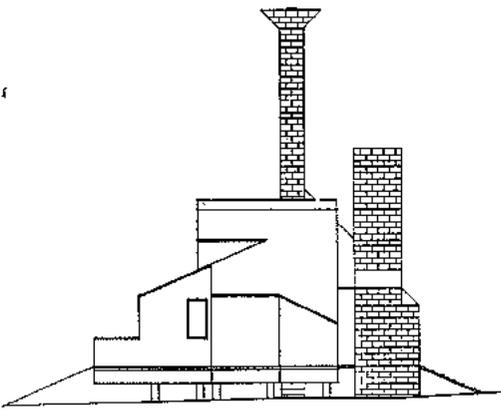
건축가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또 그렇게 작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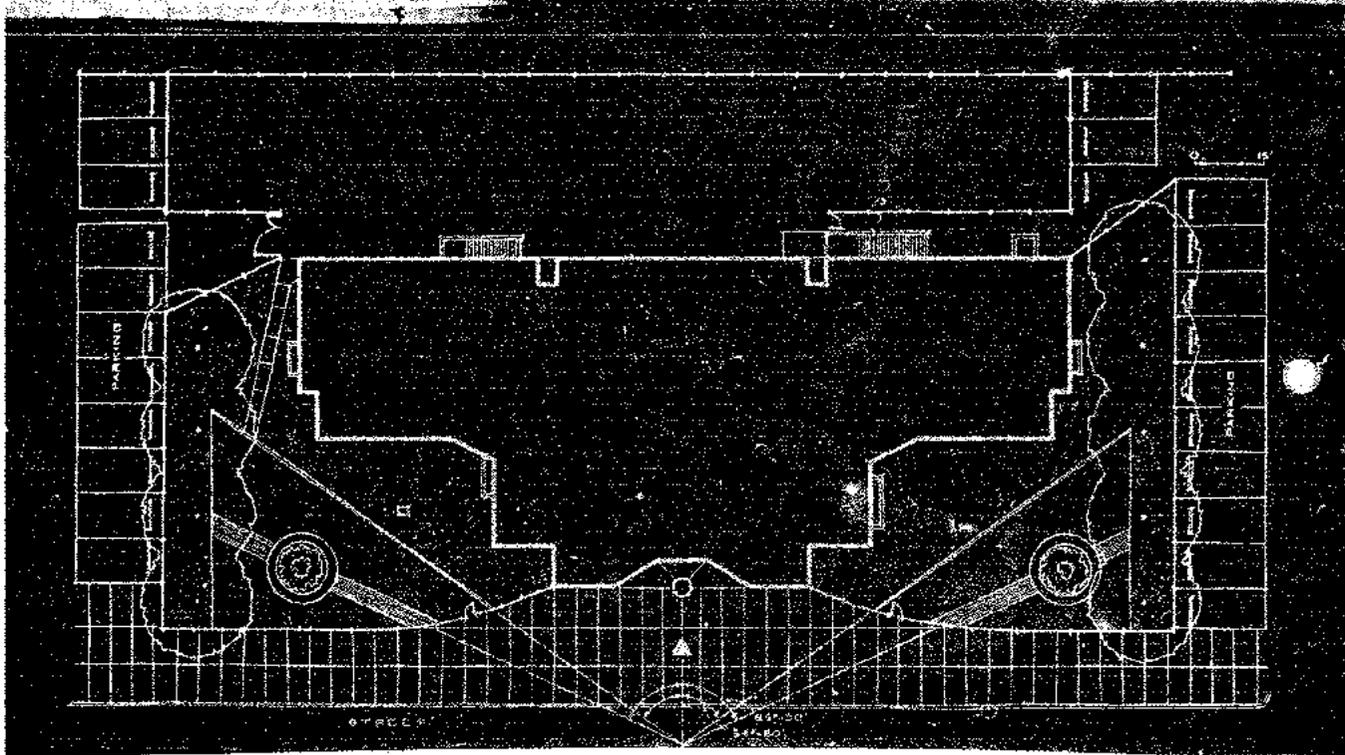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인가? 가령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플라자와 20세기 현대의 도시가 갖는 공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전자에서 《내계적공간 内界的空间; enclosed space》이라는 뚜렷한 개념을 볼수 있다. 거기에는 섬세한 공간의 조각과 보행의 리듬을 바탕으로 한 《형비감 形比感 scale》이 이루어내는 공간감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외에 과거의 건축이 갖는 또다른 특징은 이들이 어떤 문학적, 종교적, 또는 국가적 사실에 대한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후자에 와서는 오로지 《효율성》만이 문제가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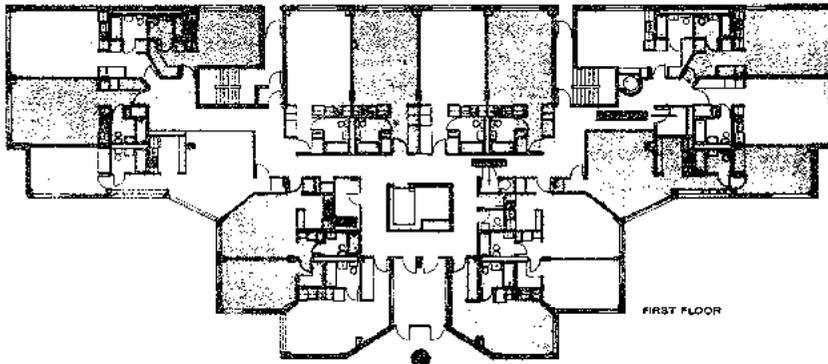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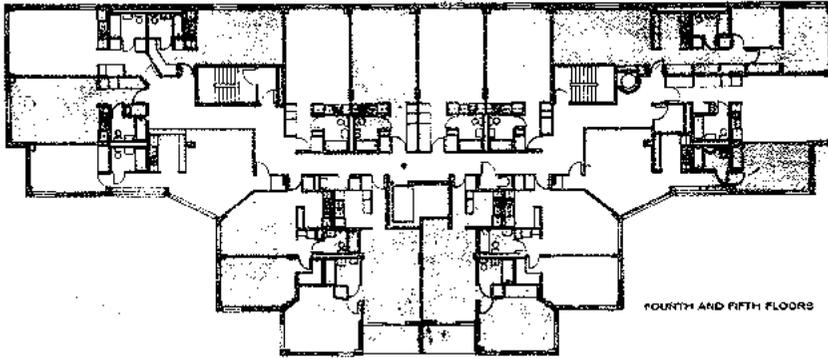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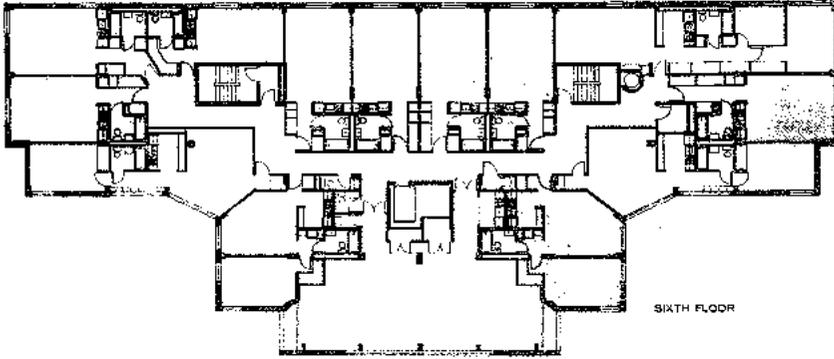
이것은 일종의 《기계적인, 공장적인》 성격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로 벤추리는 모든 건축이 필연적으로 절충주의적이라는 이론을 전개한다.

그 이론은 이런 것이다. 건축은 어떤 《표상 表象》을 지녀야 한다. 즉 극단적인 추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유기체적인 것이고 전통을 내포하고 있는 실체이다. 이표상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기존의 어휘를, 재래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수 없다. 엘리엇(T.S. Eliot)의 전통을 상기하면 쉽게 알수 있다. 엘리엇의 어휘는 문화적, 문학적 전통에 깊히 뿌리를 박고 있다. 그의 시에서 풍부함을 느끼게 되는것은 바로 이러한 것에 연유하는 것이다. 가령 그가 극히 추상적인 언어의 조립에 그쳤더라면 우리는 그의 시에서 어떤 풍요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길드 하우스



그런데 현대의 순수건축논자들은 19세기의 절충주의가 《건축의 본질적인 상징성》을 전락시켰다고 힐끔는다. 그들은 자신이 자라난 바탕을 털어버림으로써 과거의 어떤 건축과 《단절상태》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순수건축은 절충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동》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이 《단절》로 해서 건축이 지켜왔던 《장식적 바탕: a tradition of iconology》은 숨어지고, 회화, 조각, 공예등 다른 분야의조형미술은 흩어져 버렸다. 이들 순수건축가들은 형태의 표상성을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비평가와 역사가들도 빗장구를 쳐서 우리는 이런 《표상》에 대해 도리어 이색하게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기능주의의 형태관 근대의 미술조류나 기계에서 꾸여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다시말해서 《공장 양식의 절충주의적 도입》에 지나지 않는다.

《대화의 건축: an architecture of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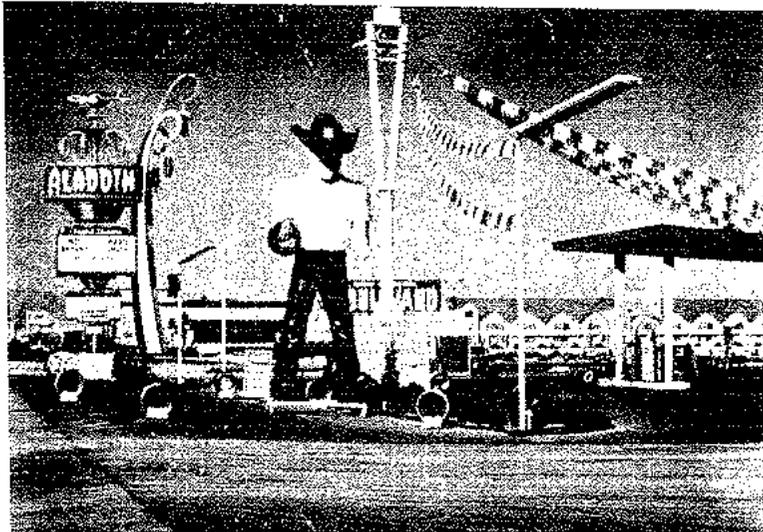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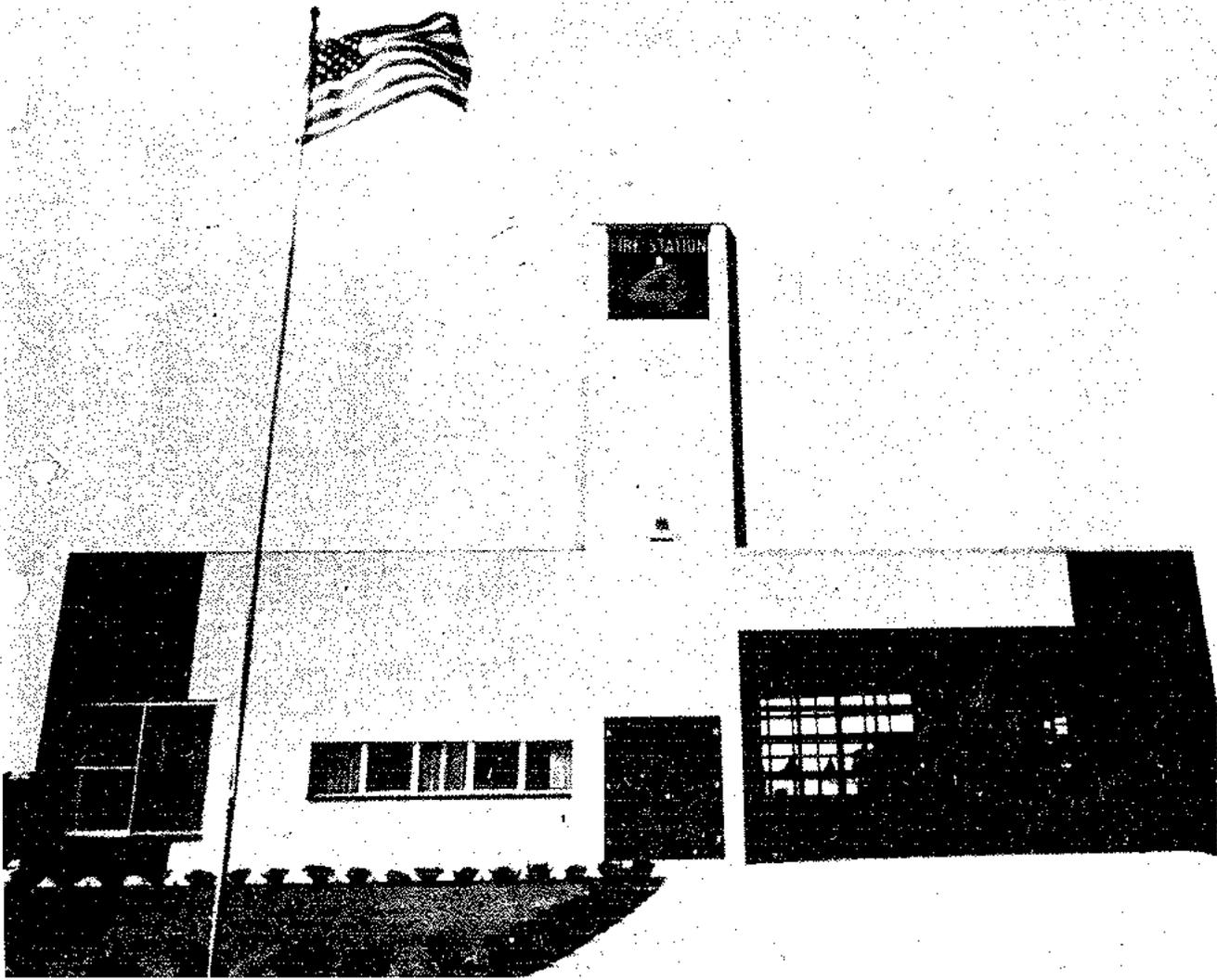
비평가들은 상업미술에 대해 초연하려 한다. 마치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모욕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환경을 지배하는것은 바로 이 상업미술이다. 신문잡지의 광고 수많은 간판, 거대한 전광판, 이런것들이 우리가 체험하고있는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어떤 호텔이라는 건물 자체보다 그것의 간판을 《언저 인식하게》 된다. 이번 현실을 비평가들이 인정하려들지 않는것은 앞서말한 《단절》에서 그 근원을 찾을수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아니면 《고속한》 상징성이자 이런 《저속한》 간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광대한 공간, 시속 60마일의 속도, 복잡한 매카니즘,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고속도로변의 간판이 주는 선명한 표상은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현대의 리듬은 과거의 리듬과 다르다. 과거의 리듬은 파괴되었다우리의 주위는 너무 혼잡하다. 우리는 《방향감각》을 상실하기 쉽다. 따라서 《부호와 표지》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고 또 주요한 방편이 되어야 한다. 즉 이제까지의 공간, (space), 형태(form), 구조(structure) 등 전통적인 건축의 요소들과 동격의 요소로서 이 부호를 다루어야 한다. 벤츨리의 작품에는 바로 이러한 《대화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이 부호와 건축을 결합시켜 어떤 양식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중사회와 동적인 흐름》이 두가지 현대의 특성에 적합한, 즉 어떤 미묘한 상징보다는 대담스런 표상의 건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건축은 《반공간적: anti-spatial》 건축이라고 볼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은 극단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표지: bilding-board=building+bill board》로서 느껴지는 것이다.

《복합성: Complexity》의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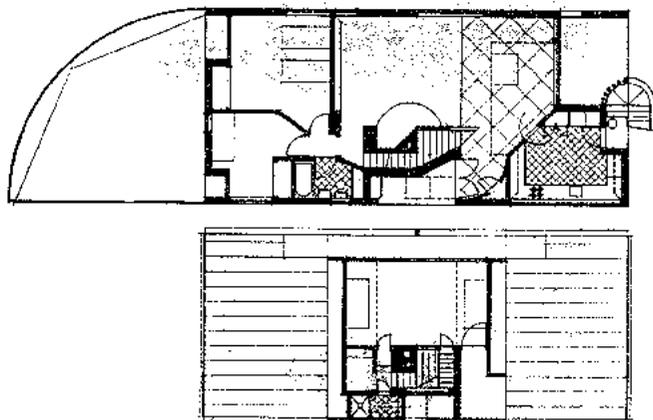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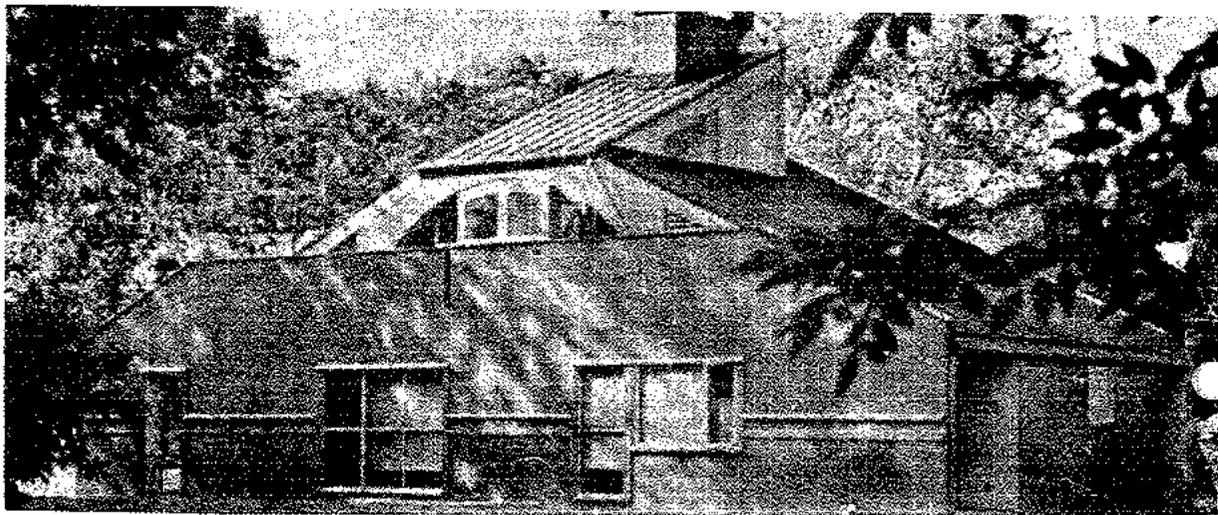
건축작품은 《동시에 여러개의 국면》을 지녀야 한다. 긴장감(tension), 모호성(ambiguity), 대비(contrast) 등등 여러어휘를 구사하여 《하나의 주요한 줄거리: a main plot》와 《여러개의 부차적 줄거리: sub-plots》를 구성해야 한다. 벤츨리의 《복합성》은 이러한 논지이다. 이것이 다른 차원에서의 건축의 모습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명제의 완전한 증명을, 즉 이런 논지의 완전한 체계를 벤츨리는 만들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논지도 펼칠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복합성》이 중요하다면 단순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자는 《공존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합성을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받아들여도 무방할것 같다. 즉 《어떤 추상적 질서: an abstract order》만을 추구하는 구조물에서 지성적, 대중적 생활을 내포하고 있는 건축으



A 3: LAS VEGAS, PHOTOS ROBERT VENTURI.



《모순설 : Contradiction》의 내포

우리는 앞서 전통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아 보았다. (알란 콜런 Alan Colquhoun)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시대의 정신 (mythology)은 그상황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인 여러 객관적 사실로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사는 기존의 체계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신화를 수립하는 과정의 기록이다.

우리는 전통이 그 양상은 변하면서 연속되어 간다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서 연속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다시말해서 전통이란 관념이 건축에 《내적논리 内的論理》를 얻는 하나의 방법: an example of inner consistency》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벤즈리는 이 전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치 어떤 구체적인 전통적 요소를 현대라는 상황에 맞게 각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떤 위화감을 동반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벤즈리의 모순 같기도 하다. 이것은 마치 꼬르뷔제가 인습적요소 (창, 문, 보자르의 어휘 등등)를 자기의 합리주의 기능주의에 의해 구성하는 때서 생기는 모순과 같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꼬르뷔제의 모순은 벤즈리의 가설과는 정반대 편에서 출발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즉 전자는 의도하지 않은 《소극적인 모순》이고 후자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진 모순이다. 그가 마네리즘 바로크, 절충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은 이런 것이다.

《반어: irony》

위에서 말한 《적극적인 모순》이란 벌써 그것 자체로서 하나의 반어적인 성격을 띠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이 《반어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벤즈리는 건축이 어떤 추상적 요소들의 《조립》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분으로서, 문화의 연속으로서의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문화》라는 기본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건축이라는 《비언어적》인 양모는 의미를 구체화 하는 데 있어 사회학적 윤리학적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은 벤즈리의 이런 성격때문이다.

그래서 벤즈리가 《반어》라고 표현한것은 어떤 의미에선 《일종의 도덕적 반항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즉 사회의 전도된 가치관념을 진부하고 평범한, 사투리같은 어휘로서 간접적으로 비꼬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올바른 궤도를 취하고 있다면 이런 《반어》는 존재치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벤즈리의 어휘는 《고전성: classic》대지는 《지방성 : a folk culture》을 써서 쓴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벤즈리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의 어휘가 미술조류나 시대의 유행을 반영하는 것 같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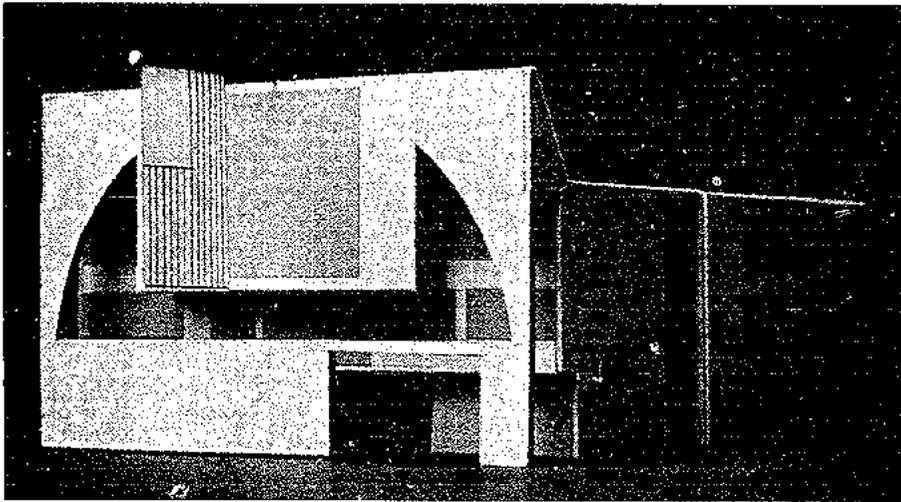
여하간 그의 태도는 《순수예술: art pour l'art》을 지향하는 입장이 아니다. 《계획과 구조》에 의해서 공간의 형태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능주의자들의 방식에 불만을 느끼는 데서, 다시말해 《두 요소와 무연적인 직관의 방법에서》 건축이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데서 그의 반어는 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건물전체에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에서만 《맹준고》 있다. 벤즈리도 《효율성》이라는 신화에는 무력한 모양이다. 따라서 그가 시도하는 논리적 일관성은 건축전체를 꿰뚫지 못하고 《반어》라는 비논리적인 출구를 찾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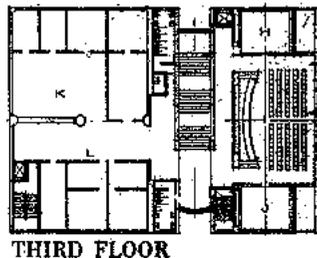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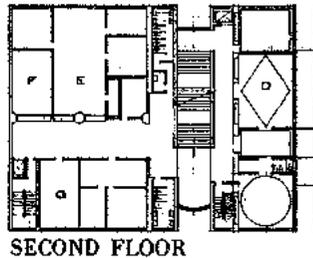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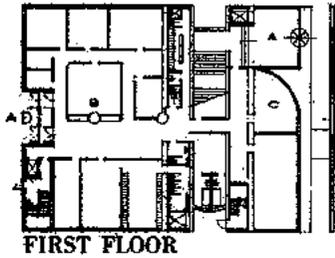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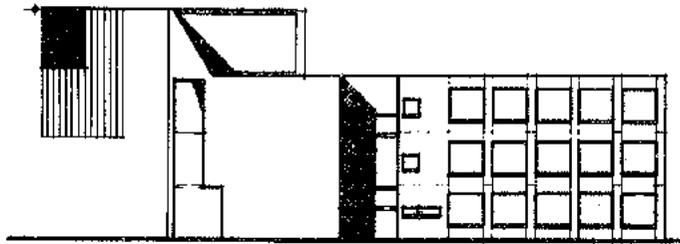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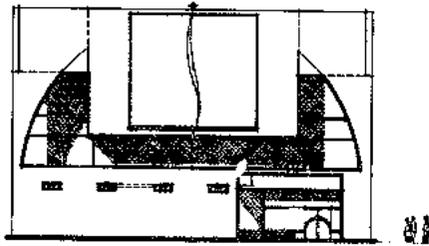
《아키그램 ARCHIGRAM》의 작업은 사실상 《휴·아트 POP ART》나 《공간의 유희》에 그쳐버린 것 같다. 그들은 편견 뒤엎지만,

벤즈리가 흰 이말은 어느정도 사실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자신의 작업에도 해당이 될수 있다는 것은 정말 반어적이다.

물론 벤즈리도 이만에 퍼져 버티리마



어느마을의 시청 (오하이오주)



- A. 입구
- B. 경찰국
- C. 기계실
- D. 시장실
- E. 재무과
- G. 위원회
- H. 의장
- I. 회의실
- J. 위원회
- K. 시설과
- L. 구매과



《의사입면 擬似立面: Pseudo-facade》과 《형비 形比: scale》 《형비 形比: Scale》의 구사

우리는 앞에서 《반어》라는 비논리적 출구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표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했다. 그런데 Venturi의 표상은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의 주요관심은 《거리에 향하면》에 쏠려 있다. 이면은 일종의 얽은 면이다. 거기에 있는 표상은 회고적이고 절충주의적이고 수사학적인 성질의 것이다. 일종의 “잡종”이라고 불리워도 그만이다. 이러한 면은 《의사입면》이라고 정의하자. 즉 면과 그것이 싸고 있는 내부공간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벤츠리는 이면의 의사성으로 표현의 자유를 얻고 있다. 그것은 건물이 실제로 지니는 형비와 기능에서 자유로와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면에 대담하고 극적인 구성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런 구성으로 대중, 즉 《거리》와 건물간에 어떤 대화 또는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 대화를 일상적인 것에서 탈피시키기 위해 벤츠리는 과장된 《형비》를 구사한다. 오히이의 세전골을 보면 어점이 뚜렷하다. 이 작은 건물들의 《의사입면》에 큰 《형비》를 줌으로써 로마의 사원이 있는 거리와 같은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시청에서 앞 뒷면이 가지는 《형비》는 대조적이다. 이것은 거리의 방향과도 관계가 있지만 건물의 내부기능에 의해서도 그러하다. 거리쪽은 회의장, 시장활동 《정적 靜的 불변적인 의식공간 儀式空間》을 이루고 뒷쪽은 관료체제를 대변하는 듯한, 《가변적인 사무공간》을 이룬다. 이런 차이를 《형비》의 차이로서 표현한다. 일종의 《도시공간구성: urban setting》과 《내부공간구성》의 두 요소의 차이를 드러내 주는 듯하다. 시청의 전면은 이 도시의 거리가 갖는 속의 중심점을 차지한다. 이 관계는 이들 전면에 미묘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즉 보행자는 《시점의 변이 變移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를 체험하게 한다.

Y.M.C.A 에서는 전면의 대위법적 배열》과 뒷면의 무질서가 대조적이다. 전면의 중앙부에는 리듬이 반복됨으로서 초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고 양끝으로 강렬함이 불려가고 있다. 그리고 벽면의 구멍을 크게, 그리고 자주 반복시키지 않음으로써 건물전체에 《형비감과 통일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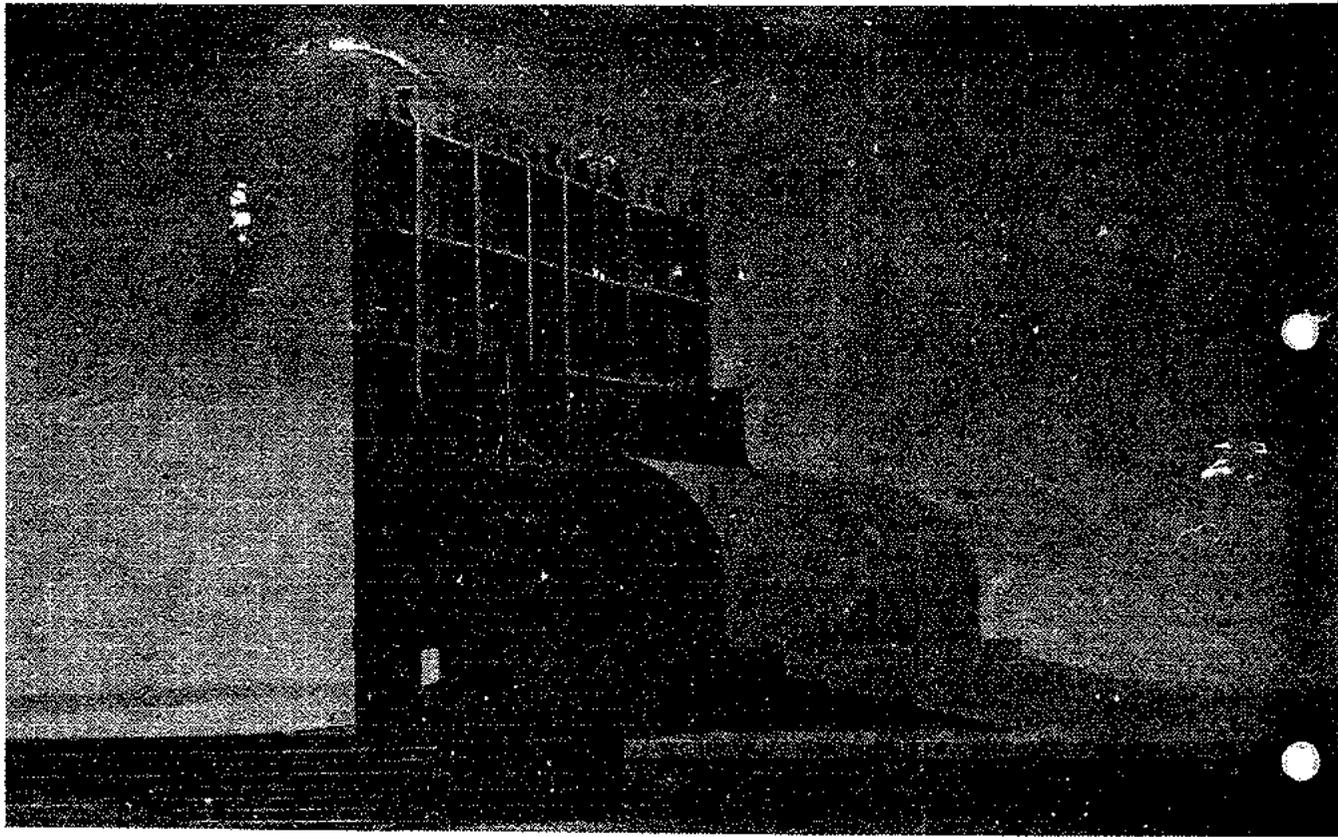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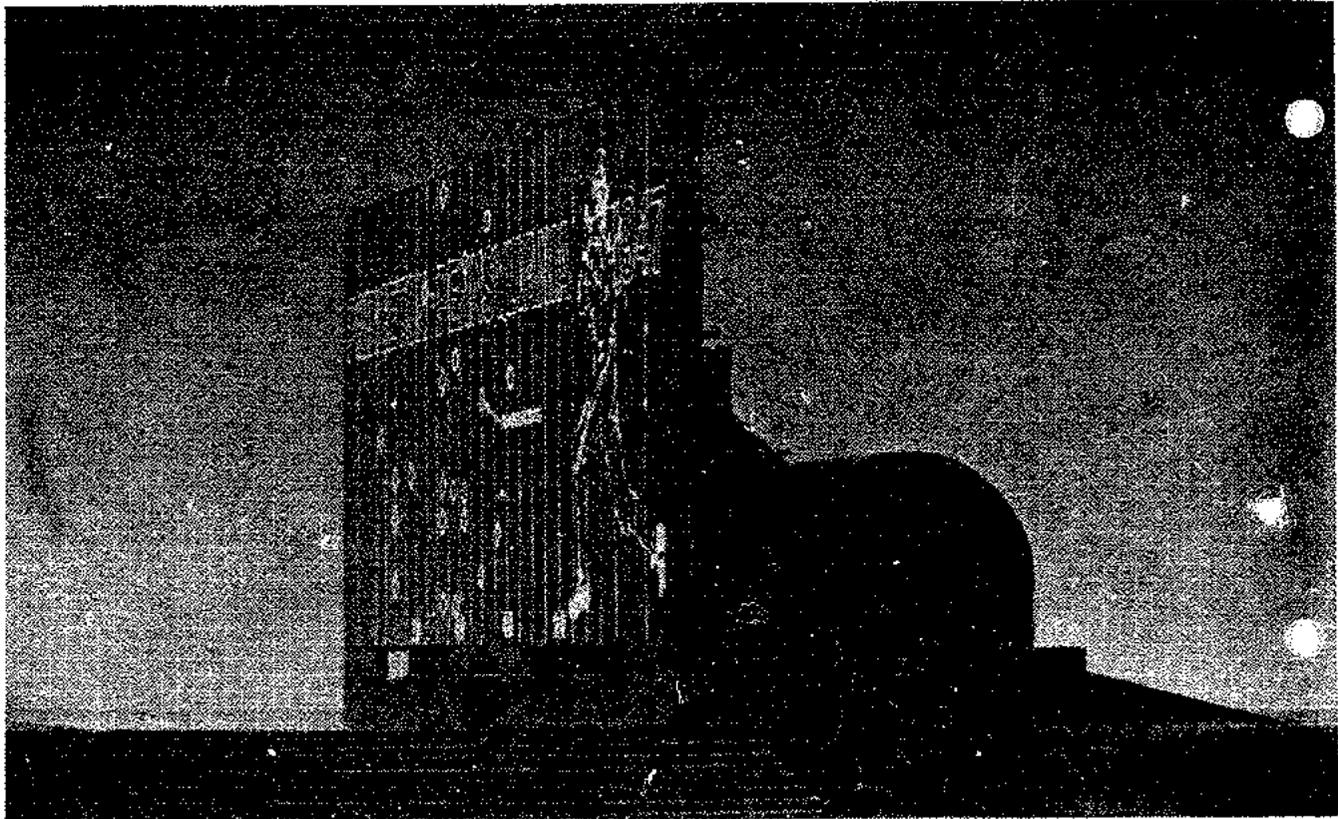
도서관은 기존건물 거죽에 문자 그대로 유리된, 《의사입면》을 의뢰는 것이다. 커다란 형비의 구멍속으로 심세하고 진부한 형비가 엿보이는 것이다.

길드·하우스에서는 이런 형비와 더불어 의식적인 《표상어휘》들이 도입된다. 바르크중의 벽돌쌓기, 만원형의 창, 거리에 비례하여 달라지는 창의크기, 선형철책, 간판 모양의 단자. 이러한 《일상어》로서 《반어》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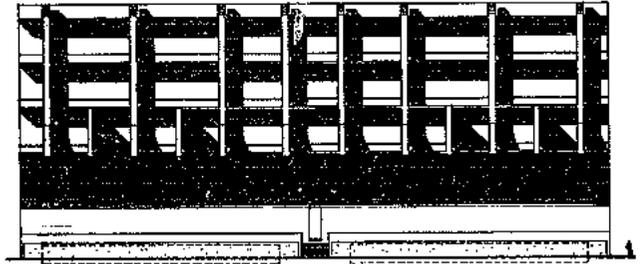
벤츠리는 샤토 Chateau et Anet 와 길드·하우스를 비교하고 있다. 건물의 상·중·하를 나타내기 위한 윗부분의 편벽됨과, 입구 중앙의 기둥, 중앙의 테레비·안테나와 샤토의 사슴발의 대비등등(테레비·안테나는 20세기문명의 상징이며 거기에 매달려 삶을 뽐내고 있는 노인들의 상징이다.) 그의 반어는 노인이 주는 느낌같은 안락함과 따사함과 서민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다.

FIRE STATION 과 FOOT BALL HALL 은 《대화의건축》이라는 명제에 충실한 작품이다. FIRE STATION 의 게시판 갈 I 은 느낌은 구조와 장식이 유리되어 있는데서 나오기도 하지만 60마일의 속도에서 하나의 실제로서 느껴지도록 계획된 외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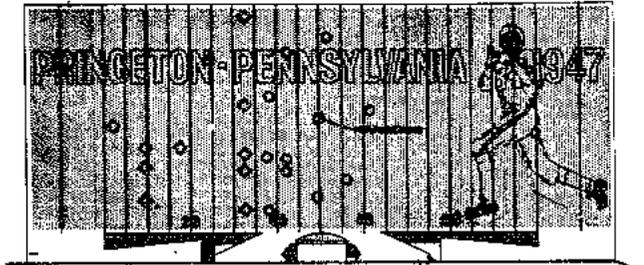
백색과 흑색 패턴의 대비, 《의사입면》 이런 것들로 해서 이것은 차라리 거대한 간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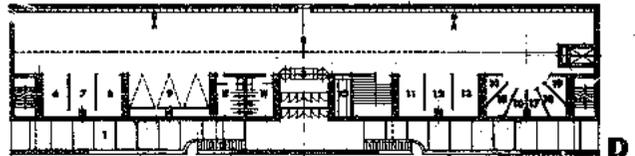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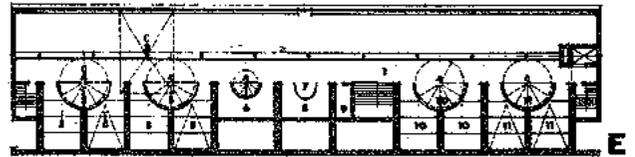
FOOT BALL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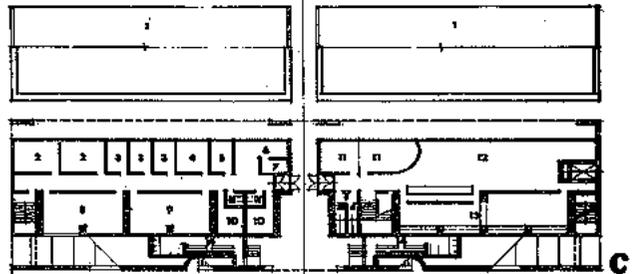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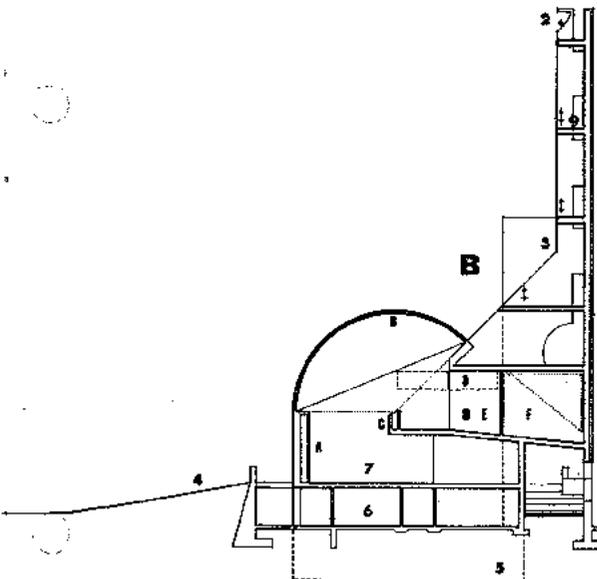
앞면.



D. 입구. 전시출평면



C. 지상층평면



FOOT BALL HALL의 설립취지는 사회적 교육적 요구에 맞는 《하나의 상상적중추》로서 그리고 지도 능력을 함양하는 foot ball의 정신을 《표상》하고자 한 것이다. 건물내부의 천정과 한쪽 벽은 영사막인데 이것은 벤츨리의 생각에 적합한 수단인것 같다. 이 기다랗고 거대한 영사막과 반대쪽 벽의 수많은 요소(유물품의 전시)와의 대비는 강렬한 효과를 주고 있다.

상부의 지루하고 밋밋한, 《형비감》이 상실되어 버리는것 같은 거대한 전광판과 하부의 《인간형비 人間形比: human scale》적 구성과의 대비도 마찬가지다. 영화라는 매개체(media)는 건물안밖 모든곳에 넘쳐흐른다. 그리고 그것은 건축적 공간과는 본질적으로 유리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의미소 意味素: message》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감각이 비교적 적은, 다시말해서 벤츨리가 말하는 《논리적 일관성》이 비교적 잘 구현된것은 주택에서이다. Venturi house, Weekend house, Frug house 등은, 기능이 약간은 모호해져 있지만, 벤츨리의 생각이 건물내부에 스며들어간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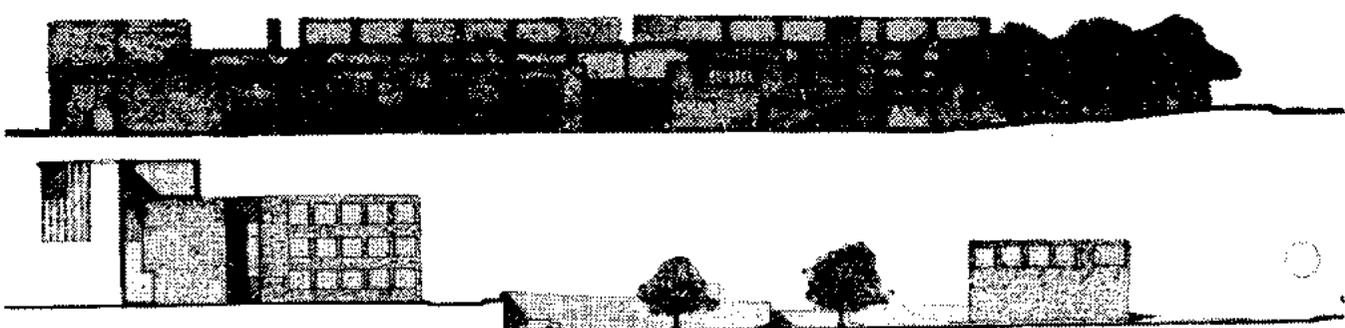
Venturi house에서 공간의 밀도는 면의 균열사이로 《빠져 달아나 버렸다.》 즉 주택이 《외부와외 차단: protection》이라기 보다는 《마분지 조각의 집적 集積》같은 느낌을 준다. 어떻게보면 《관념의 유희》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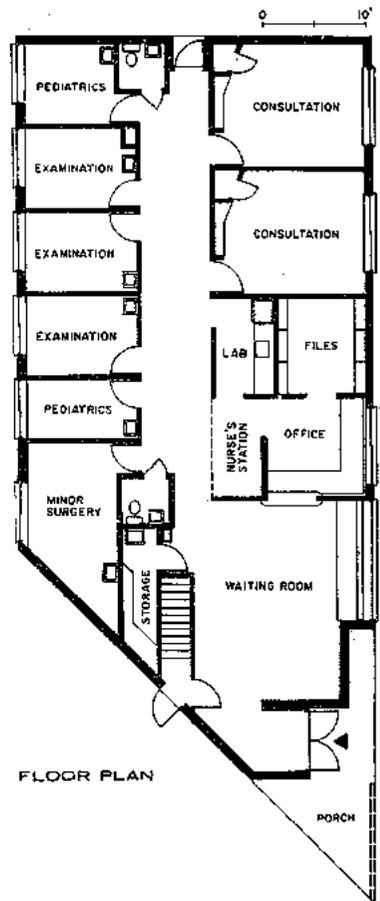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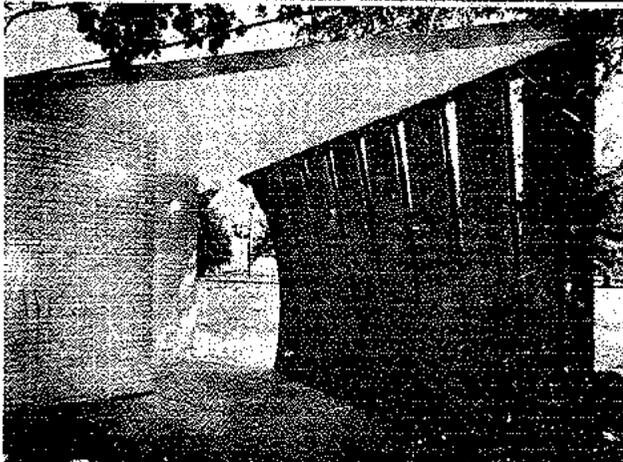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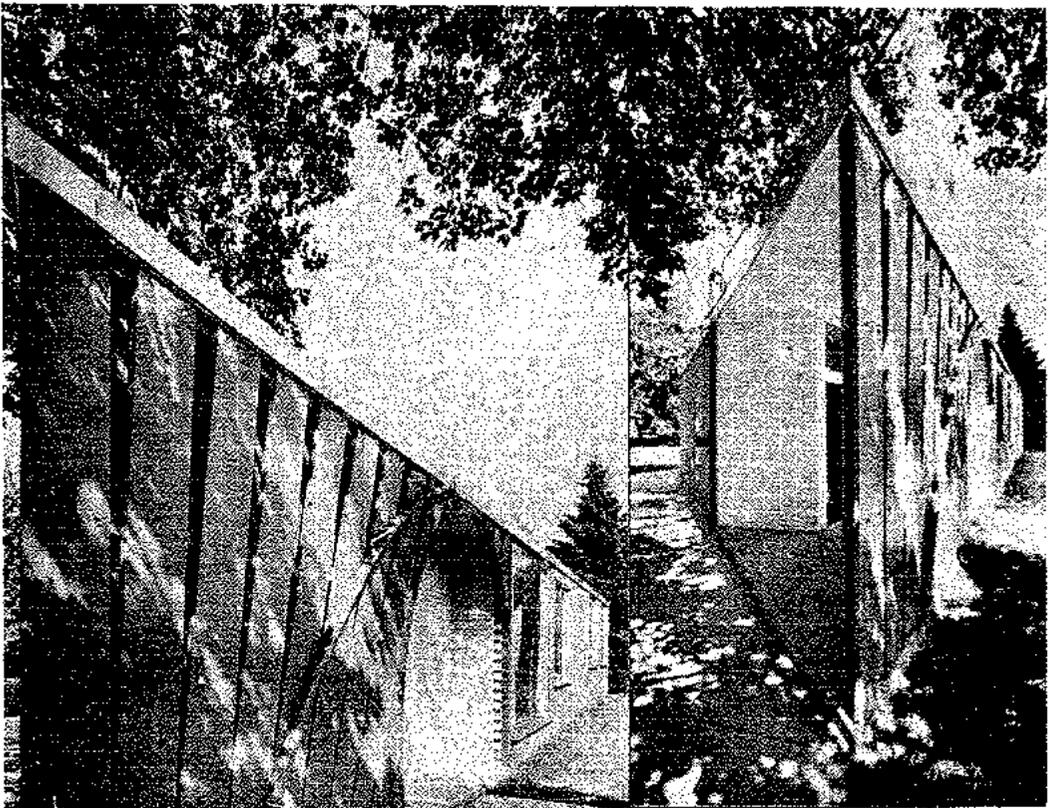
이런 《유희》의 느낌은 FRUG HOUSE에서는 더 뚜렷하다. Frug House는 《의사입면》과 파장된 《형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면에 여러면(facade)이 겹쳐있음으로 해서 《여러점의 막으로 싸여진: sense of multiple enclosure》 느낌을 준다. 실차원 하나는 FRUG HOUSE가 그 이름과 같이 《하나의 농담: a joke》이라고 말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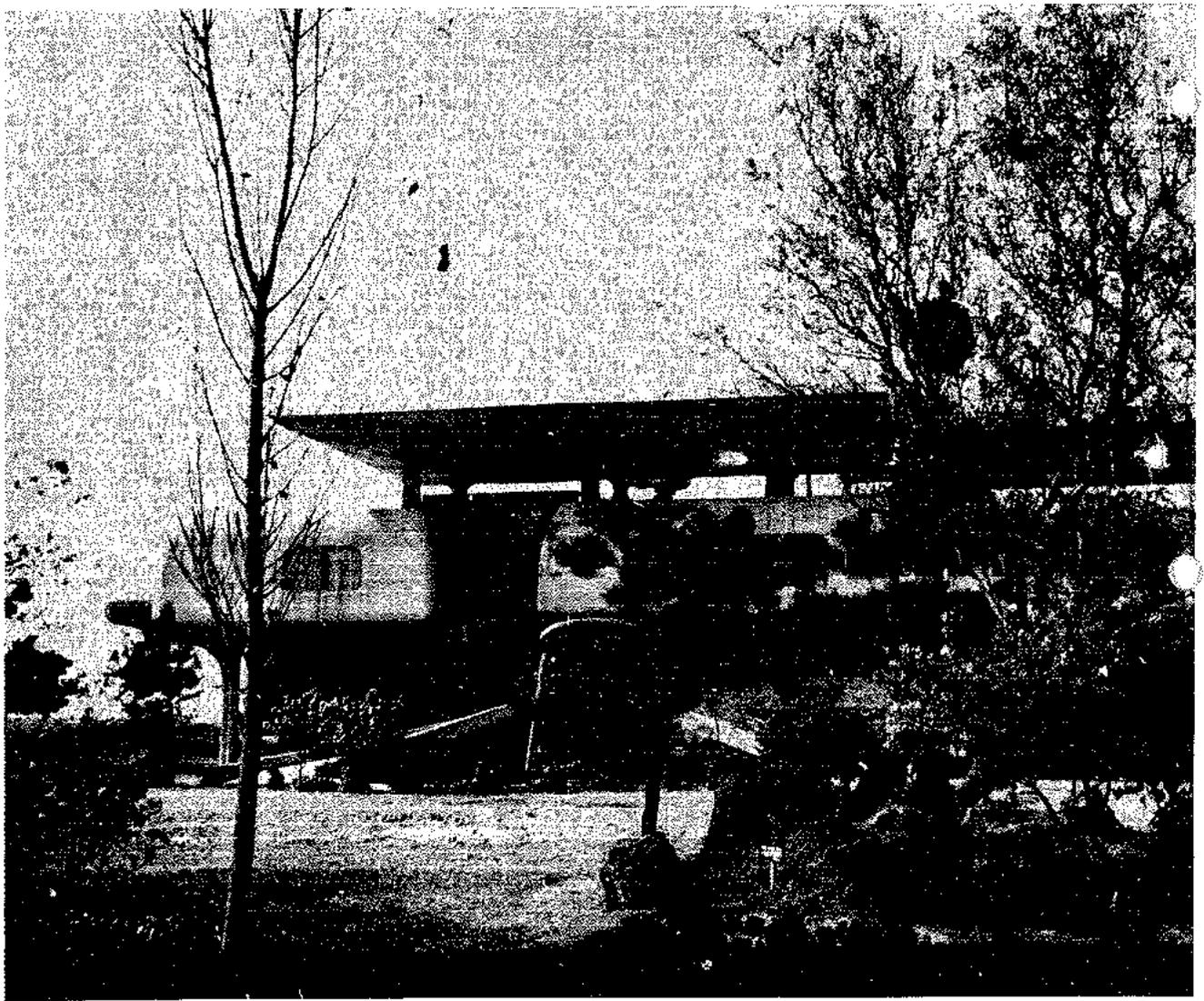
Weekend house는 건축이 《여러 국면의 내포》라는, 즉 《하나의 주요한 구성》과 《여러 부차적 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그의 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집에는 바다로 향한 앞면과 입구가 있는 뒷면만이 있고 측면은 없는 셈이다. 말하자면 앞뒤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않다. 외부의 형태는 벽난로 굴뚝을 구성의 축으로하여 이루어져 있다.

Medical Office의 《반달문: moongate》에 대해 벤츨리의 부인(도시계획가)은 “마치 광장구석에 중국집을 차려놓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한 식으로 어떤 인상을 가져다 주는 요소와 건물이 유리되어 있다. 이러한 짓은 결국 《하나의 해학》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Memorial Park에서도 비슷하다. 이 공원은 일종의 묘지인데도 축음이 친근하고 명랑한 것으로 변질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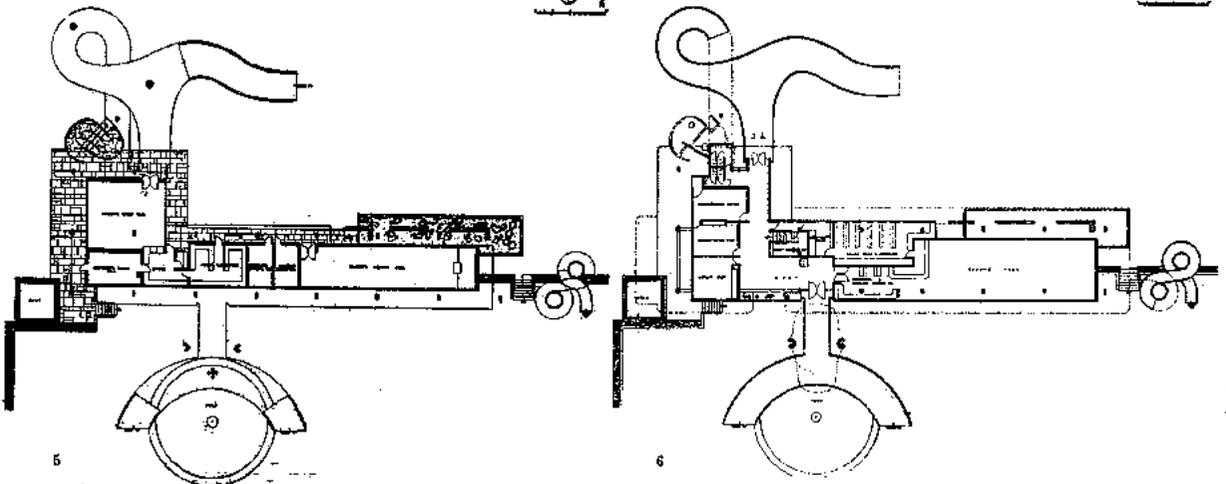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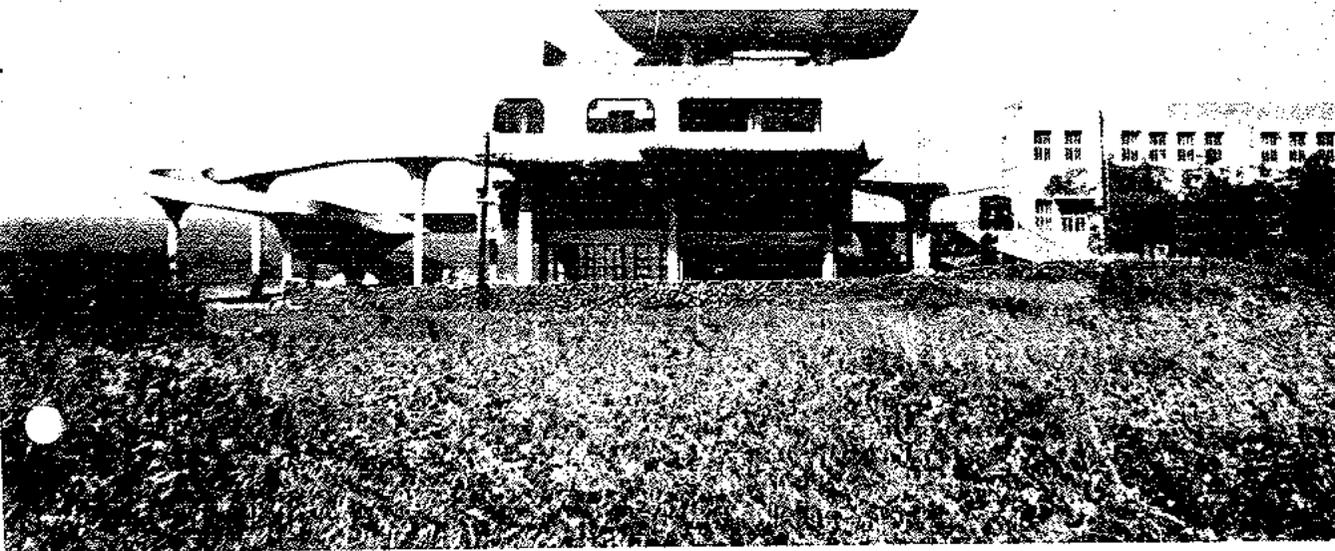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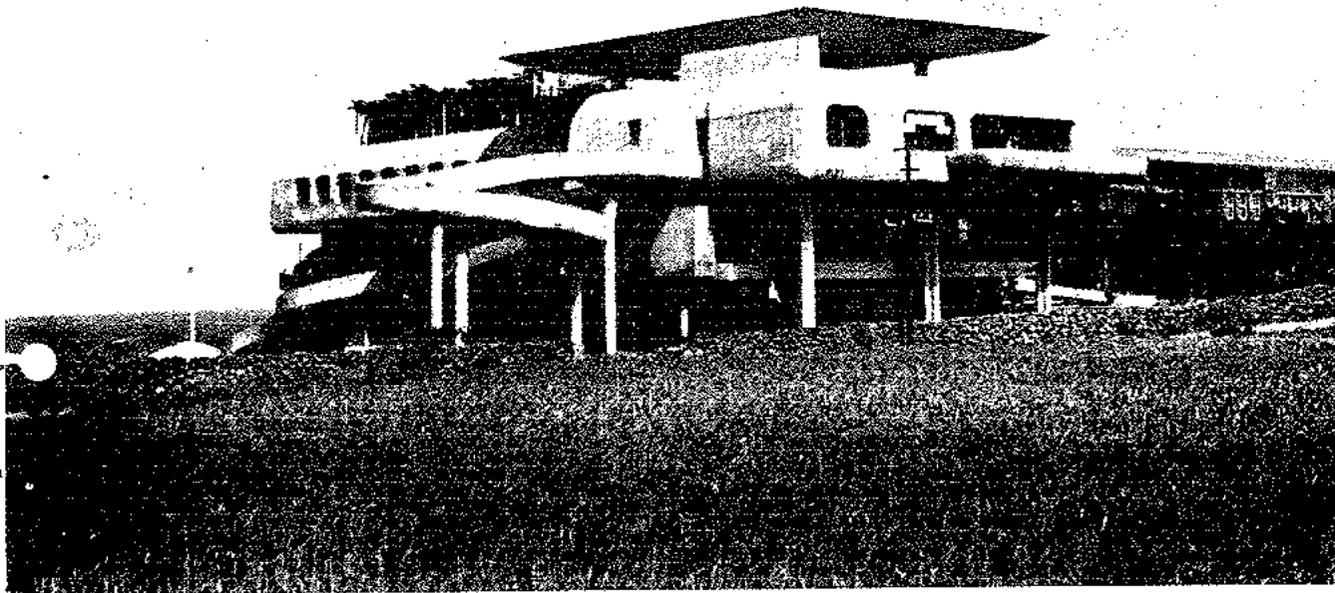
제주대학본관 김종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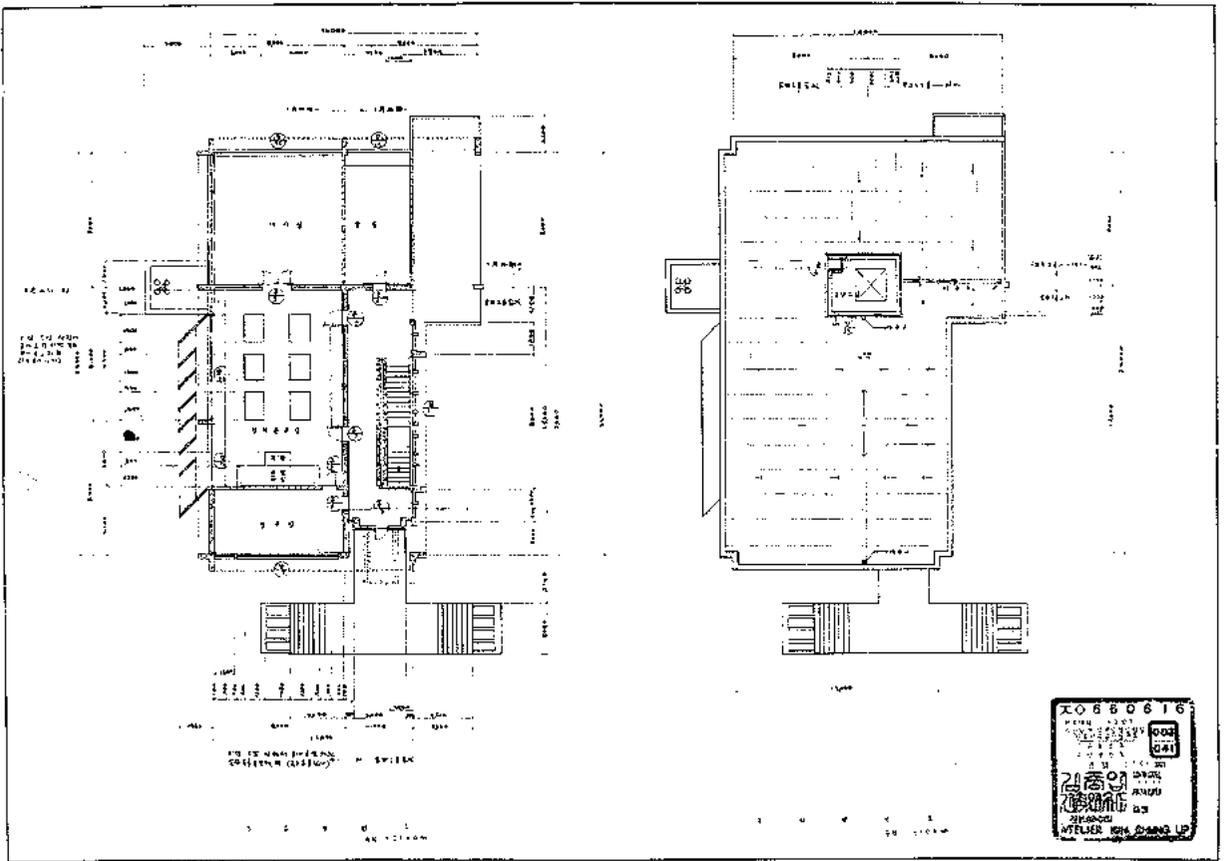
PLAN

FI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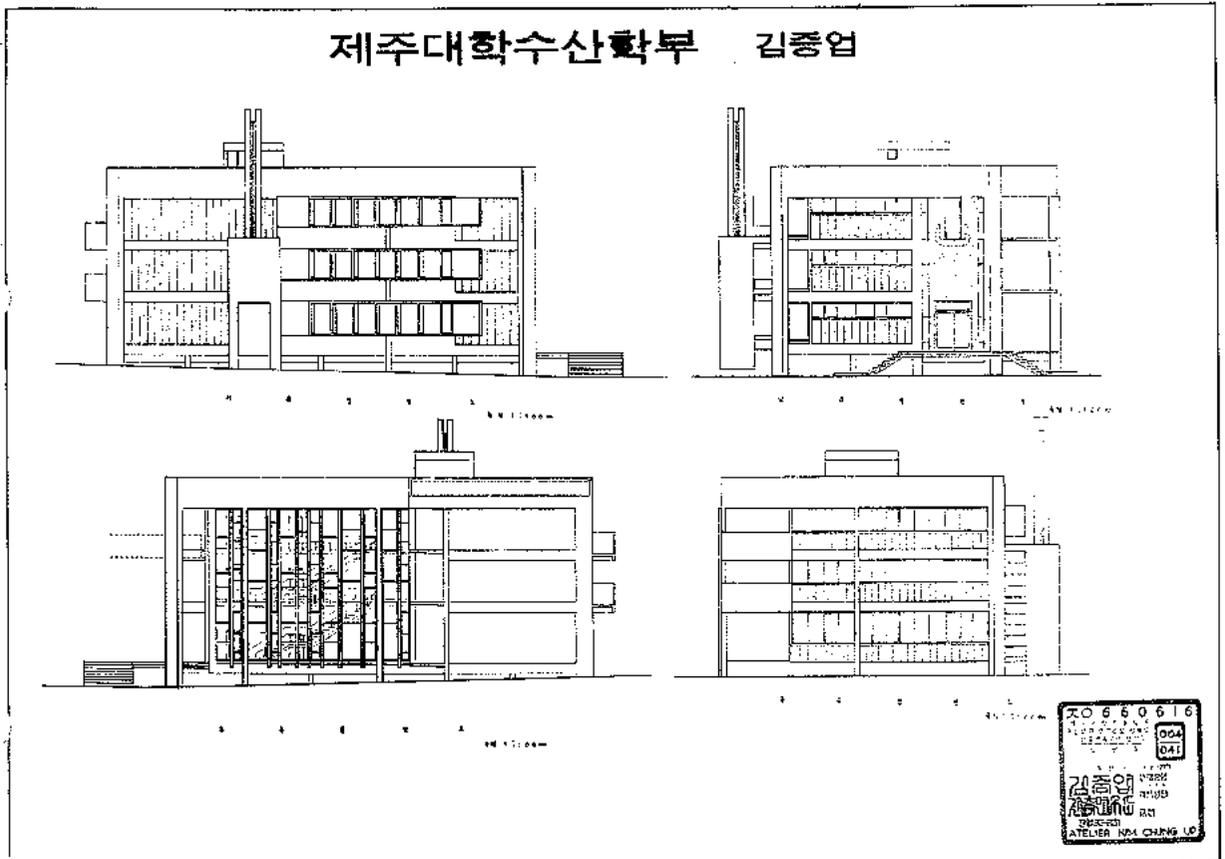
SEC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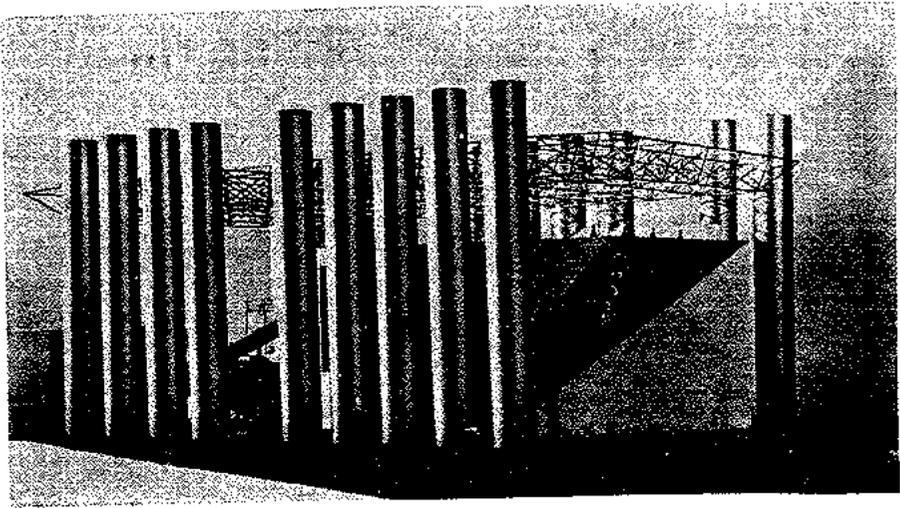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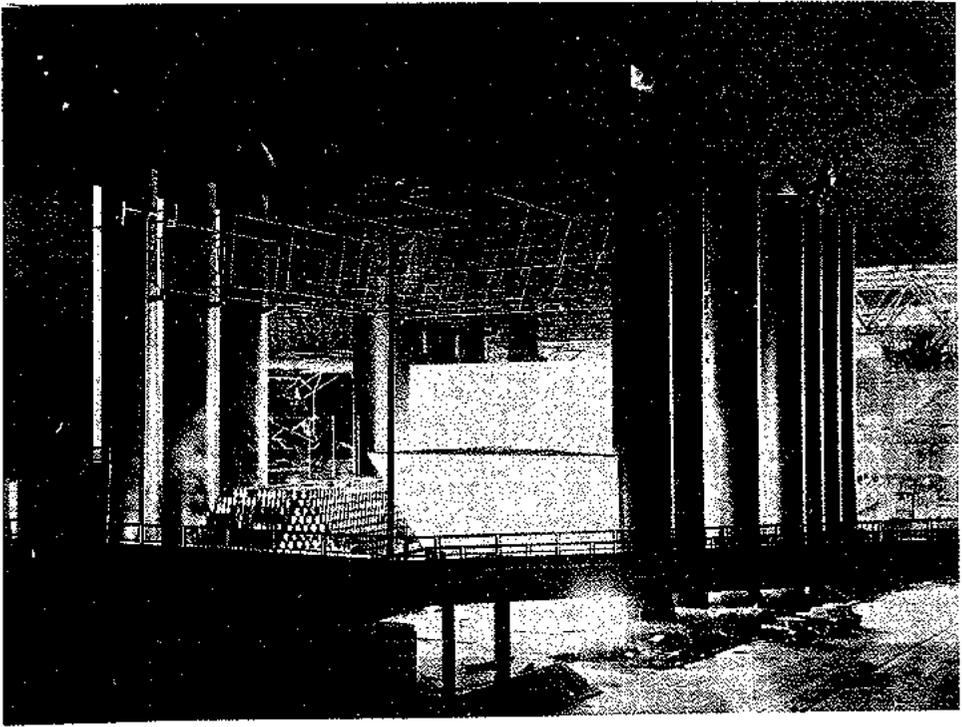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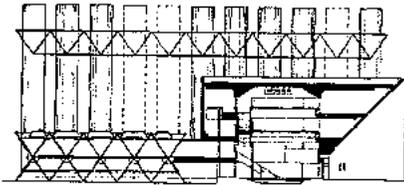


제주대학수산학부 김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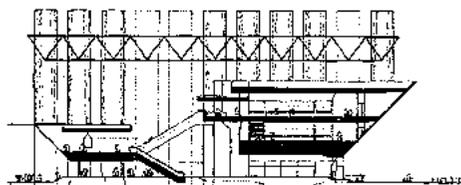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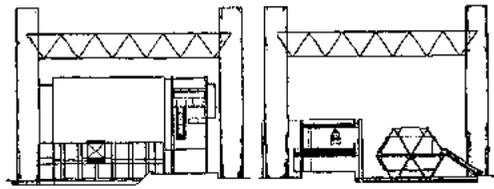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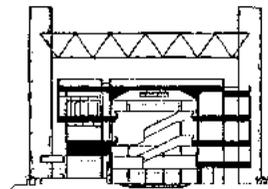
4TH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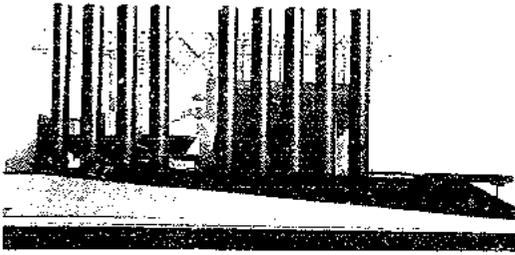


GENERAL SECTION A-A



GENERAL SECTION B-B





코리아 캐빌리언 스토리는 한국현대건축의 周圍環境이 當面한 問題를 가장 잘 說明해줄 수 있을 한 史實로 記錄되어야 할 것이었다.

우리는 1968年 가을에 文化公報部로부터 EXPO '70 韓國館에 關한 basic study의 의뢰를 처음으로 받고 69年 봄의 着工까지는 設計기일이 짧다고 불평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68년 3월에 商工部가 EXPO 事業을 담당하기로 결정된 이래 6個月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만 나머지의 時間이었다. 그 가을부터 다음 봄까지 설계가 진행되었더라면 잠정했을 것이었으나 그것이 그렇게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내어놓은 案은 簡便한 것은 아니었으나 發展의 여지는 있는 것이었는데 한 마디로 비토되었다. 그리고 高位層의 指示라고 하여 慶會樓의 形態를 그대로 빌려오되 現代化된 엔지니어링으로의 해결만 해달라는 要求를 받았다. 그 다음의 몇달 동안이 경회루에 對한 反論을 위한 資料蒐集에 바쳐졌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方法으로 慶會樓案이 부당한 것을 指摘하고 說得하였다. 그것은 많은 時間과 精力을 필요로 하는 作業이었다. 그리고 또한 경회루에 대하여 現代建築에 의한 代案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提示되었다. 그 동안에 스펀서는 다시 文公報部로부터 大韓貿易振興公社로 바뀌어졌다. 무역진흥공사와 EXPO 추진위원회가 이 代案을 채택하기로 決定한 것은 우리가 설계를 完了하기 두달전이었다.

이 代案이 지금 건축중인 韓國館의 初期段階의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政府가 韓國館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要求조건들 이외에도 우리들 自身の 切실한 要求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作家的인 慾望이란 물결이거니와 그보다도 우리는 재치있는 達辯으로 理論화된 日本의 現代建築에 우리의 可能性을 作品으로 보여주고 싶은 熱望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正當한 의미의 最善을 다하여 버티었다. 二流의 感覺과 半체된 論理만으로 思春期的인 EXPO 建築을 云謂하는 encounter들과의 舌戰에 대부분의 것을 바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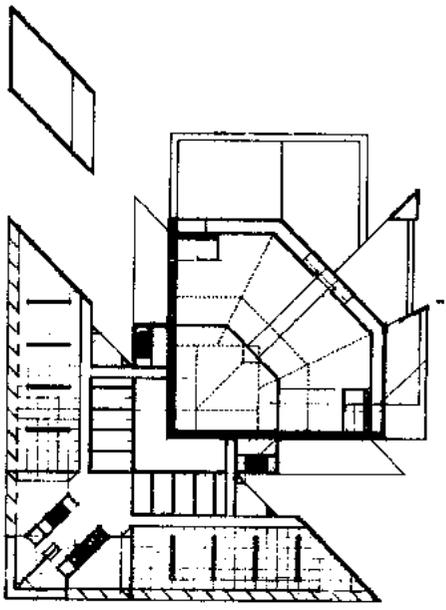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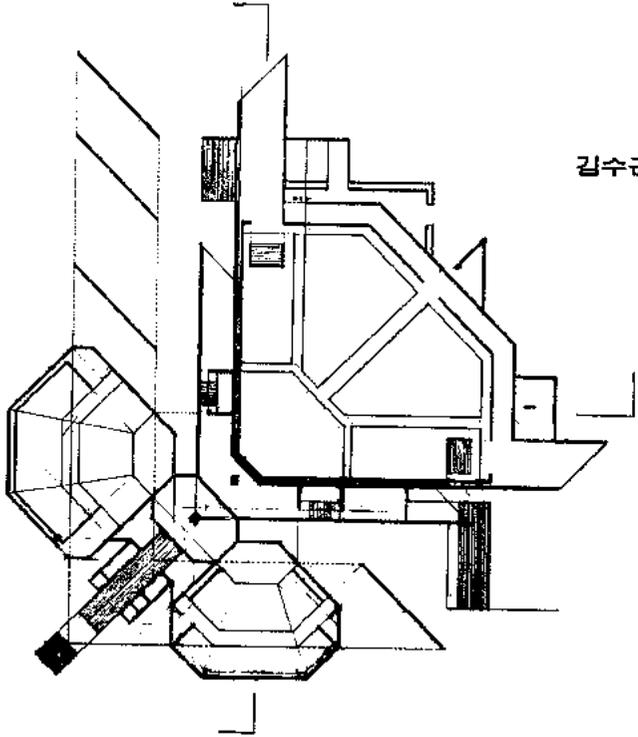
나머지의 地心 情緒로 우리는 強行軍을 한 셈이다. 韓國的 云云으로 表現되는 國產立면圖에서 EXPO 建築의 이미지를 發想시키려는 努力 代身에 우리는 런던에서 EXPO '67까지의 EXPO本來의 經서와 오사카 EXPO의 야단스러운 狀況, 그리고 EXPO 群衆의 歡喜와 熱狂을 어떻게 하나의 建築system 속에 最善의 動線組織속으로 이루어낼 것인가를 생각 하여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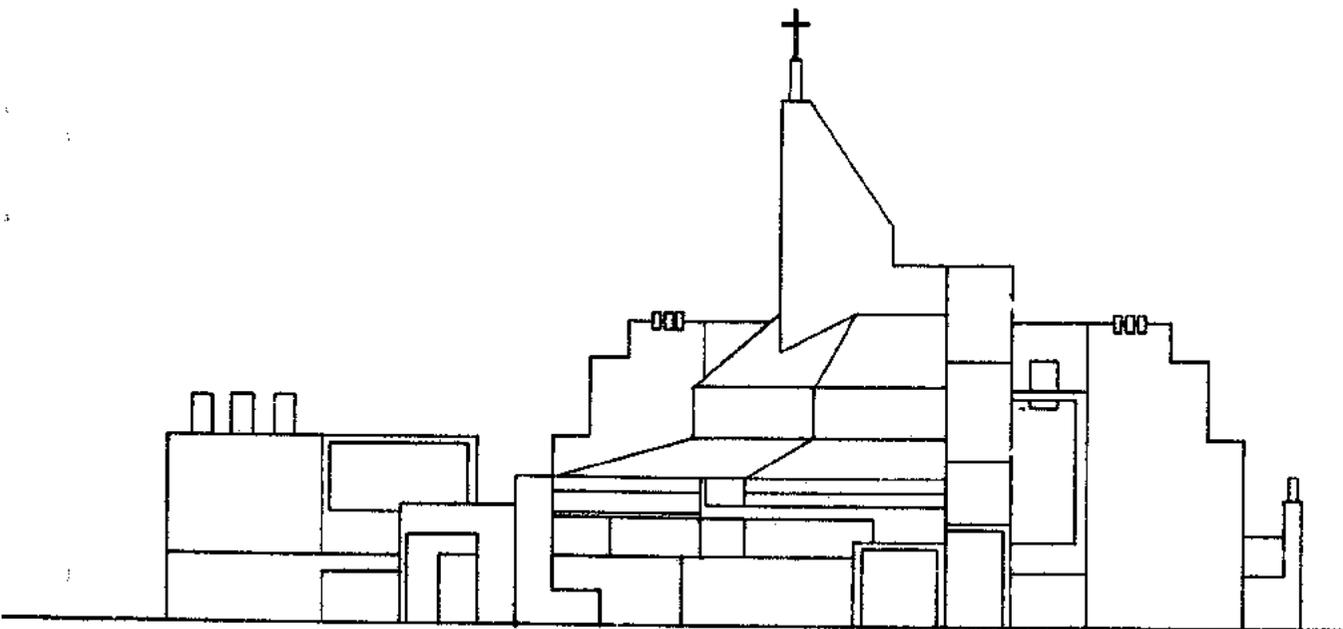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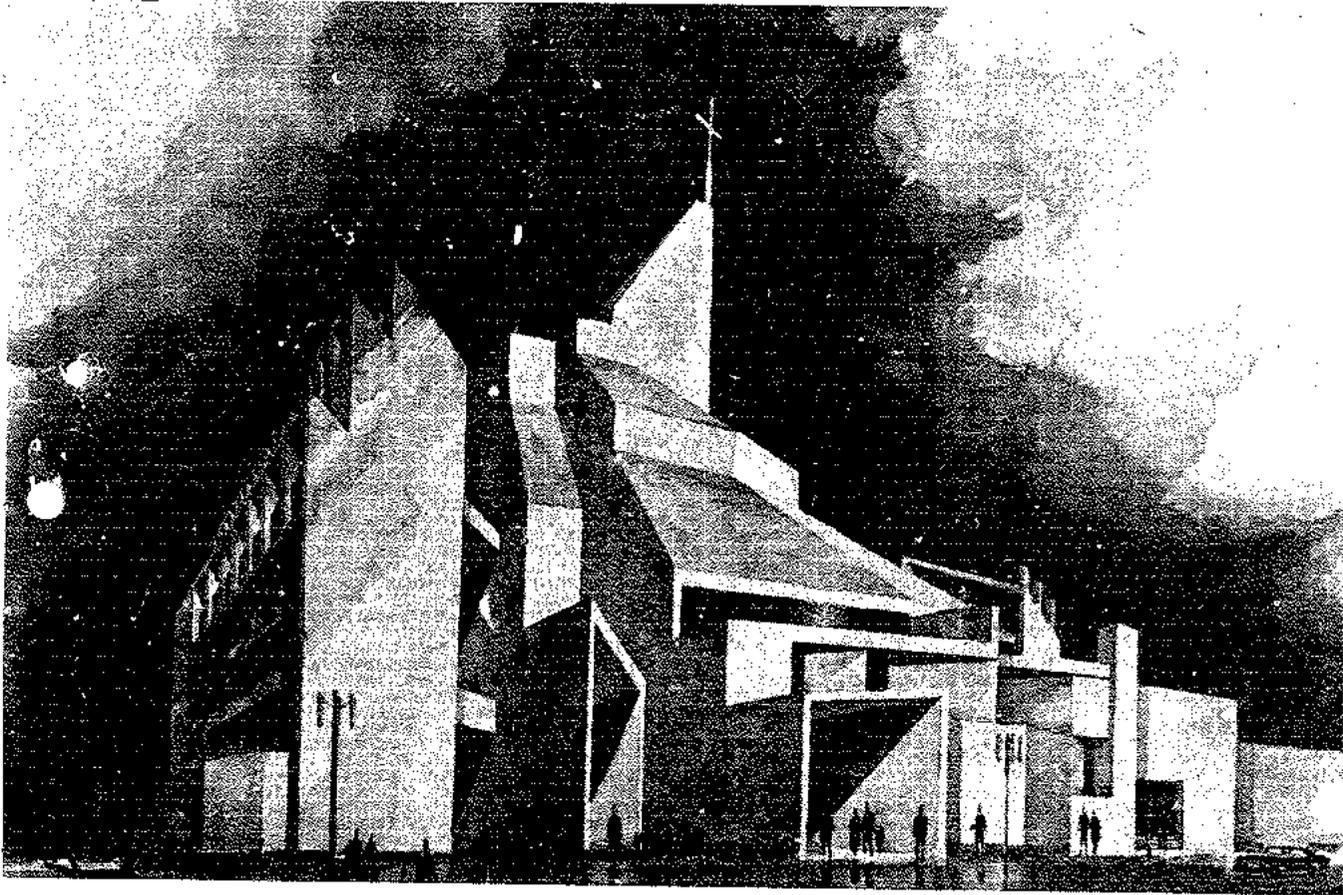
메인 게이트를 지나 symbol zone을 경과한 軍衆의 一部는 裝置步道를 타고 火曜의 廣場을 지나 한국관에 接近한다. 그 나머지는 symbol zone으로 부터 직접 韓國館에 進入한다. 中國館의 시원한 壁面과 캐나다館의 마스타바, 그리고 화요일광장의 complex와 symbol zone의 巨大한 트러스가 한국관의 좋은 surrounding이 되어 주었다. 우리가 우리의 可能性을 보여주는 일에 着手하기 前에 우리 앞에 놓인 것은 결국 EXPO의 意味와 動線의 輪廓(display), 그리고 四方의 pavilion들이었다. 우선 우리는 韓國館이 전체의 흐름에서 처음 나타내게 되는 메인 게이트의 軸에 直交하여 列柱를 늘어놓았다. EXPO 建築은 보석을 다듬는 作業과는 다른 베르니크로 생각 되어야 했다. 주위의 surrounding 모두가 좋은 backing이 되어준 이 列柱의 사이로 전체의 흐름에서 파생되는 韓國館의 基本動線組織을 콘크리트의 덩어리로 자유로이 짚아내고 붙여가면서 形象化하였다. 우리는 여기로 향한 모든 動線을 包括하여 우리의 意圖에 依해서 軍衆의 空間感을 體系化도 誘導하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内部空間組織과 그 構造原理를 생각해 내고, 버리고, 고쳐나갔다. 列柱로 만들어진 한국관의 小宇宙속에 우리는 결국 세계의 凝結된 空間을 만들어 내고 이것들을 列柱에 照射하여 연결하고 鏤교도 이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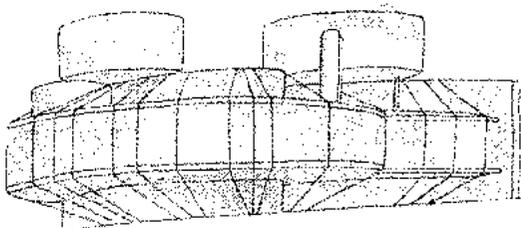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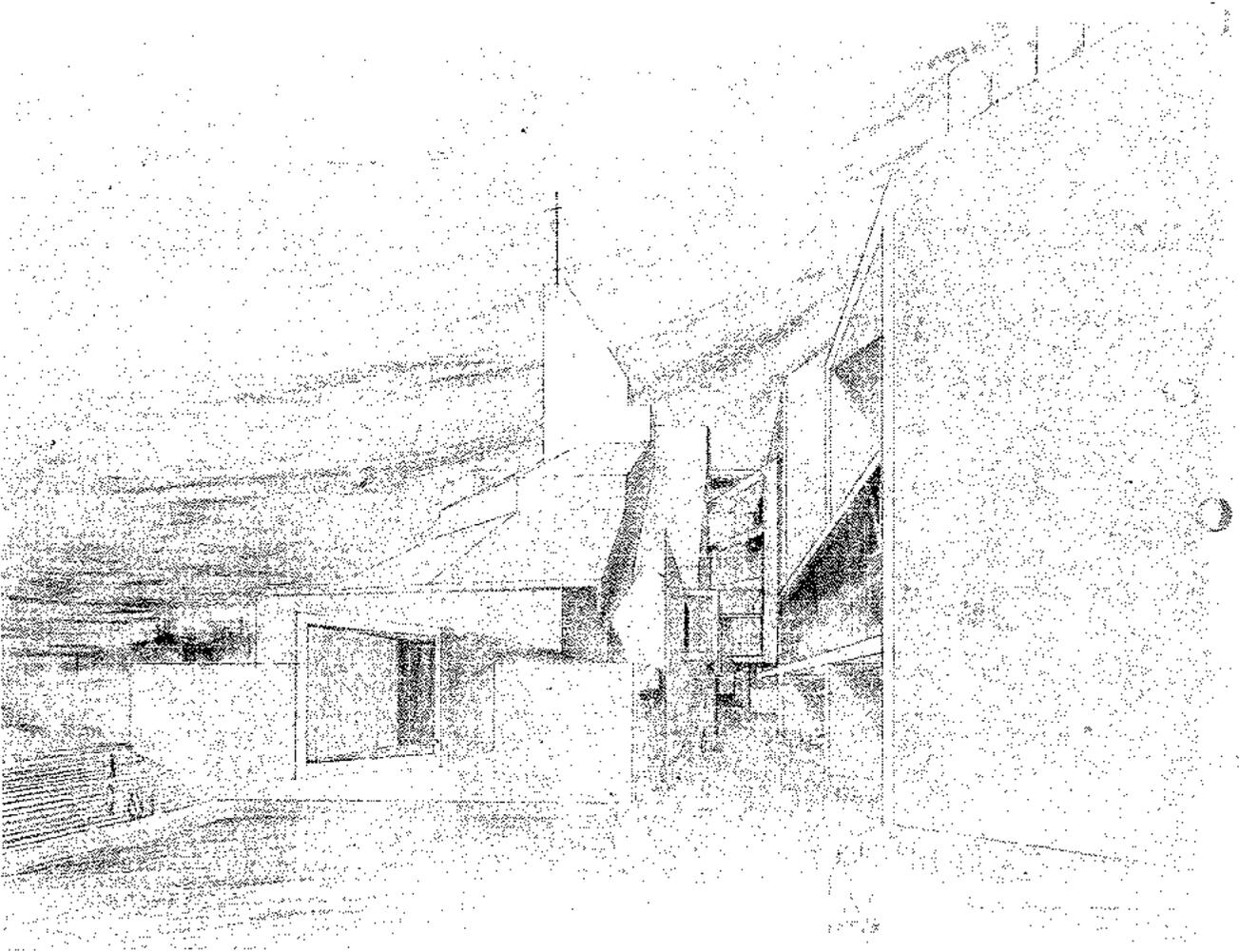
우리가 이와같은 作業에 沒頭하고 있는 동안에 official한 時間의 制限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으로부터 손을 떼게 하였다. 더 손대고 싶은 순진한 그리고 non-official한 욕심이 가득한 채로 우리의 奮戰記는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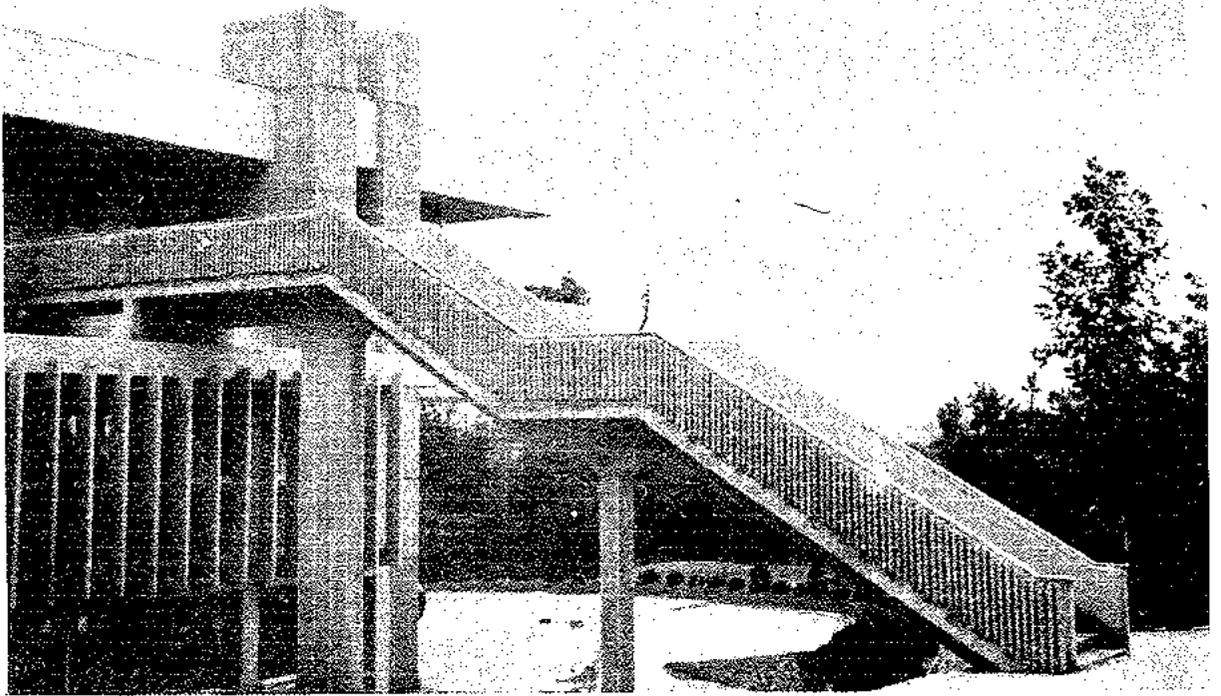
그리고는 韓國館을 둘러싼 列柱는 韓國의 工業立國을 暗示하는 設計者의 意圖가 表現된 것이라는 官邊所息通을 열심히 예보하고 있는 記者들의 모습을 epilogue로 fade out 된다.

김수근 여의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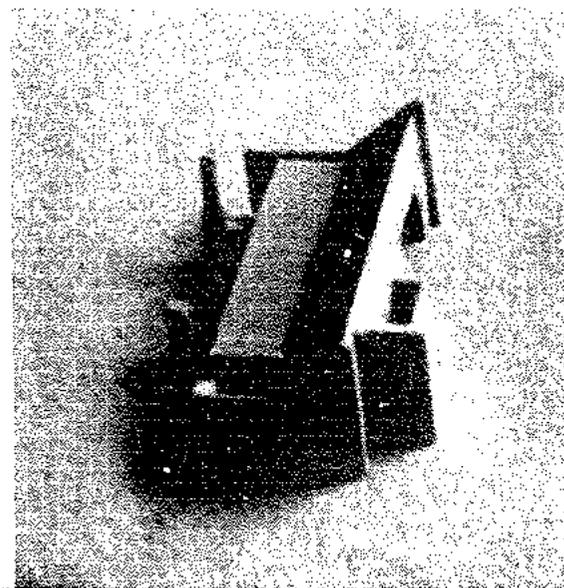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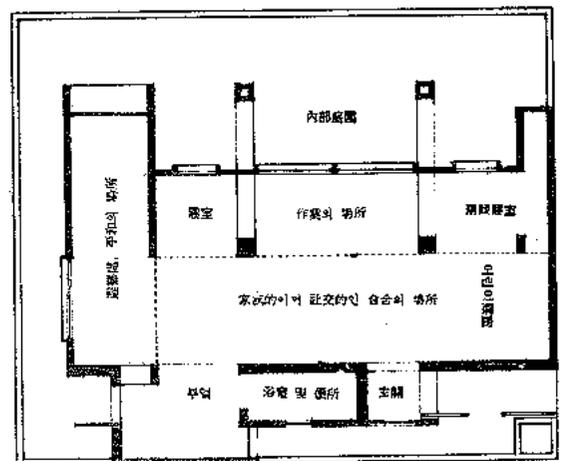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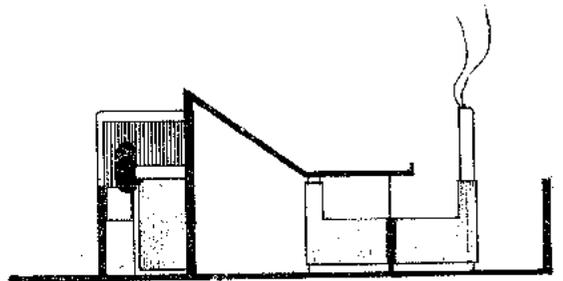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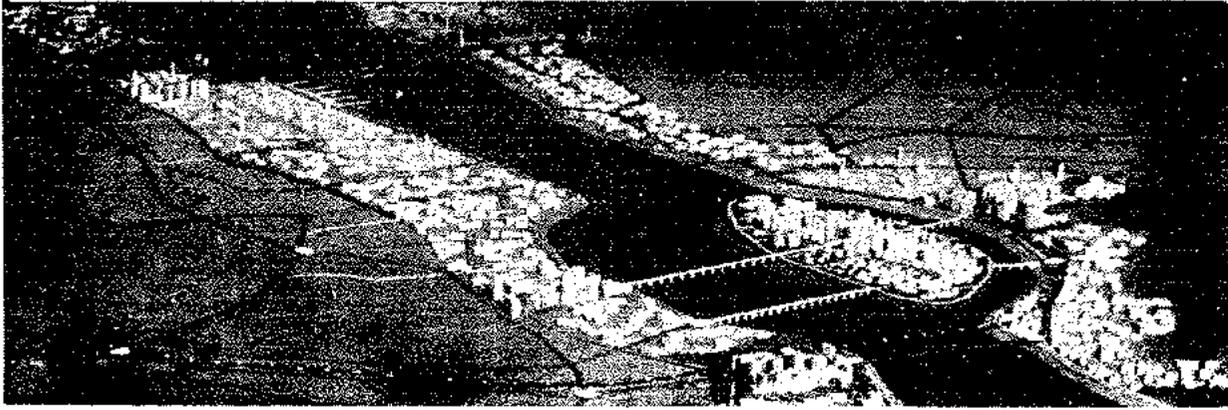


서울칸추리클럽 나상진



건축가의 집 김하진





여의도계획 김수근

우리의 사회가 전체의 도시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은 單位 도시의 數的 增加보다 既存 도시의 連繫性의 深化 내지 擴大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의도 計劃은 이러한 全國的인 도시화에 따른 도시空間 構造의 一般的인 命題와 擴大一路에 있는 서울 도시가 全國土와 首都圈에서 갖는 時·空間 構造에서의 核心的인 位階를 根據로 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는 破綻한 서울의 도시의 本質에서 부터 새로운 發展의 可能性을 끌어내기 爲해서 서울이 處하고 있는 文明史的인 意義와 社會經濟的인 契機 및 都市 時·空間 構造의 基本組織을 研究하여 새로운 도시空間 經濟組織의 變化를 追求하였으며 나아가서 變化된 서울의 經濟的인 組織과 制度的인 過程을 基盤으로 하여 20年 後의 成長과 發展의 輪廓을 想定하였다.

未來의 觀點에서는 물론 지금 오늘에도 서울의 時·空間 構造는 過度의 成長의 不合理과 限界를 露出하고 있다.

여의도 計劃에서 우리는 서울의 도시 擴大에 따른 都心地域의 幅奏와 荒廢된 周邊 地域의 幻滅을 繼續的인 人口와 도시機能의 rush에 當面하여 어떻게 새로운 urbanity의 創造로 轉換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問題를 始終 함께 생각했다.

그러하여 여의도 計劃에 앞서 全首都圈에 對한 基本的인 도시作用에 關한 事項인 도시支援施設의 配置와 基本產業의 配置 및 全國的인 影響을 주는 教育機關 또는 行政機構의 配置問題를 우선 作定하고 基本的인 作用의 効果에 對應해서 加한 必要가 생기는 對應的인 作用인 도시機能集團 計劃과 transportation system 및 特殊住居團地 等은 아울러 提示하고 此러한 全國上의 輪廓下에서 여의도의 도시의 當爲를 檢討하였다.

우리가 提案하는 서울 master plan이 갖는 도시 時·空間 構造의 基本秩序는 모든 도시 機能이 基礎都市集團과 機能都市集團의 두가지 類型으로 結合하는 現代 도시가 進行中인 本質的인 變化를 基盤으로 하여 時間 構造에서는 最少努力의 原理을, 空間 構造에 있어서는 凝集經濟理論을 根據로 하여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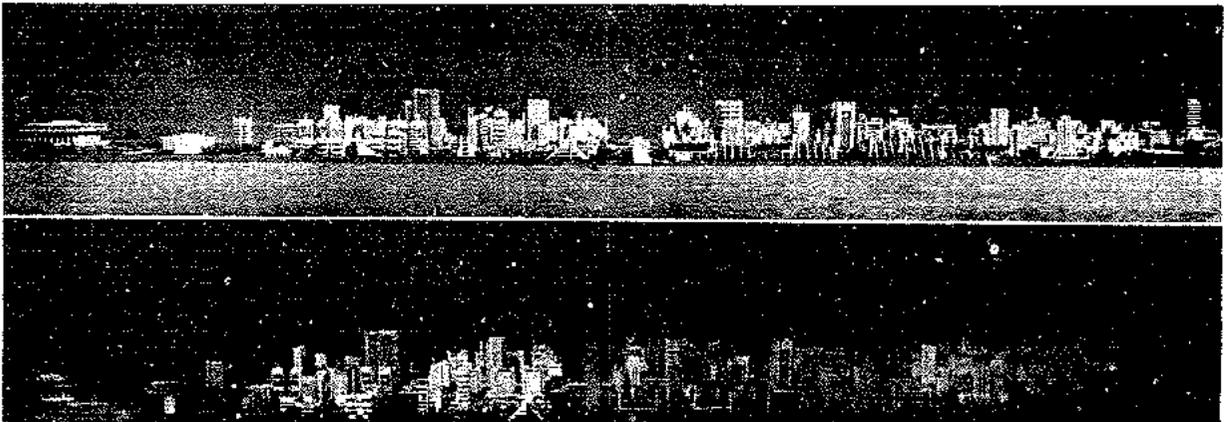
우리가 提案하는 서울 master plan에서 機能都市集團은 도시機能의 連鎖的인 組織體로서의 center city를 基本單位로 하여 그 內部的인 機能의 位階에 따라 階層組織을 이루며 각 center city는 機能의 相互作用의 density field로 둘러 싸이게 되어 基礎都市集團의 모두에 對應하여 一定한 位置에서의 活動水準에 對해서 뿐만 아니라 時·空間의 距離에 대해서도 同一하고 強力한 影響力을 發揮하도록 된 線形概念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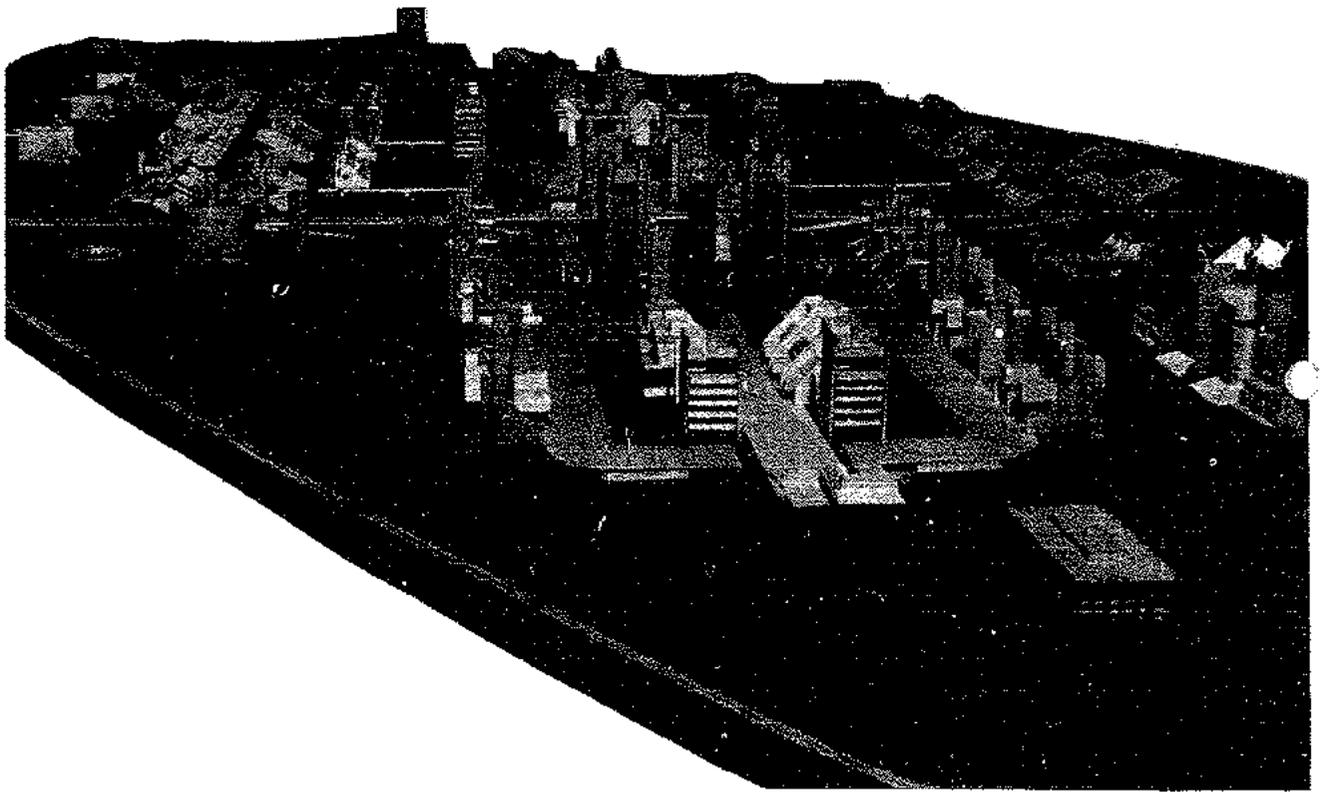
이것은 결국 基本單位를 center city로 하는 線形機能都市集團과 이에 依하여 自然과 center city 사이에 생기는 基礎都市集團으로 類型化될 것이며 도시의 基本的인 作用에 屬하는 支援施設과 基本產業 및 全國的인 影響을 주는 行政機構 등이 이에 接續할 것이다.

여의도는 이 線形機能都市集團의 基本單位인 center city로서 서는 것이다.

여의도에 제시된 도시 時·空間 構造의 基本秩序는 서울 master plan에서 提案된 時·空間 秩序의 原理에서 出發하여 그 基本單位가 어떻게 構成되며 發展하는가를 보여 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여의도 計劃은 서울 master plan의 據點本開發의 基本單位를 보이는 것이지만 이 基本秩序가 다른 地域에 適用된 때는 經濟的, 社會的 發展과 文化的인 價値 그리고 地理的인 條件 등의 變化에 따라 獨特한 組織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現存 서울 都市構造 안에 普及시키려고 하며 또 새로이 여의도에 試圖하려고 하는 새로운 都市時·空間構造의 提案은 既存의 서울 都市構造로서는 이미 비린 수 없는 事態에 이르러다는 것이 충분히 豫測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울·都市의 全域에 걸쳐 都市의 分析이 可能하다고 생각되는 事例을 가려내고 그것들을 研究하였다.

이러한 研究을 基礎로 하여 都市와 都市의 보다 넓은 image를 探究하고 그것을 具體化하면서 外形的 構造보다는 서울·都市에 內在하는 時·空間秩序의 發見과 20年 後의 서울·都市의 合理的인 都市機能集團과 基礎都市集團을 爲한 必要의 要求를 規定하였고, 該의 交通狀況과 都市 發展段階을 考慮하여 여의도가 서울 大都市圈에서 갖는 當爲를 追求하였다.

그리하여 20年 後의 여의도의 健康한 都心과 住居環境 및 公共施設을 爲한 機能의 scale을 作定하고 該의 交通環境과 環境條件의 改善으로 여의도가 서울 全都市圈에서 線形機能都市集團의 基本單位가 되는 都市的 必然性에 根據하여 必要한 空間에 對한 높은 產能性으로 보나 또한 大都市의 文化的, 社會的, 精神的, 娛樂의 生活의 重要性에 비추어 그 心臟部에 놓여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都市活動에 必要한 空間利用圖를 圖表化하였다. 그리고 이 表안에 家庭의 狀態나 生活의 趨向으로 生活을 主要活動 가가이 갖기를 願하는 人들을 爲한 住居環境地區를 마련하는 한편 必要한 空間에

比하여 生産性이 낮은 種類의 機能은 여의도 바깥에 配置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表에서 除外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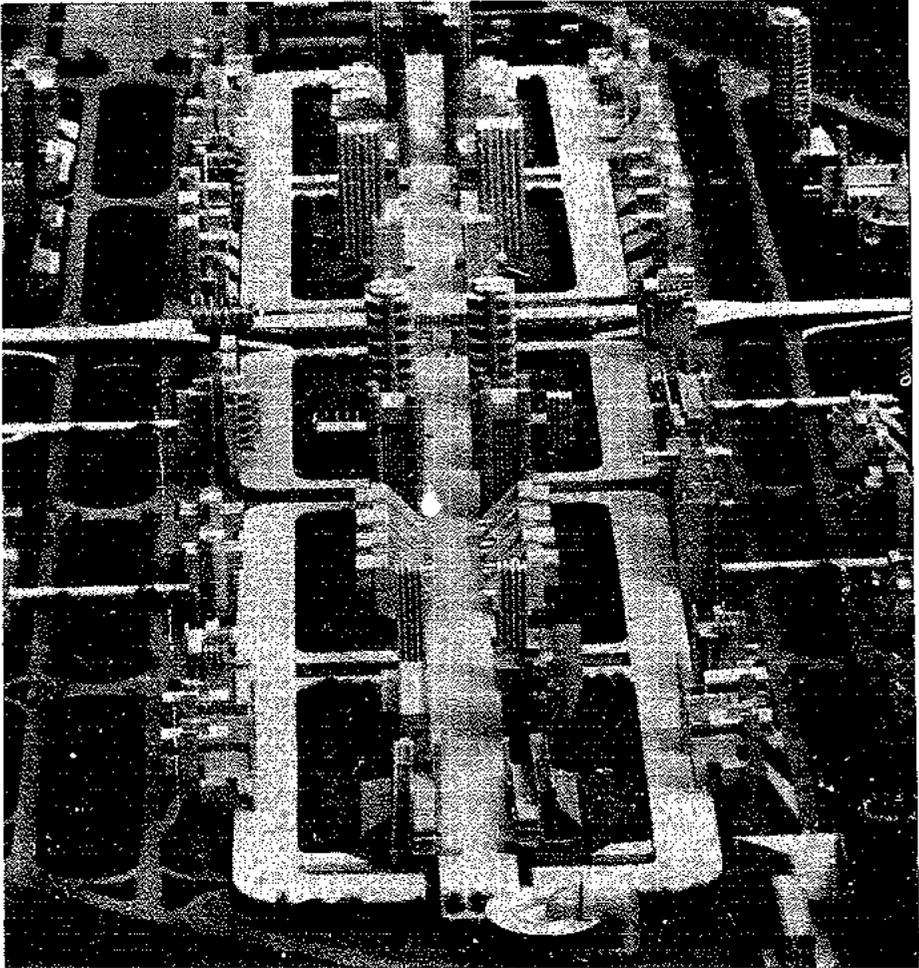
이와 같은 空間 分析結果로 여의도의 규모·구상의 모든 必要의 要求에 비추어 그것이 高度로 發展하는 生産性이 全的으로 整備되는 경우 基本單位都市(center city)로서의 妥當한 規模인 夜間人口 3萬, 晝間人口 18萬으로 算定하였다.

여의도 計劃은 여의도 自體의 都市化에 局限된 것이 아니라 混沌된 서울의 時·空間 構造에 轉換의 契機를 주어 創造의 進화를 이룩하도록 하는 永續的 成長에서 한 出發을 暗示하는 것이며 여러 期間에 걸친 段階的 實現과 여러 가지 條件이 妥當할 수 있는 恒久的인 都市構造를 創造하려는 것이다.

여의도 計劃은 서울·都市의 現 都市構造의 改革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여의도가 서울의 舊都心과 連繫되어 서울·都市에 새로운 變換의 契機를 어떻게 實現시키는가 하는 全首都圈의 成長計劃과 連繫되어 있다.

여의도 計劃에 要約된 方法은 서울 既存市街를 剝離함은 勿論 서울(仁川)에 이르는 大都市圈에도 肯定的인 方向의 影響을 줄 것이다.

都市를 人間을 爲해 爲함으며 機械的인 人口가 加해 왔던 壓迫으로부터 都市를 解放하는 이러한 方法論的 現實的인 合理에서부터 여의도 計劃은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過程을 통해 서울의 破綻을 새로운 urbanity의 創造로 轉換시키려는 努力으로 始終하였다.



new land for pedestrian 새로운地面

서울마스터플란의 제안 김태수

1965년에 서울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전체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안은 근본적으로 위성도시안이었는데 여러가지 한국의 사정으로부터 서울시에는 그안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 약점중에는

- 1) 교통과 통신망이 심히 복잡하여 그경비가 높아지고
- 2) 산이 사방으로 서울 중심지를 둘러 싸고 있어 중심지가 주위의 사방과 함께 사할수 있는 토지의 여유가 없다.
이 사실은 이미 도심지의 대지 확보를 위하여 여러 역사적 고적의 파괴에까지 이르고 있고 앞으로 이경향은 더욱 심각하여 질 것이다.
- 3) 교외의 필요이상의 토지 사용이다.
내부분의 한국 평지는 농토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농토를 보존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기본적인 일이다. 위성도시안은 교외가 끝없이 뻗어나가는 주택지역을 연상하게 된다.
한국으로써는 좁은 면적을 사용하는 밀집된 도시 발달이 필수 조건이다.

이조 왕국이 600년전에 새로 건립되었을때 두개의 지역이 세도읍으로써 문명에 올랐다. 하나는 현재 서울땅인 고려때 남경의 자리였고 만곳은 묘아산인인 안산과 백련산 남쪽의 땅이었다. 이때조는 도읍을 새로운 땅에 시작한다는 의미로써 후자의 땅을 좋아하였으나 여러신화들이 고려의 남경땅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여 성을 쌓아 적을 방어하기 쉬우나 안산 남쪽의 땅은 남쪽이 또 평지이고 또 강을 끼고 있어 적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써 이때조를 설득하여 오늘의 서울에 도읍을 자리잡게 되었다.

그때의 사정으로 도시의 크기나 국토방위의 문제로볼 때 도읍의 자리를 잘 잡았다고 볼수 있으나 오늘의 서울도시 발전상을 볼때 안산 남쪽의 땅이 현대도시 건설에 낯다고 보는 것이다.

이땅의 도시발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저거에는 자연의 축이 여의도와 남지도 그리고 안산과 백련산 사이를 거쳐 문수봉의 높은산에서 끝나는것을 발견하였다. 나의 새도시의 제안은 이축에 새로운 도시가 자라고 정부 중심부가 한강연변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서울의 압력을 덜어주어 서울을 역사적 기풍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현대 도시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문화도시가 서로 그의 특징을 갖고 병존하게 한다.

진실로 의미있는 계획은 실제로 도시가 자라나는 경향을 알아내고 이자연적 자라남에 질서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서울시의 가장 힘있게 뻗어 나가는 방향은 인천쪽이다. 나의 제안의 기본은 인천과 여의도 남지도 사이의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선상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또 한강 하류에 뻗어들어 한강의 물수위를 조절하고 황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판다. 운하의 양방쪽은 좋은 농공업지대로서 발전할수 있고 기선들이 운하를 통하여 도심지까지 들어올수 있게한다.

일방 통행 고속도로가 1.2km 의 간격을 두고 도심지를 가운데 두며 인천과 한강유역 정부청사 지역을 연결하고 이 일방통행 고속도로로 부터 거미줄망 모양으로 일방통행의 고속도로가 도시의 주택가로 뻗어 나간다.
이 거미줄망의 모양은 차란의 한군데 집중을 막는다.
거대한 주차장이 일방통행 고속도로로부터 도심지내에 들어가는 입구마다 있어 최소한의 차량이 도심지에 들어갈게 한다. 도심지내의 도로는 모두 일방통행과 차의 교차점이 없어 도시내에는 신호등이 전혀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이유로써도 지하철망이 절대로 단순히 되어 있어야 한다. 일단계의 지하철은 도심지를 통과하는 한 선으로 도시가 인천으로 자라매 따라 자라난다. 이 한선만이 완성되어도 도시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필요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이단계의 지하철은 주택 지구에 설치한다.
자 정거장은 일단계의 지하철과 이단계의 지하철이 연결되는 지점에 있고 이 정거장들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한군데의 정거장에 심히 통근자들이 집중하지 않는 것이며 도시 전체의 구조를보아 하루 어느때를 막론하고 양방향으로 승객의 수가 거의 같다. 모든 도시들의 특징인 통근시간에 한방향으로만 승객이 몰리는 낭비를 피할수 있다.

한국의 경제상태를 참작할때 서울시가 외국의 여러 전통있는 도시들과 비교하여 건물 자체로서 그 특징을 나타낸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다. 서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건물,도로와산,강과의연관성서오는 미로서그 특징을나타내야 할 것이다. 모든 오락시설과 체육 시설을 갖춘 오덴피콘을 난지도에 발전시켜 도심지 바로 옆에 배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이용할수 있게 한다. 선상도심지 옆에는 다섯개의 공원이 각주택 지구내에 있어 주민들의 최대한 공원 이용을 가능케하며 또한 도심지의 고층건물과 공원의 아름다운 대조를 볼수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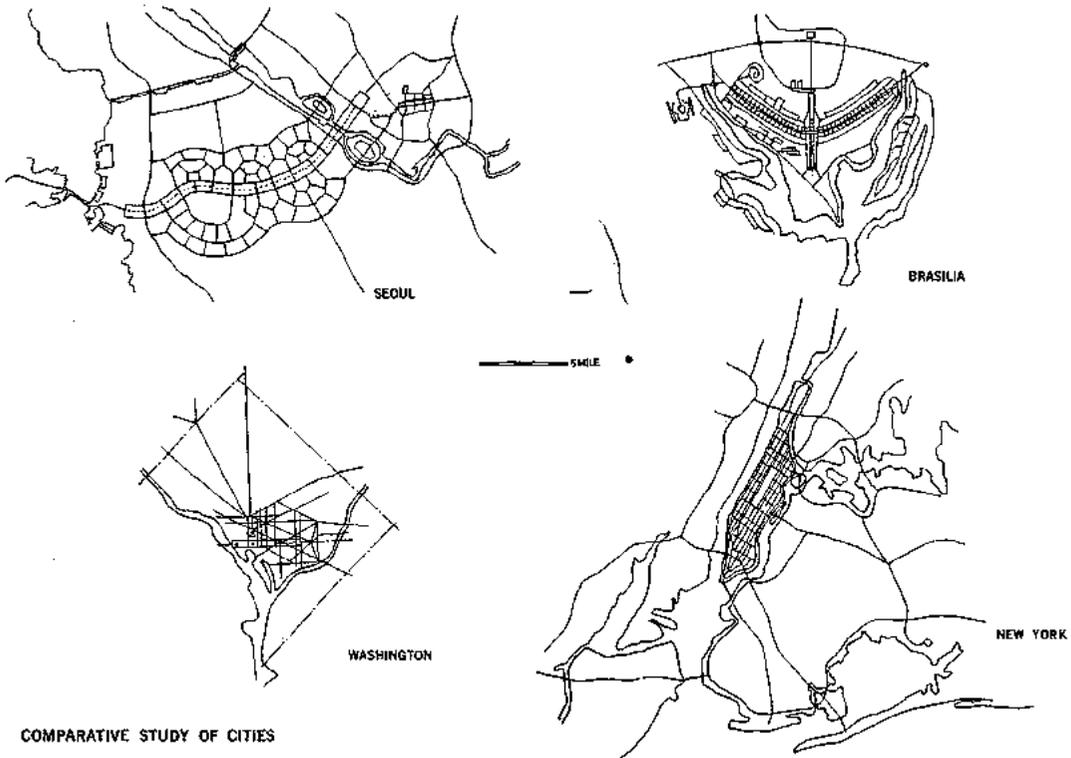
현재의 서울은 될수있는데로 고품이 깊은 고적 도시로서 보존하도록 한다. 서울시의 인구가 1935년에는 삼십오만명 1960년에는 2백만명 지금은 4백50만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1990년에는 쉽사리 8백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빨리 자라나는 대도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시의 질서있는 사람솨 가능케하고 또 각단위의 사람이 기존도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을뿐 아니라 각단계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도시미를 갖추게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점은 대나무와 같이 여러 단위가 모여서 이루어진 선상인 도심지를 만드는 것이다.

각단위는 필요에 따라 하나씩 자라며 단위가 만나는 매디에서 거미망과 같은 주택지역이 자라나 다섯개의 반원형의 주택구를 형성하고 있다. 각단위는 대략 그크기가 2km의 길이와 1.2km의 폭으로 되어있고 매디마다 가장 밀집된 고층건물이서 있어 각도시 단위의 양끝마다 높은 벽을 이루어 각단위 내부에 도시 공간의 느낌을 가져온다.

도심지내의 일방통행 고속도로로부터는 매디마다 놓여있는 고층건물들이 주는 리듬과 그에 대조되는 공원의 재미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마침내는 자연의 지극한 축과 정부청 건물들과의 연관에서 오는 아 다운미를 보게 된다

다섯개의 주택지역, 그속에 작기 가지고 있는 공원, 각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도심지 단위, 각 단위의 매디에 모여있는 고층건물이 주는 각단위의 특징들은 오늘날 도시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도시의 명확성(항상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쉽사리 인식할수 있는것)과 시민과 도시의 친근감(자기와 도시의 어떤 부분을 밀접히 연관시킬수 있는것)을 가져다 줄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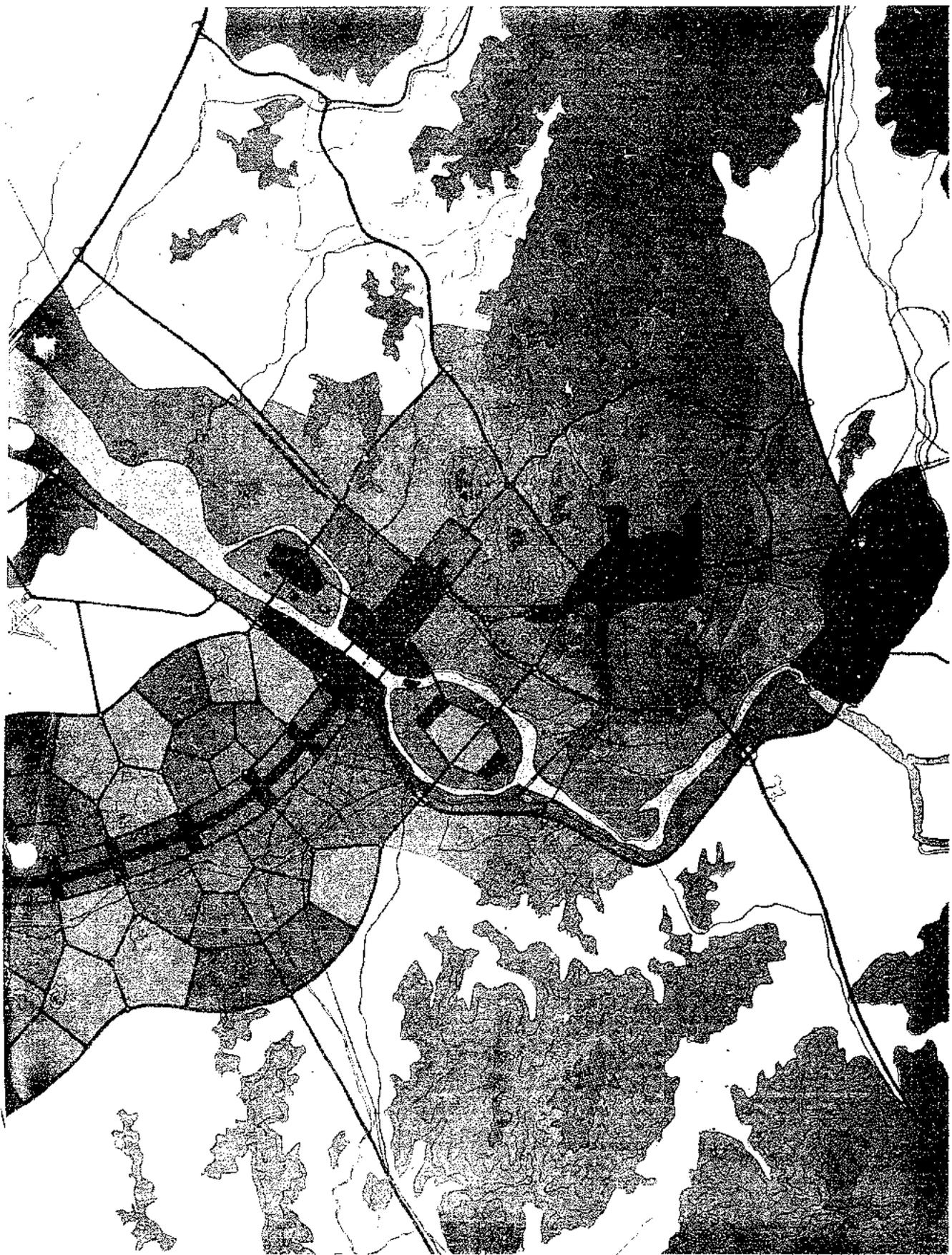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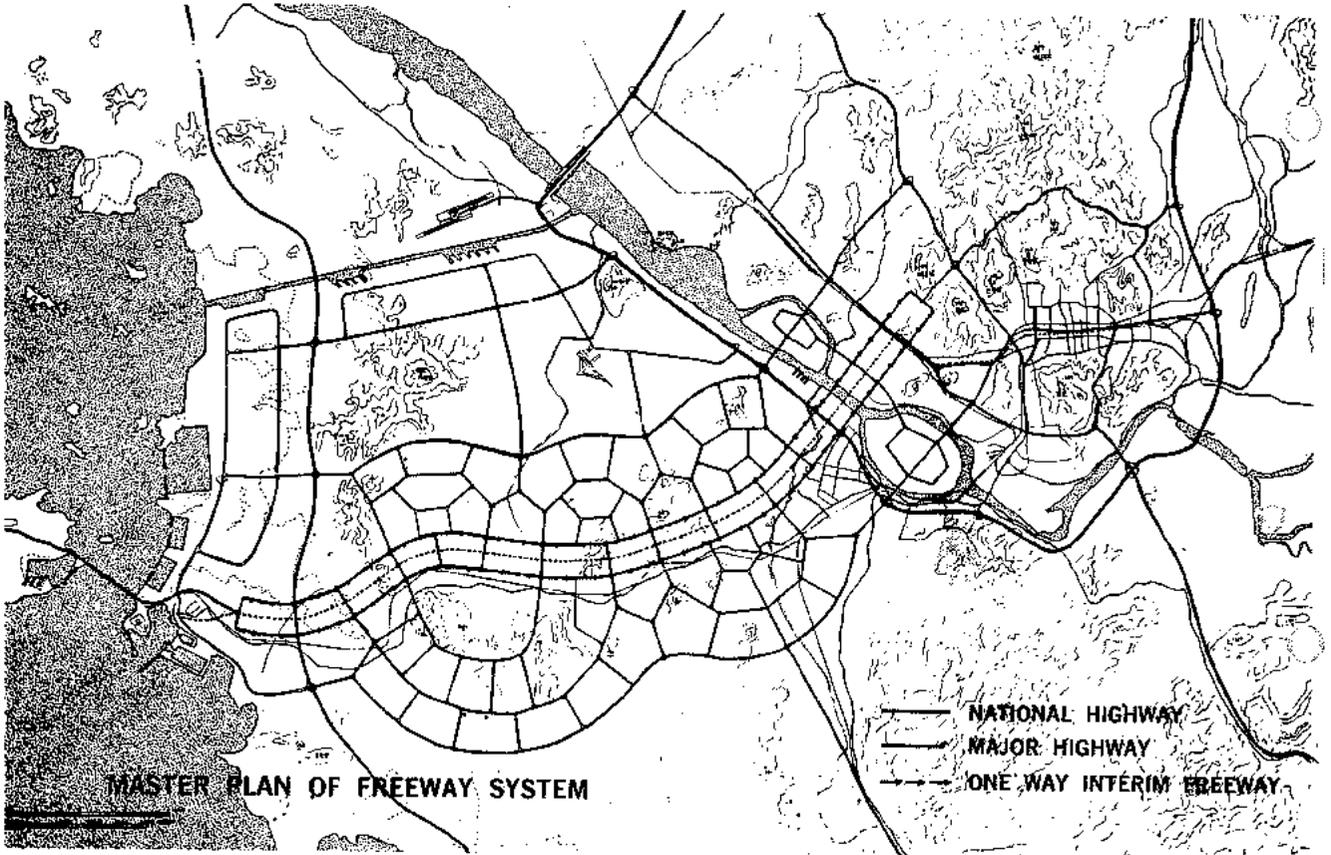
COMPARATIVE STUDY OF CITIES

MASTER PLAN
 FOR
 SEATTLE CITY
 POPULATION
 1,000,000

-  ENVIRONMENTAL CENTER
-  BUSINESS AREA
-  HIGH DENSITY RESIDENTIAL
-  MEDIUM DENSITY RESIDENTIAL
-  LIGHT INDUSTRY AND SERVICE
-  HEAVY INDUSTRY
-  PARK AND RECREATION
-  WATER
-  MAJOR FREEWAY
-  MASS TRANSIT
-  CONVENTION HALL
-  RESIDENT'S PLACE
-  HIGH COURT
-  CULTURAL CENTER
-  OLYMPIC VILLAGE
-  FOREIGN EMBAS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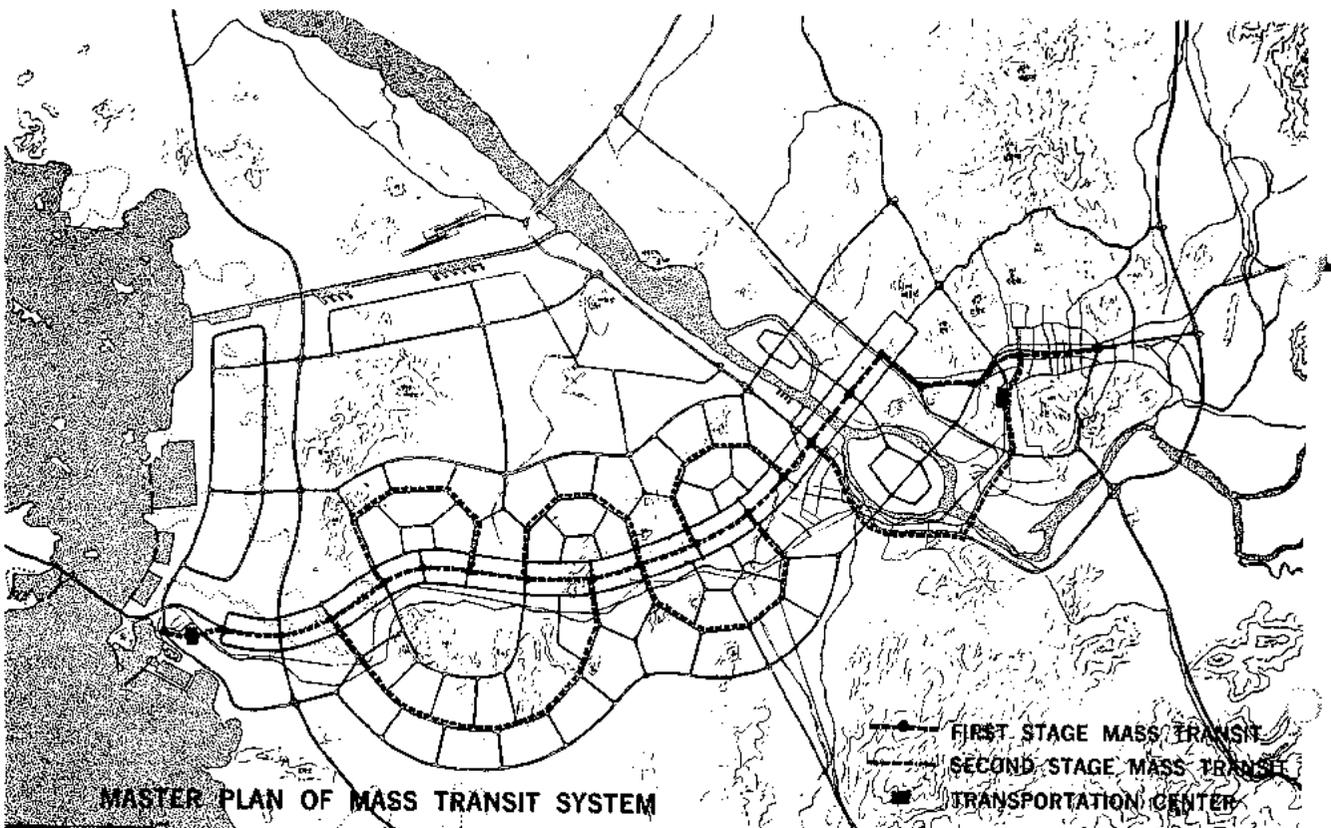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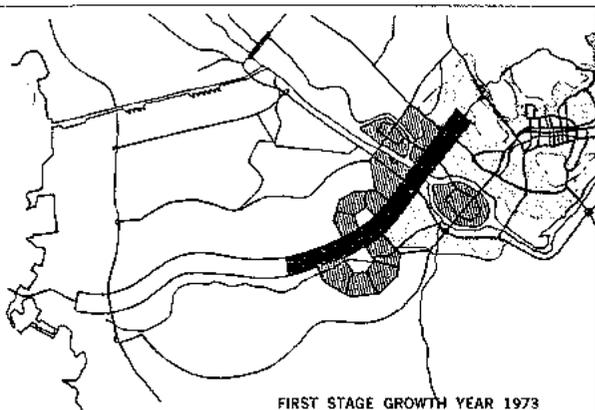
MASTER PLAN OF FREEWAY SYSTEM

- NATIONAL HIGHWAY
- == MAJOR HIGHWAY
- - - ONE WAY INTERIM FREE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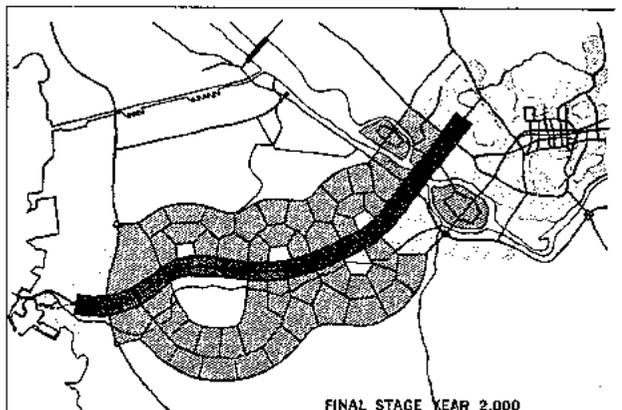


MASTER PLAN OF MASS TRANSI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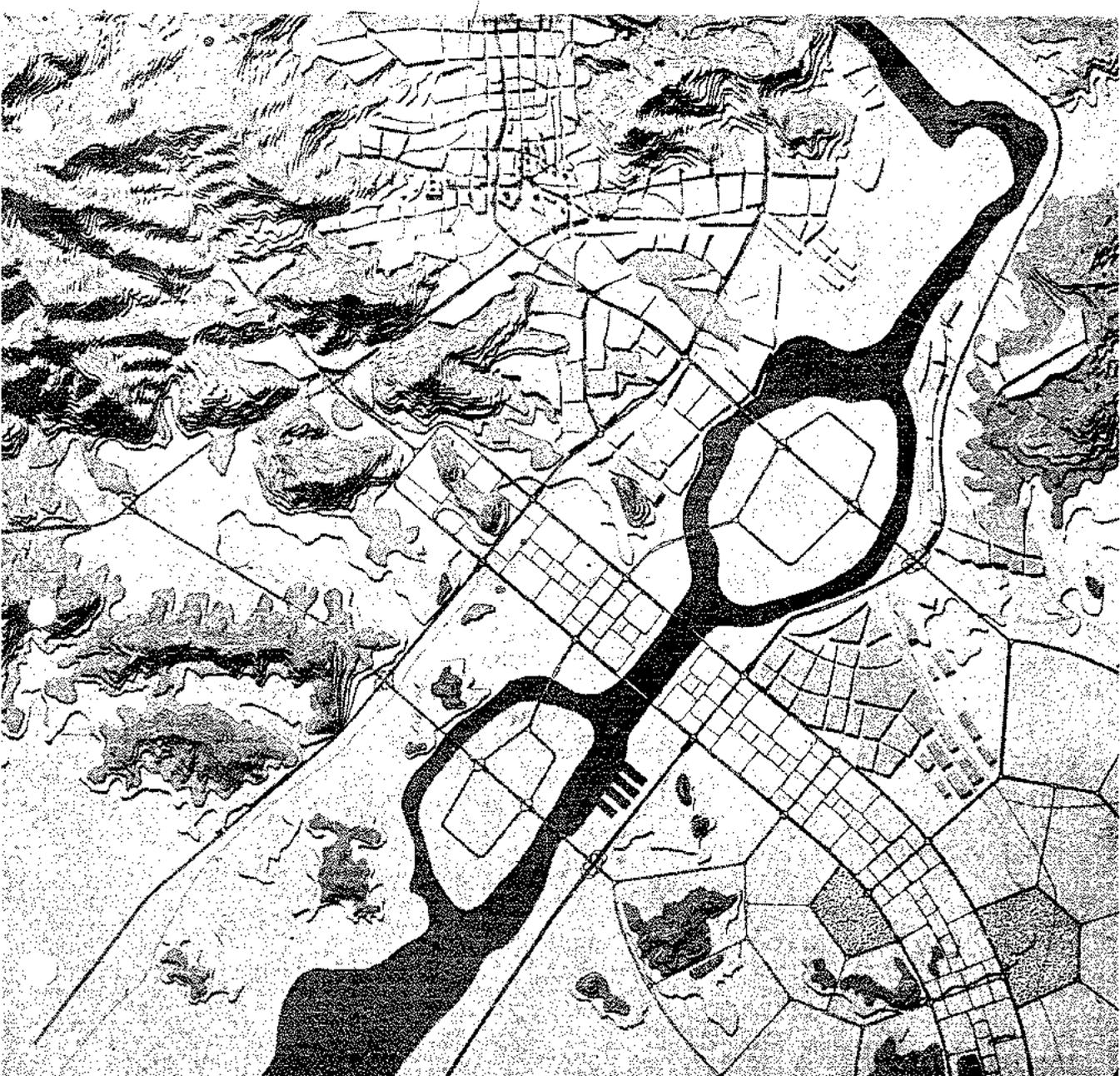
- FIRST STAGE MASS TRANSIT
- - -●- - SECOND STAGE MASS TRANSIT
- TRANSPORTA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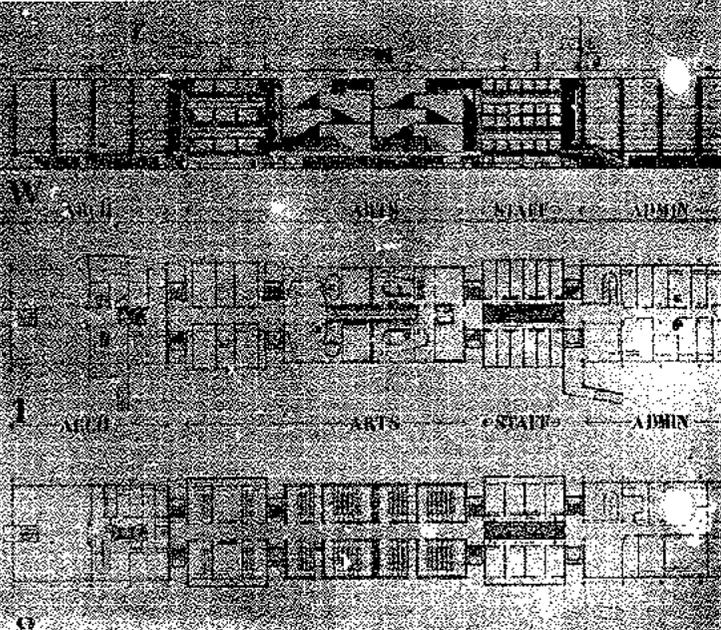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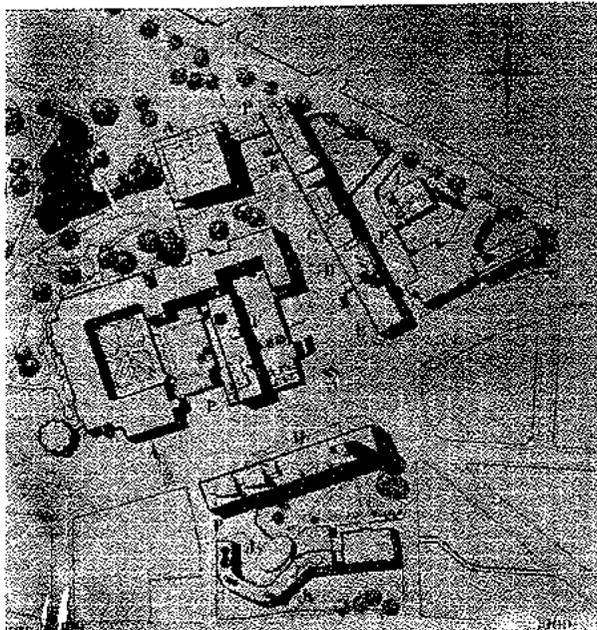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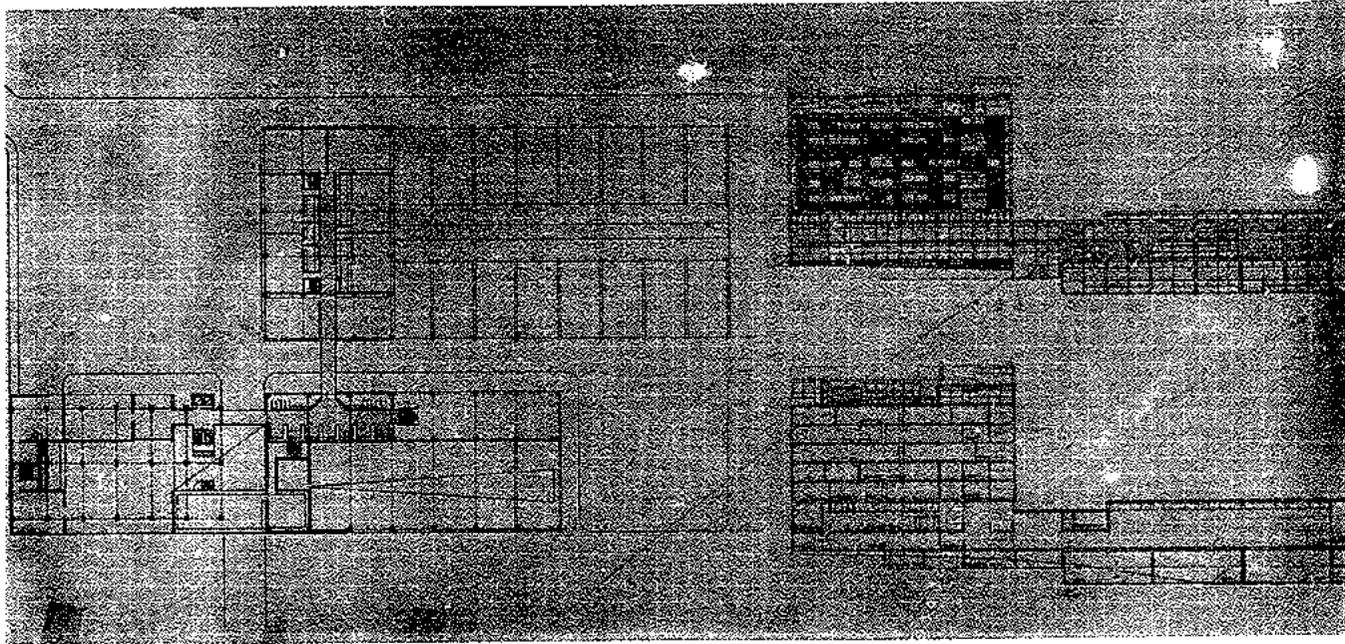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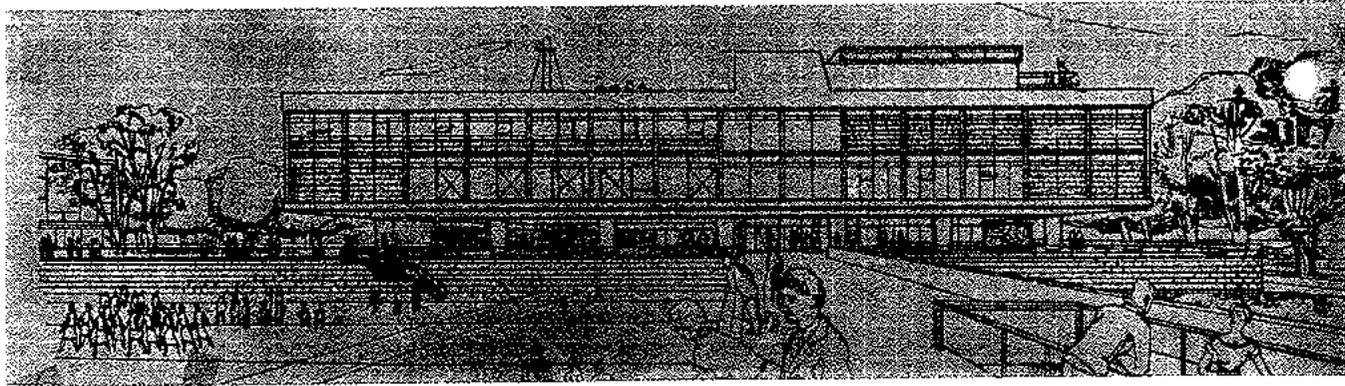


FIRST STAGE GROWTH YEAR 1973
POPULATION 5 MILLION



FINAL STAGE YEAR 2000
POPULATION 8 MILLION





건축의 방법 제임스 · 스틸링

한 창간 역

1965년 2월 R. I. B. A.에서 행한 연설

건축의 방법이라는 엄숙한 진실을 좀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1950년에 만든 나의 졸업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누구나 졸업설계를 했을 것이다. 하긴 요즈음 어떤 학교에선 5년의 과정이 다 지나도록 건물을 하나도 설계해보지 않는 곳이 있다곤 한다.

나는 리버풀에서 자라났다. 우등생은 고사하고 졸업장도 못 딴 채 고등학교를 나왔다. 요즈음처럼 대학입학이 힘들었다면 선속 학교는 고사하고 야간대학에 도전할까 할지 않았을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당시만 해도 전후의 혼란이 가시지 않아 나는 칩사리 리버풀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당시 건축학교는 현대건축의 혁신적 풍조가 날이 닳쳐(1945년)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현대사조의 정당성 같은 것에 대해 어떤 토론들이 벌어졌고 그도가 지나쳐서 서로 헐뜯기도 하고 몇몇 교수는 학교를 사임하고 다른 학교로 떠나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어떤 때는 나는 이 새로운 건축의 윤리적, 정당성(moral rightness)에 대해서는 깊은 확신을 가진 채 학교를 마쳤다. (이 점은 당시의 학생들에게 확실한 것으로 느껴지지는 커녕 트러블된 적도 없는 문제였다.) 당시 우리를 지도한 이는 비튼교수였는데 그 때에 벌어진 여러가지 중대한 논쟁들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라곤 조규치도 갖고있지 않은 자칭 자유주의자였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어떤 형식이건 간에— 그것이 비소—조오지안 이전 모—던, 이걸 그 질만 좋으면 된다는 식이었고 당시의 학교에선 이런 생각이 매우 매睫을 받고 있었다.

나의 졸업작품 제복은 뉴—타운의 커뮤니티 센터였다. 그것은 코르부제의 자유로운 평면이란 원칙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봉선의 흐름과 방들이 서로 혼란되었지만 서로가 기능적으로 합쳐져 있음엔 틀림없다. 아마 자유로운 평면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한 애를 썼던 것 같다. 그러나 봉선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여러가지 다른 기능을 가진 시설들이 직사각형 속에 맞추어 넣어져 있다. 레스토랑, 회의실, 도서관, 사무실

등의 서로 다른 볼륨을 가진 요소를 하나의 상자 속에 강제로 수렴시킨 그 작업을 표현함에 있어서 맞추어 넣어졌다기 보다는 쪼쪼 다져넣었다는 편이 더 적당할 것 같다.

1951년 나는 벌턴으로 갔다. 마침 사무드 팅크 전시회가 열려 그 것을 볼 수 있었다. 건축에 대해 청교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나는 이 전시회가 기념하고 있는 유명한 수정주의 작가 콕스(1851년)이나 또는 1930년대의 아스플룬트에 비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낡았고, 장식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런던의 A. P. R. R.에서 나는 town planning과정의 공부부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거기서는 urban planning까지 손대지는 못하고 주로 국가적 문제, 지역적 문제 따위를 다루었는데 내 생각으로 그나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수준에서 아무어지는 해결들이라는 것이 주로 정치적인 것에 한했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의 길이 3차원적으로 상화된 계획의 결과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과정을 끝마칠 것을 포기했다.

대신 나는 일련의 현상설계에 몰두했다. 그 첫번째가 폴·텍니칼·칼레시였다. 나는 드디어 나의 졸업작품과 코르부제의 "Towards a New Architecture"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1920년대와 30년대 백색면 육강조했던 작품들 즉 코르부제의 초기작품 같은 것들이 최근의 가장 고려할 만한 작품들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즉 현대건축의 범위와 그 고객을 넓혀 생각함으로써, (사치스러운 빌딩이나 아파트로부터 저렴한 공공 건물) 생각의 발전의 단계에서 소위 New Architecture의 가장 잘못된 점은 과장된 동선처리와 방 교유의 용도가 소위 자유로운 평면이란 비명야대 시로 혼동된 점이었다. 건축재료에 대한 생각도 좀 더 발전시켜야했다. 가르쉬의 집이나 루첸타—트의 백색 마감재는 구조적인 평면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지방의 외벽처리로 꼭 알맞는 것도 아니었다. 벽돌은 영국의 전통적

그 후 3년동안 나는 리용, 이스라엘 & 엘리스의 사무실에서 일했다. 거기서 상세, 일의 처리, 건물이 실제로 세워지는 방법, 방수문제 따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웠다. 실제적인 설계물을 하기 전에 이런 경험은 쌓아 놓을 가치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사무실에 있을 때인 1955년 팀 10의 일원으로 재회안을 하나 설계하였다.

그 동기는 다음과 같다.

연간가 시골길을 차를 불고 가다 한구석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워놓은 대어섯체의 집을 보았는데 마을 전체와 어울리는 스페일이나 재료등을 고려한 흔적은 조금도 없고 마치 책판에 종이를 꿰뚫어 놓은 듯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었다. 일관적인 영국의 시골마을의 크기와 모양에 적합한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 선형가로방으로 하였다.

집은 두개의 폭이 다른 내부공간을 만드는 3개의 벽체로 되어있고 이 2개의 내부공간을 크게 방을 만들었다. 폭이 넓은 쪽엔 거실과 주침실을 두고 폭이 좁은 쪽엔 나머지 침실과 부엌 따위를 두었다. 한쪽으로 경사진 지붕과 벽체는 지방적 특색에 따라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도 좋도록 하였다. 나는 이집에서 나타난 미학이 이제는 약간 전부한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개척지나 새로운 마을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확장되어가는 기존마을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 개인주택에 의한 마을성장의 형식을 만들에 있어 될수록 어떤 미학을 발견하려고 애썼다. 바로 이 때에 사무실에서 나는 6개의 개인주택안을 가지고 비로서 실제적인 설계를 맡기 시작했다. 그중 4안은 거절당했는데 그 이유는 미학적으로 수준 이하라는 점과 필요이상으로 낭비가 심하다는 점이였다. 그러나 울든하우스의 경우 나의 방법이 빛을 보아 실제로 시공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지는 랑카셔 평야를 바라보는 언덕위에 자리잡고 있었다. 기초공사부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땅을 2피—트 파내려가자 그 이하 6피—트는 강릉들이 두툼하게 쌓여있었다. 영국의 시골이라곤 하지만 그럴 수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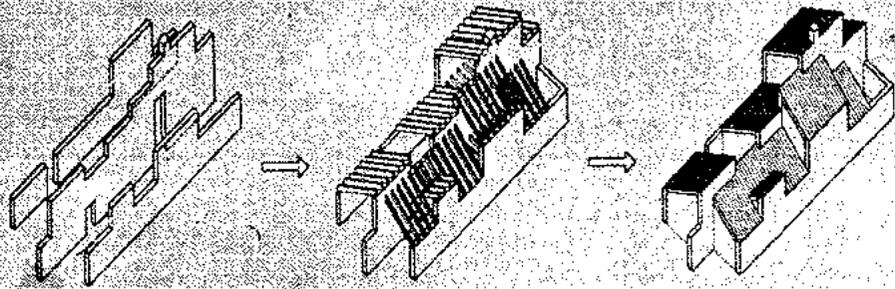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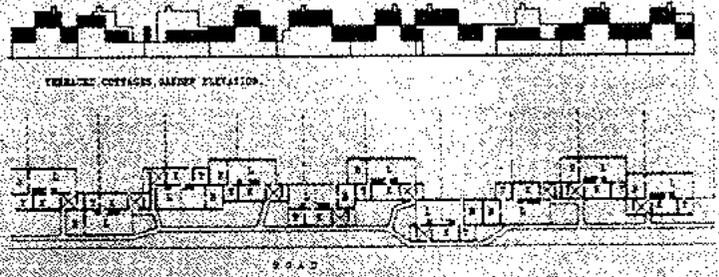
우리처럼 못나기들은 계획안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소위 권위를 가진 선배 건축가들의 미학적 견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을 와서 건축적으로 가치있는 개인 주택을 설계하여 실제적 선축계에 나아가시는 참 힘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선계를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는 약간 비극적인 현실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의뢰받는 일들이란 적절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간섭을 좋아하는 다른 건축가들에 의해서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동업자들을 흉나 나쁘다 가리키는 참 힘든 일이다. 이상한 일은 우리가 요즘 세우고 있는 크고 또 매우 여러사람이 이용할 건물들이 미학적인 견지에서 거절당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다. 도리어 소규모의 독립주택들—어떤 경우에는 숲 속에 파묻혀 여러 사람의 눈에 띄이지도 않는—이 이리저리 찢겨지고 두들겨맞는다.

간접적이긴 했지만 웨일드 대학 현상설계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의 본선계를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A. A. 학생들의 선정한 작품 4개중에 나도 한몫 끼게 되었다. (다른 사람은 코빈·윌슨, 존빌커, 피터·스미드슨였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대학의 시간강사 청탁을 받게 되었다. 얼마 후 나의 한 학생의 아버지 가 첫번째 고객이 되었다. 그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부근의 스펀우백과 비슷한 구조, 비슷한 가격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 (내 생각으로 그가 이전에 만난 건축가는 전통적인 취향이 있었고 그래서 아들에게 현대적 어휘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부탁했던 것 같다.) 그는 기성의 이론가들에게 호감을 갖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기반을 닦지 못한 신인을 많은 설계비를 주고라도 키워보려는 심정을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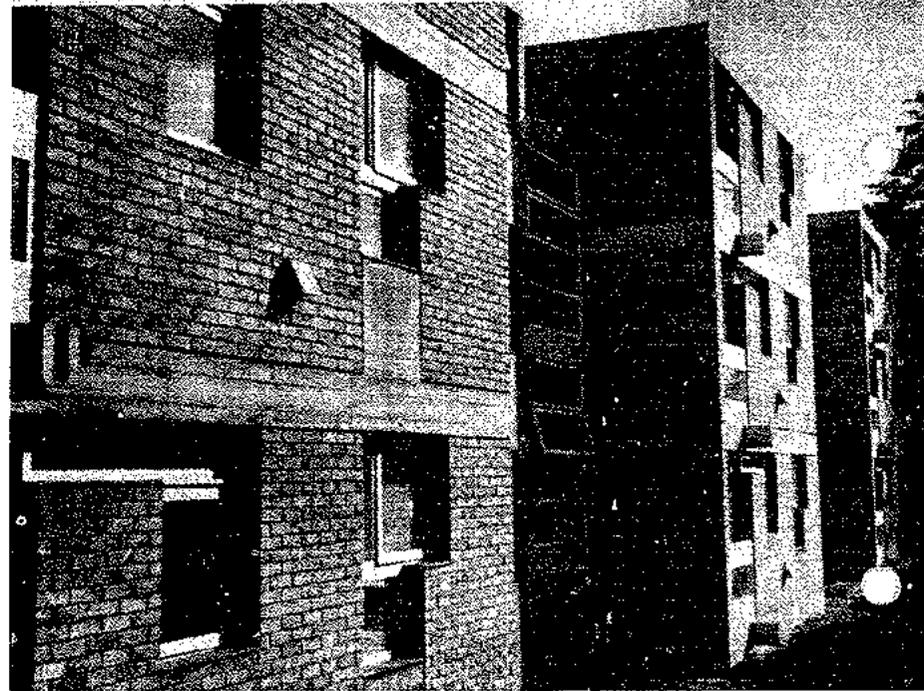
1956년 나는 제임스·가우완과 함께 리옹, 이스라엘 & 엘리스 사무소를 떠났다. 그리고 우리는 햄·킴먼에다가 이 아파트를 지었던 것이다. 상업적인 건물이었기 때문에 재료는 최소한도로 제한하여 벽돌과 콘크리트만 쓰기로 했다. 그리고 목 창문(여반 이상, 교착:수직세창등이 교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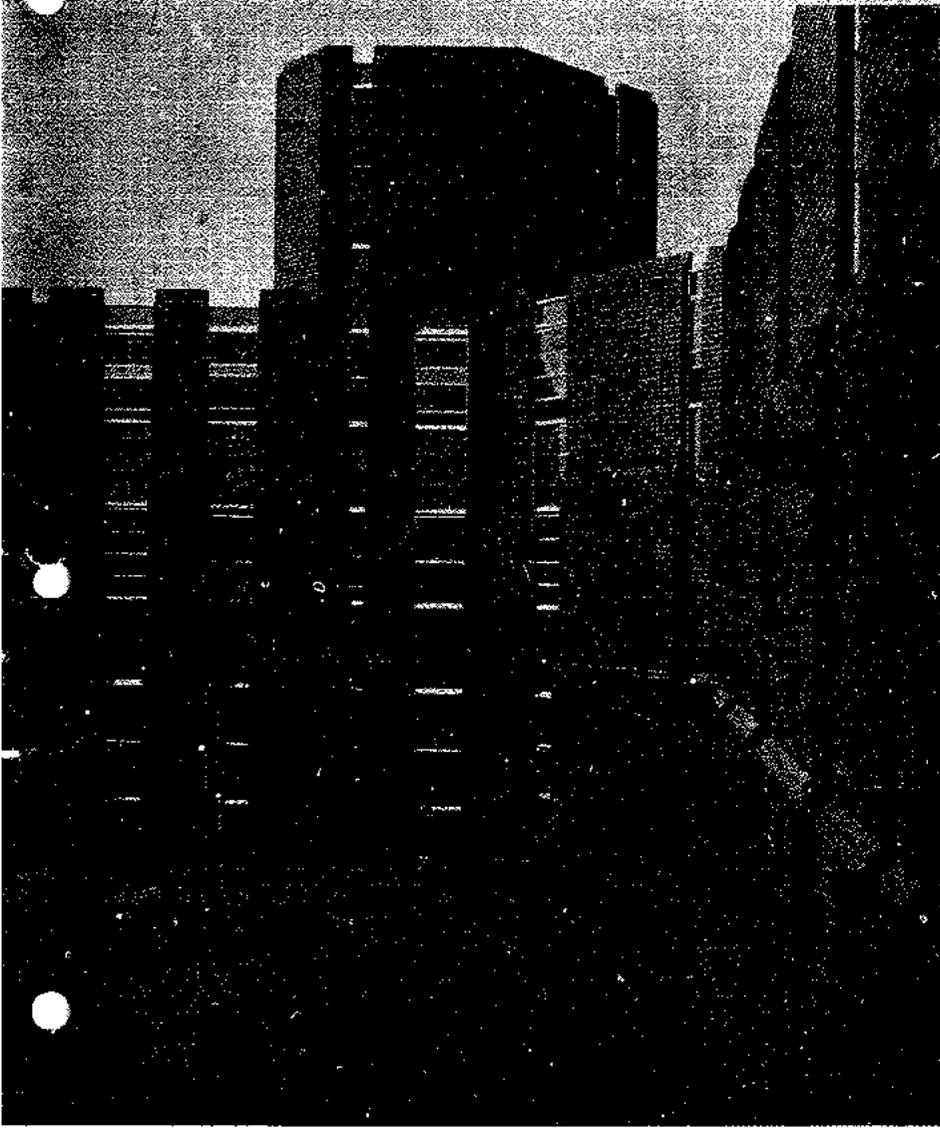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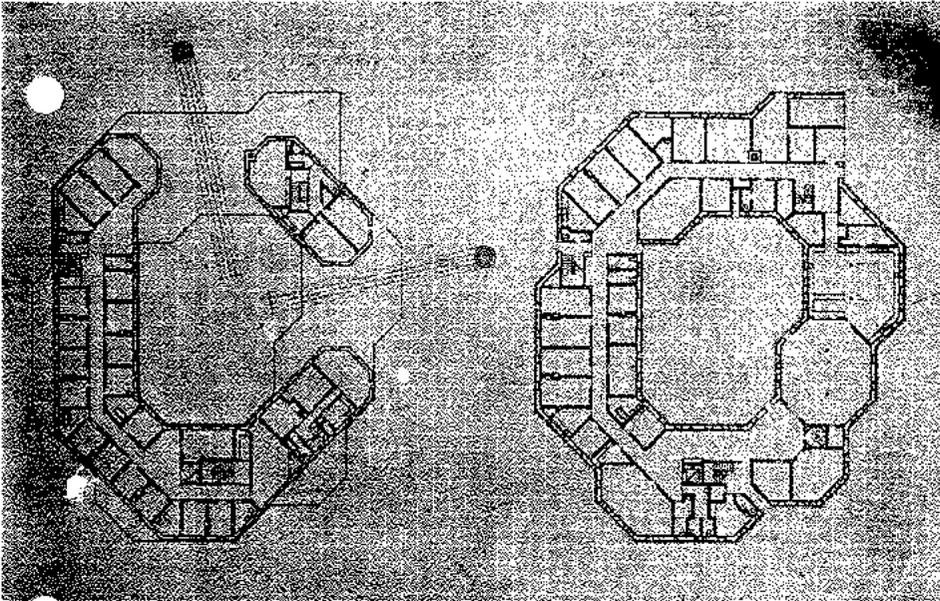


윌버 집 (1955)



1. T. 윌버 CIAM 마을계획 1955.





대로)들이 내부공간의 광선의 필요도에 따라 몇가지 다른 방법으로 배치되었다.

L. C. C.에 의한 노인의 집 역시 벽돌을 구조재로 쓴 건물이다. 이 건물이 완성되자 시대에 역행하는 건물이란 경을 받았다. 이 건물의 대지조건은 이웃에 있는 3층 혹은 4층짜리 테라스 집에서 한층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다. 따라서 노인들이 좋은 날씨에 밖에 나와 앉았을때 넘겨다 보이지 않게끔 Private garden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 (그들도 이 집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따라서 건물은 내장을 둘러싸도록 휘어졌고 남쪽과 서쪽은 층고를 낮추어 햇빛이 내정에 될수록 많이 들어오게 하였다 건물 가운데 명면을 조합시키는 요소로서 복도를 배치하였다. 복도가 건물을 돌아가는 동안 리후트 보비나 현관 부분에서 넓어지고 침실과 서비스공간 사이 에션 좁아진다. 또한 복도가 꾸부러질기 때문에 시작적인 지루함이 없어진다.

내부공간은 이중천정이라든가 스위 건축적공간이라든가 하는 식의 재주를 부리지 않았고 특히 현대적 사조 즉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일치라는 점과는 반대로 만들었다. 이를 얻러 나는 부드러운 내부공간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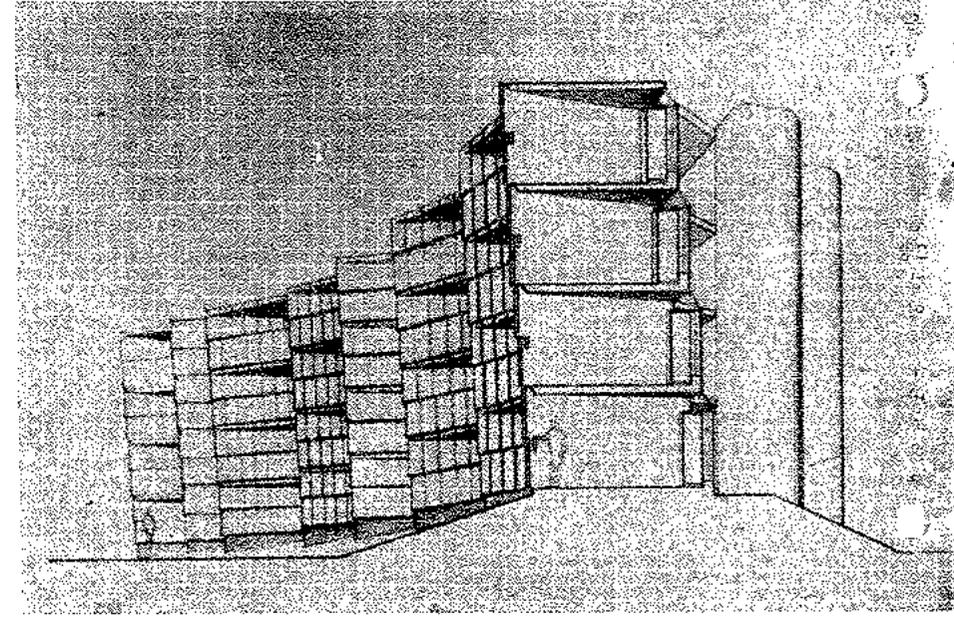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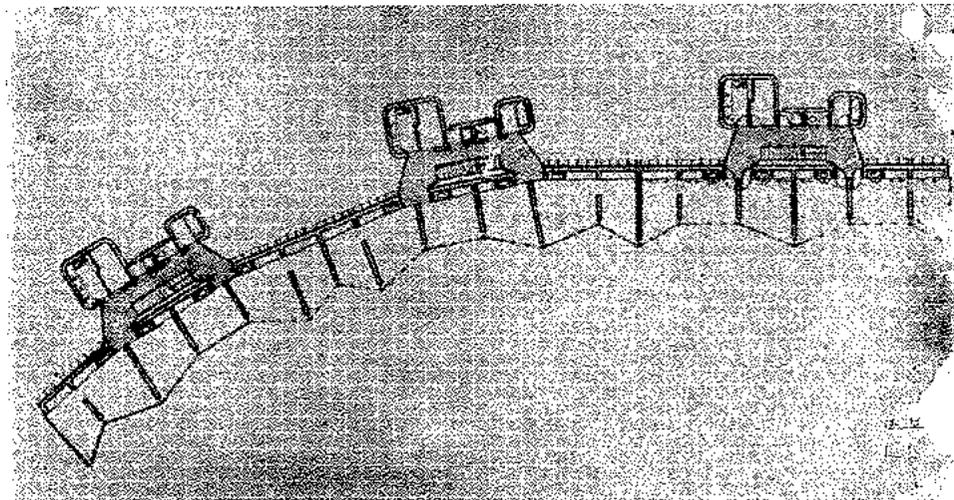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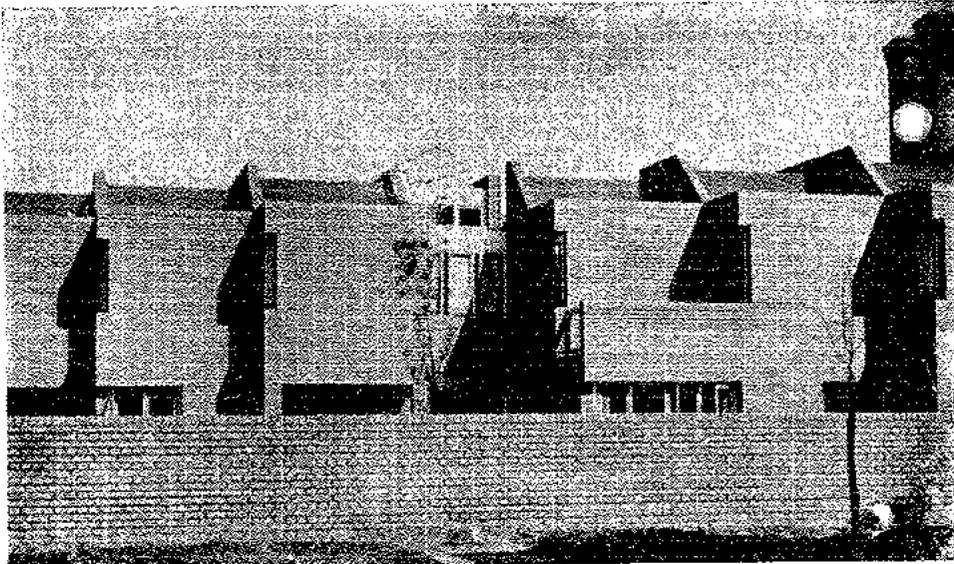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일치라는 생각은 그리 합리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건물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과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햄-점안에 아파트를 세울 때만 해도 이런 점에 현혹되어 있었다. 그 건물의 외관에서 느끼는 어떤 분위기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건물 내부의 벽난로와 창고 등을 벽돌노출로 처리했다. 그 결과 그 집에 드는 건축가들 외의 그집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벽난로에 플라스틱, 창고엔 칠을 한다. 결국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성격이 분명치 않은 대중(특히 노인들)을 위한 건물에선 내부를 자기들 취향에 맞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꾸미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이 집은 1962년 L. C. C.에 의해 각 방에서 서로 다른 패턴으로 벽지를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산 가격으로 집을 지으

하게 되고 푸트니의 어린이집 이 나 노인의집이나 약간 빅토리아 풍이 난다고 나도 생각한다. 사실 19세기 사람들은 벽돌조 건물의 디테일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 (당시에 지은 철도역이나 창고들을 보라.)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값싼 벽돌조의 집을 지으려 할때 그들에게서 무엇이 인가 배워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셀윈대학 확장계획은 우리들의 유사히 계획의 방향을 결정지은 중요한 작품이었다. 계획된 새 건물은 새부릿시대라 중정건물들처럼 아름다운 벽체로서 계획되었다. 건물의 1차 계획안은 방향이 뚜렷했다. 모든 방들은 칸조점을 이루고 있고 정원을 건너 기존의 건물을 건너다 보게 되어 있다. 들쭉날쭉한 거대한 창문—유리 스크린으로 된—은 외부에 학생방과 그 집합의 스케일을 나타내고 건물의 외부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건물벽에 반사되는 흩어진 나무들의 영상 속에 일체파적 느낌을 맛볼 것이다.

순환동선과 서비스는 건물 외부에 따로 설치된 「코아」로 해결하며 이것들은 건물을 외부에서 지지해주는 일련의 탑을 이루고 각 탑 마다 출입구가 난다. 불행스럽게도 이 안에 대해 대학은 두 때로 갈려 최종결정을 짓기 위해선 투표를 해야할 지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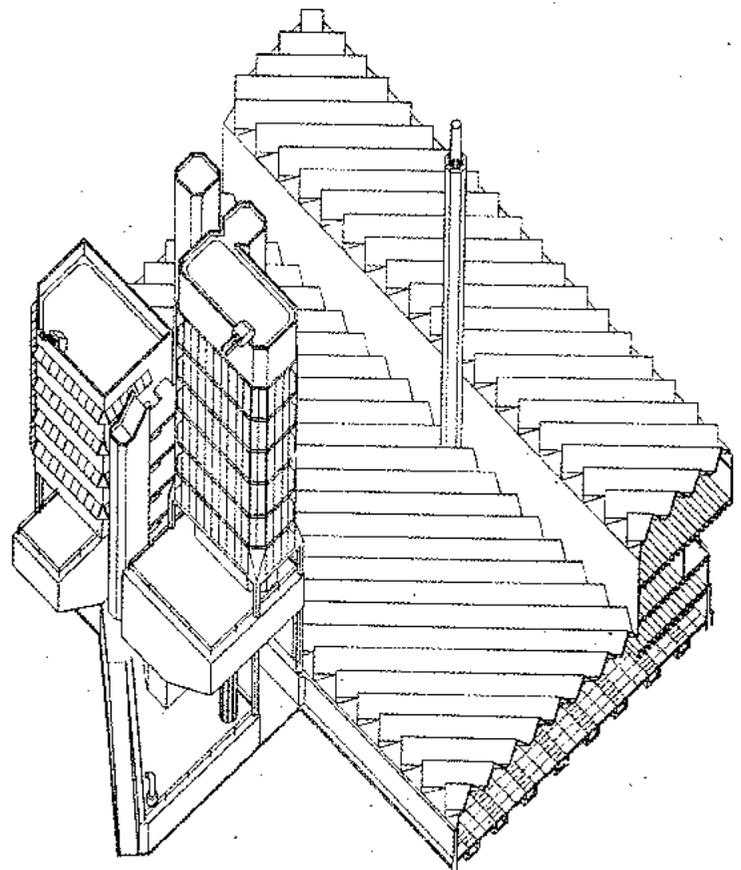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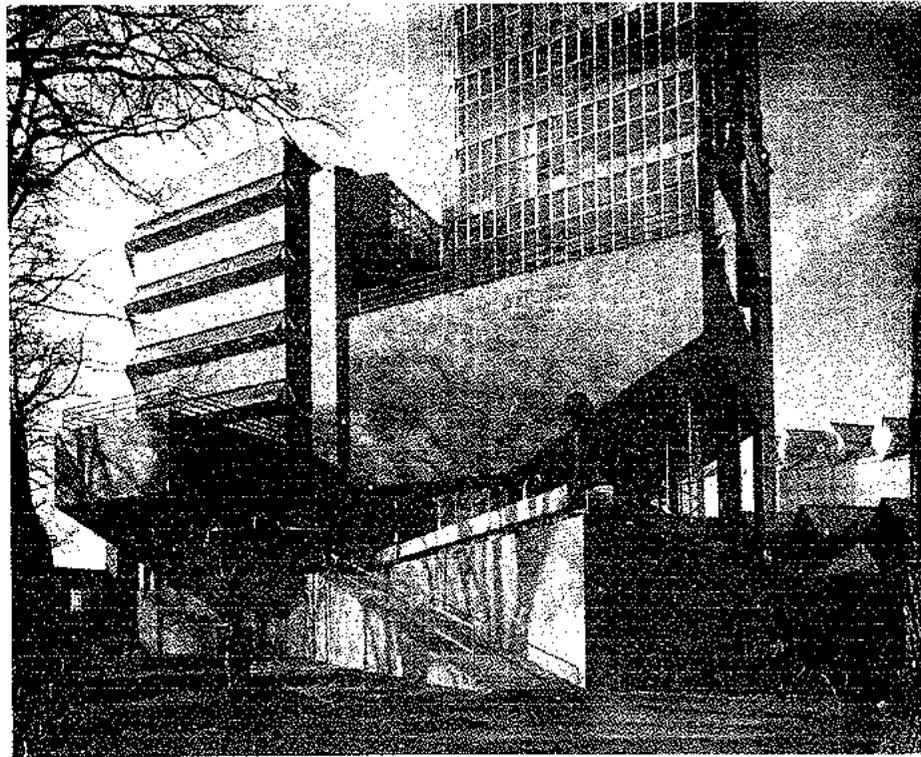
레스터공학 건물은 비교적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다. 대지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한 부분이 탐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탐은 인접해 있는 공원 쪽으로 전망이 트인다. 한 교수의 구조에 관한 「단편적 소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3페이지짜리, —그야말로 단편적인 것이었지만—매우 훌륭했다. 그밖에 가끔 특수분야의 교수들이 공사중인 건물을 방문하여보고는 “우리는 틀림없이 시끄러운 연구실을 갖게 되겠군”하는 식의 말들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비협조적인 것이었다. 높은 수준의 과학성을 요구하는 건물을 설계할때 건축가는 매우 힘든 위치에 서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단편적인 요구사항들을 판단할 전 무지 지식인 어니 에프이다 시



건물을 예로 들더라도 적어도 4 분야의 학위 정도는 갖고 있어야 완전한 계획을 할 수 있었을 것같았다.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을 남겨놓을 수 있는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자본아의 실현설과 상고들을 처리했고 계단교실이나 계단실등 우리가 경험했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부분들에 한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시도했다.

지상층에서 주연관과 실험실 부분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2개의 동선이 합쳐져 남부로 수직으로 되어 올라가고 상층부에서는 계단과 리프트가 개별적으로 끊어져 최상층으로는 한 개의 계단과 리프트만이 올라간다. 건물(탑상부분이 아래는 넓고 위는 좁은 단면형식을 취한것은 동선이 건물의 형태를 조직하는 방법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300명의 학생이 이 건물 속에서 움직일 것이므로 마치 빙산처럼 위를 좁게 하고 아래를 넓게 함으로서 학생동선의 대부분이 아래 세 층에서 해결되도록 하였다. 아래 세 층에서는 학생들이 시간마다 강의실을 바꾼다. 따라서 5분 동안의 휴식시간을 통해 생기는 굉장한 동선의 흐름을 넓은 면적을 가진 곳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거대한 생각일 것이다. 대부분의 강의실이 저층부에 있기 때문에 그층부의 자기 방으로 가는 교수들이 리프트를 이용할 때 학생들을 계단을 이용하게 되어 학생과 수의 동선이 분리된다. 남으로 가가는 계단의 계단감 부분의 바닥 벽에는 건물외부의 땅바닥에 깐 타일과 같은 것을 사용하여 외부의 느낌을 내부로 끌어 넣었다. 그러나 계단교실 같이 유행처리가 중요한 방(2층 벽과 3층천정이 필요하다)에서 외부공간을 흉내낸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부드러운 공간(외부와 완전히 구별되는 내부공간)으로 만들었다. 연구실의 내부처리는 물론 실험실이나 창고와 다르게 했고 연구실 커리도 서로 용도가 관이하게 다를 경우를 대비해 시각적인 연관성을 주려 하는 않았다.

대학잡지가 이 건물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는데 교수와 학생과 방문객들이 투고하였다. 각자의



에 비판을 가한 사람은 있었
 는 모두가 그 건물 속에 있
 는 웅장하고 무거운 기분을 느끼
 그 속을 걷고 거기서 연구하
 것에서 쉼없는 생동감을 느낀
 내용으로 꿈을 맺고 있었다.
 이야말로 건축가에 대한 최
 경의요 찬사가 아닐까? 왜
 면 방이나 건물이나 도시나
 그가 창조한 환경의 질에
 인간의 정신이 양양되게 하
 것이 건축가의 유일한 의무일
 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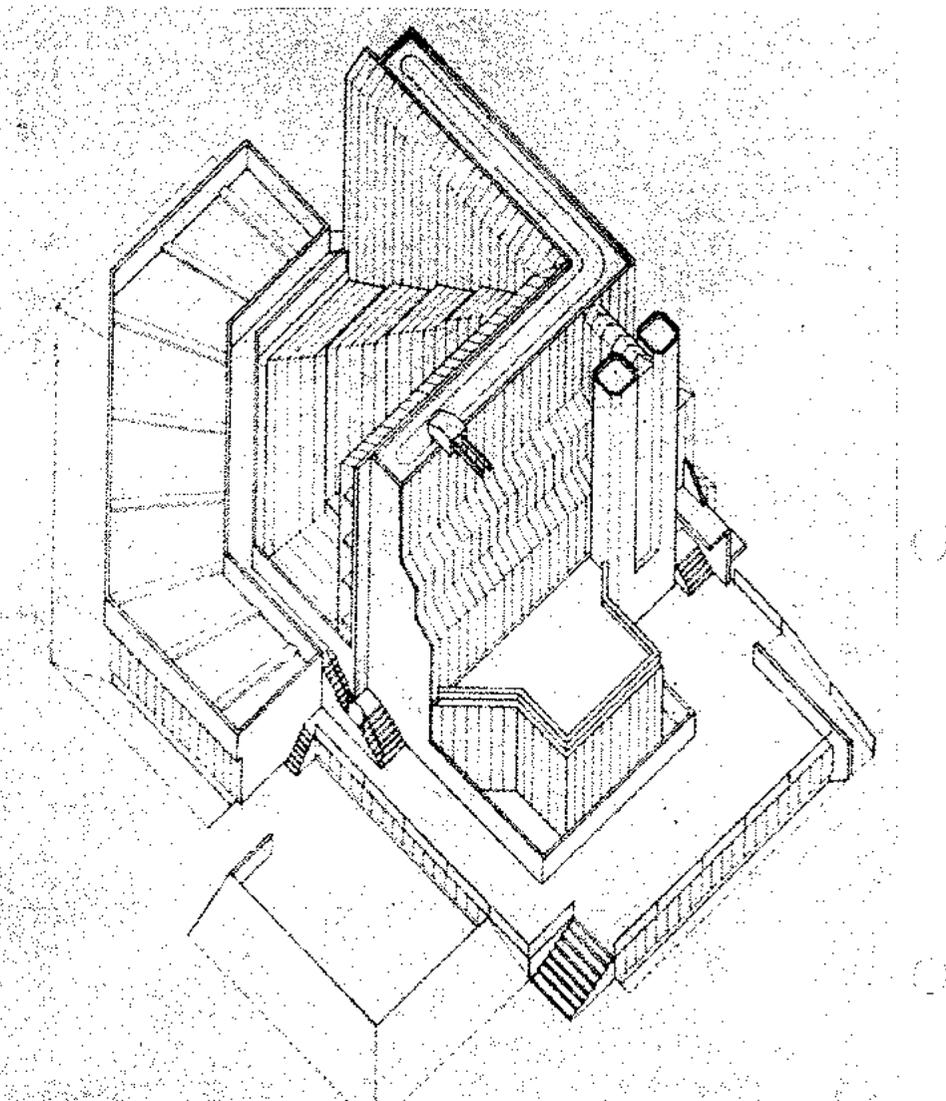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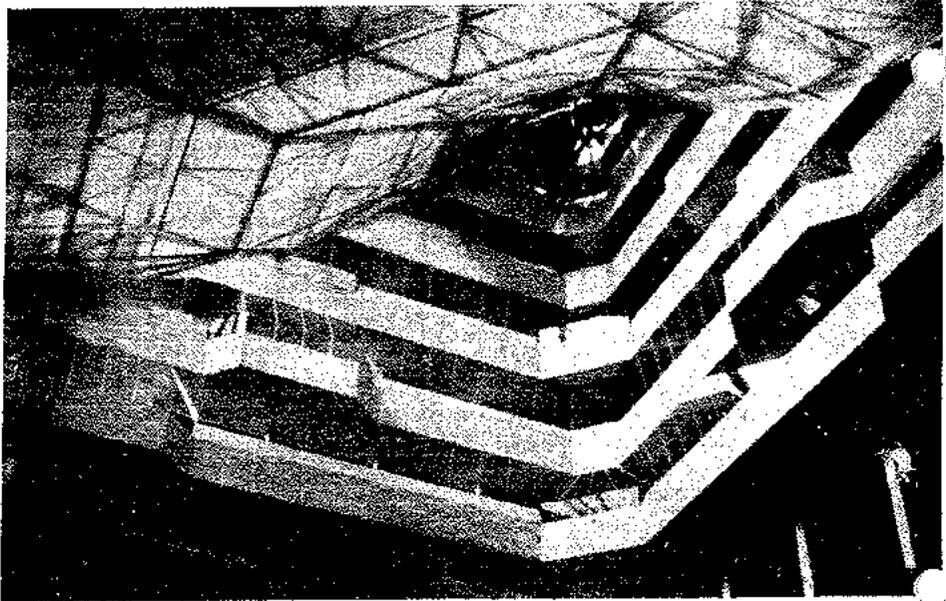
부러지의 역사관은 - 지명현
 의란 것이었다. 심사위원회
 역사학부에서 2명의 회원을
 하여 도면을 보고 사용자의
 에서 본 의견서를 제출하도
 위촉하였다. 그들은 나의 안
 호감을 가지고 보고서를 썼
 우선적으로 2가지 관점에 의
 것이었다. 즉

열람실 (면적의 50%나 되는)
 이 관리실에 앉은 한 사람의
 의해 감독될 수 있고 따라서
 인건비를 최소로 줄일 수 있
 다.

열람실이 건물의 모든 곳
 으로부터 연결되는 중심부가
 되어 있다. (다른 경쟁안들
 은 2개의 건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역
 사학부가 하나의 실체이므로
 한 건물 속에 들어가지 않
 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마 나는 행운아였던 모양이
 바로 그 때 대학 도서관에서
 이 도난당한 일들이 잦아 그
 신문에 크게 나고 모든 사
 이 책의 감독을 굉장히 큰
 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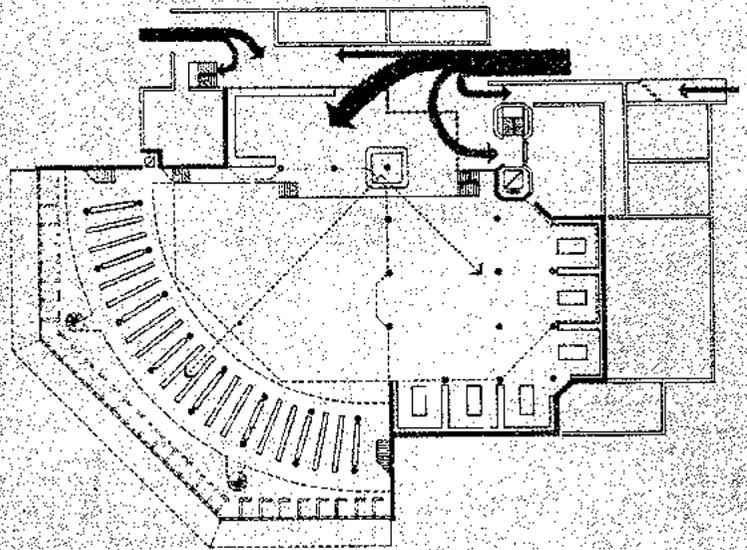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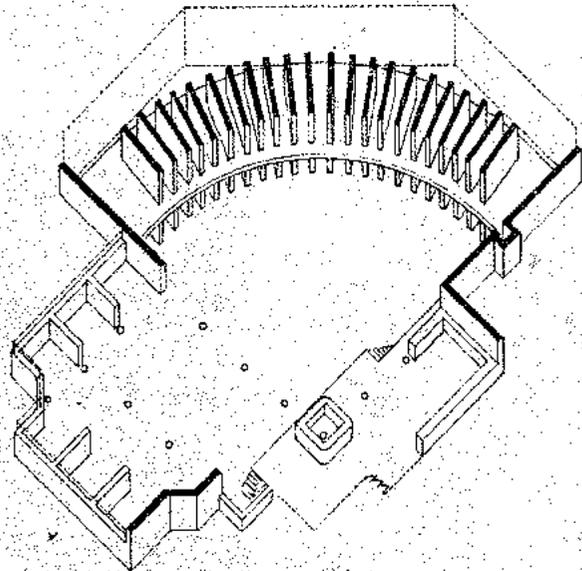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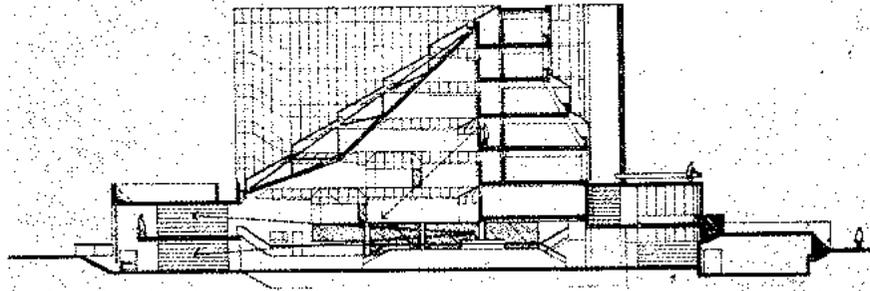
건물 역시 상층부는 좁고
 부는 넓은 단면을 택하고 있
 280명을 위한 열람실은 사용
 매우 크므로 지상에다 두었
 교수들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은 2층과 3층에 두었고 그
 는 세미나실을 두었다. 교수
 제일 꾸대기 두 층에서 해
 다. 하층부에서의 학생동선
 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상층
 의 교수동선은 리프트에 의
 이루어져 두 동선이 분리된다
 이란 건물 내의 모든 요소들
 연결시키고 조직하는 요소다.
 서 상층부의 복도는 방들을
 최량으로 만들었다. 이것들
 열람실을 비추는 지붕창 아래



람을 걸어갈 때 지붕을 통해 밝을 내다볼 수 있고 다음엔 이 건물의 매카니즘을 눈으로 보게 된다. 지붕창에는(재일 깊은 것이 한층의 두께를 가진) 환기장치, 난방장치, 통로, 전등 같은 것들이 장치되어 있다. 그야말로 외부의 온도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기후방식(Climate cushion)이라고나 할까, 희망을 따라 좀 더 절다보면 열람실을 내려다 보게 된다. 계속해서 건물 내부를 걷는 동안 사람들은 이학부의 소위 존재이유라 할 수 있는 열람실을 항상 시각적으로 느끼게 된다.

열람실에 있어서 신선한 공기는 재장너머의 창문으로부터 들어와서, 난방된 열람실에서 데워져 지붕창 꼭대기로 끌려올라가 거기서 커다란 증풍기에 의해 지붕 밖으로 빨려나간다. 열람실에서 보이는 외관의 벽들은 섬유질의 플라스틱을 바르고 흡음을 위해 구멍을 뚫었다. 열람실의 전체 내부공간이 빈적면적 반사되는 유리벽으로 된 건물의 외부와 대조되는 부드러운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유리벽의 건물은 영국의 기후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영국은 너무 습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나라이다. 더구나 쉼만큼 흐린 날에도 하늘에는 꽤 높은 주도의 천공광이 있다. 이런 점은 육중한 콘크리트 건물에 조망이나 환기를 위해 창문을 싸잡싸잡 뚫는 일본의 건축과 대조된다고 본다. 유리벽은 조망이나 환기등의 기능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값이 싸고 가볍고 또한 빨리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이란 용도에 의해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모양을 덮을 수 있는 자유로운 재료가 유리라고 생각한다. 방의 모양을 전혀 때문에 찌그러뜨리지 않고 그의 가장 기능적인 형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건물을 설계한다는 것은 이런 다양한 방의 형태들을 완전한 통합체로 조립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통합체가 유리라는 재료로 싸여짐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이렇다할 난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면 유리의 청소방법이겠다. 이 건물의 경우 유리를 청소하는 사람이 상하좌우로 뿐 아니라 아래로 내



플의 설계에 있어서 이것을 집의 상층부 외벽재로 사용하였다. 창문의 위치는 방의 형식에 따라 정해졌고 그 크기와 모양은 방의 용도에 의해 결정되었다. R. C. 조예선 외벽이 구조재와는 무관하다. 건물의 상층부에는 식당과 집회실 위에 교수실과 사무실 등을 두고 하층부에는 3개의 체육관 위에 강당을 두었다. 강당의 외벽은 허-츠 스킨에 사용된 콩크리트판을 붙였다. (이렇게 서로 연관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것은 아마도? 강한 인상용위한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그 보다 중대한 것은 동선관계(복도, 리프트, 계단 등)의 재고였다. 이것을 건물에 있어서 다이내마하고 자극적인 요소로서 다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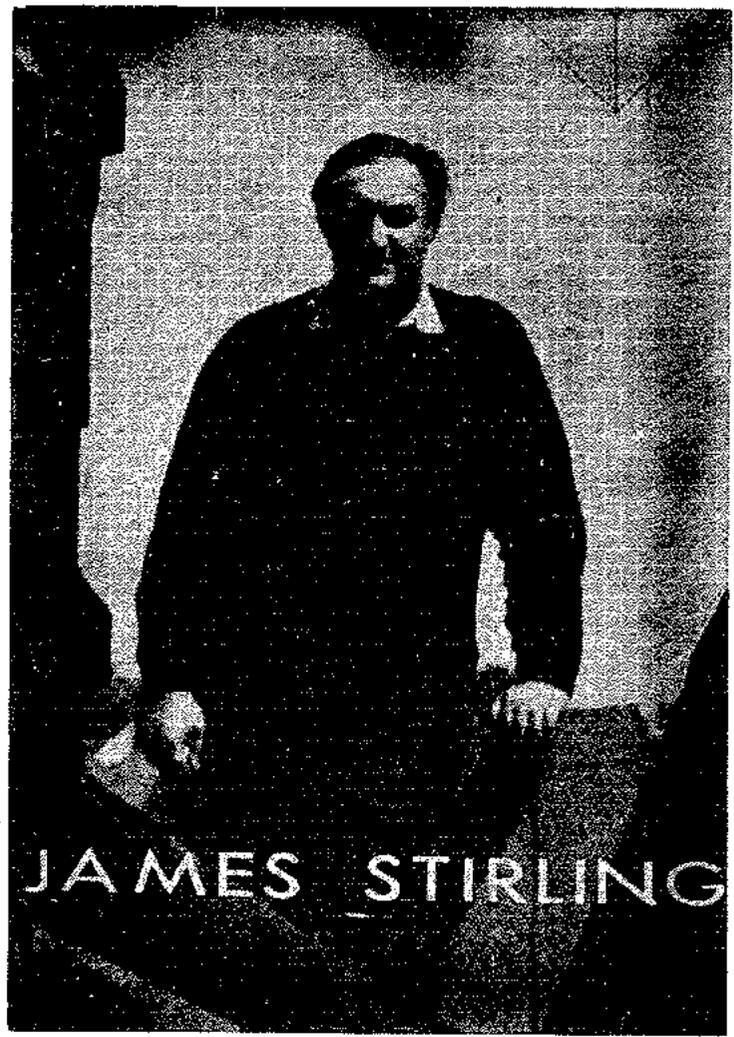
다시 말하면 복도를 중래의 통로로서의 개념으로부터 발전시켜 방들이 붙들어 매어지는 보강체나 골조로서 그리고 동선으로 부터 분리된 개별 공간(Private-space)을 충분히 가진 기초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을 갖는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현상설계를 마치고 나는 직장을 가진 필요를 느껴 어떤 개인 설계 사무실에 취직하기로 했다. 동시에 1953년의 웨필드대학 현상설계에 응모하였다. 주전들의 지층은 포장된 통로로서 대지의 양쪽으로 건물을 연결 시키게 했다. 대지가 시내를 향해 경사졌으므로 건물 자체가 캠퍼스를 지지하는 용벽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건물의 외벽에서 오른쪽으로 건축학교, 다음에 교실군, 가운데는 두층에 들어갈 수 있는 식당식당의실의 군 다음에 교수실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사무실과 기타 관리실을 두었다. 이러한 군들 사이 사이에 수직동선의 샤프트를 두어서로 분리되게 하였다. 이 샤프트들은 건물의 다른 부분보다 음쪽 들어 가게하여 그 기능이 다름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느끼게 하였다. 수평동선은 각 방들을 붙이고있는 등벽 또는 축으로 고려되었다. 공간과 각 방들의 계획은 동선관계의 계획에 비하면 이차적인 문제로 생각되었다. 물론 그 때 이것이 실제로 지어졌었다면 시공시 생기는 여러가지 난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 때 나는 실제 경험이 아주 없었으므로 매우 힘들었겠지만,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후회가 없다.

지붕면을 소제할 수 있도록 특수한 장치가 필요했고 전문가가 필요했다.

문제점 (여기서는 유리의 청소 문제)이란 언제나 그 원인을 추구하여 원인 자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건축(또는 현대건축)이 말을 더디고 서있는 제원속 몸을 좀 더 모험하거나 혹은 거부함에 있어서 산가적과 센티한 방법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과 법칙을 찾아내어 배치한다는 생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공량(有孔梁)의 設計

기술사 신 증 순

1. 서 문

필자는 유공량의 모형시험을 해본 일이었다. 필자가 갖고 있는 극히 제한된 자료를 치용하여 유공량 설계의 한 기준을 제안해 보겠다.

2. 전단극한강도(剪斷極限強度)의 시험식

일본의 마쯔시다 박사를 주임으로 하는 유공량 연구위원회에서는 [그림 1]에 표시한 것과 같은 연속보형식(連続梁形式)의 가력방법으로 $a/d=2.24$ 의 경우를 주요한 실험을 해서, 전단스판 a 의 중앙에 하나의 동그란 구멍을 갖는 유공량의 전단극한강도실험식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frac{Z_u}{F_c} = 0.143(1 - 1.61 \frac{H}{D}) + 0.22 \frac{P_s s_y}{F_c} \dots (1)$$

단 $\frac{H}{D} \leq 0.4$

$$P_s \leq \frac{\sum a_s (\sin \theta + \cos \theta)}{bc}$$

記号, Z_u 전단극한시의 전단응력도(= Q/bj) (kg/cm^2)

Q : 전단력 (kg)

b : 보의 폭 (cm)

j : 응력중심거리 (= $7d/8$) (cm)

F_c : 콘크리트강도 (kg/cm^2)

H : 원공(円孔)의 直径 [정방형 때는 같은 면적의 원곳으로 환산한 직경] (cm)

p_s : 공주보강비(孔周補強筋比)

$s \delta$: 공주보강근(孔周補強筋) (kg/cm^2)

a_s : 구멍의 한쪽의 1組의 보강근단면적 (cm^2)

θ : 공주보강근이 재축(材軸)과 이루는 각.

C : 공주보강근이 유효범위 (그림 2 참조)

3. 설계식의 제안

(1)식에 주어야할 안전율을 생각한다. (1)식에서 구멍이 뚫이지 않고 보강근(補強筋) 배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공량에서 전단보강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된다. 이 경우는 (1)식에서 $H=0$, $p_s=0$ 의 경우이니까 (1)식은

$$\frac{Z_u}{F_c} = 0.143 \dots (2)$$

이 된다.

콘크리트만으로 전달수 있는 전단력은 일본규준에 의하면

$$\text{장기 } \frac{Z}{F_c} = \frac{1}{30} = 0.0333 \dots (3)$$

$$\text{단기 } \frac{Z}{F_c} = \frac{1}{15} = 0.0666$$

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것과 (2)식의 Z_u/F_c 와를 비교하면

$$0.143 / 0.0333 = 4.3 \dots (4)$$

$$0.143 / 0.0666 = 2.1$$

라는 비를 얻는다. 따라서 (1)식에 장기 4.3, 단기 2.1이라는 안전율을 주려는 일반무공량(一般無孔梁)에서의 전단보강을 요하지 않는 전단응력도의 한계와 (1)식의 특별한 경우로서의 $H=0$, $p_s=0$ 일때의 전단응력도가 대체로 일치한다.

ACI에서는 일반 무공량에서의 분단보강을 요하지 않는 분단응력도의 한계는

$$Z = 0.292 / F_c \dots (5)$$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rac{Z}{F_c} = \frac{0.292}{j F_c}$$

가 되며

$$F_c = 180 kg/cm^2 \text{ 면}$$

$$\frac{Z}{F_c} = 0.0217$$

$$F_c = 210 kg/cm^2 \text{ 면}$$

$$\frac{Z}{F_c} = 0.0201$$

이다. (2)식과 비교해서 $0.1431/0.0217=6.6$, $0.143/0.0201=7.1$ 이라는 안전율을 주어야 일반무공량에서의 전단보강(剪斷補強)을 요하지 않는 전단응력도의 한계와 (1)식의 특별한 경우로서의 $H=0$, $p_s=0$ 일때의 분단응력도가 대체로 일치하게 된다.

이상의 고찰로서 (1)식에 단기하중에 대해서는 4, 장기하중에 대해서는 6이라는 안전율을 주기에 다음과 같은 설계식을 제안한다.

$$\text{장기 } \frac{Z}{F_c} = 0.024(1 - 1.61 \frac{H}{D}) + 0.036 \frac{P_s s_y \delta}{F_c} \dots (6)$$

$$\text{단기 } \frac{Z}{F_c} = 0.036(1 - 1.61 \frac{H}{D}) + 0.054 \frac{P_s s_y \delta}{F_c} \dots (7)$$

(6)식을 $F_c=180 kg/cm^2$, $f_s=2400 kg/cm^2$ 의 경우에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계산도표 1이다.

4. 또 하나의 방법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 (1) 모멘트에 대한 단면 산정은 구멍을 제외한 단면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 (2) 전단력에 대한 단면산정은 구멍을 제외한 단면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 (3) 전단응력에 의한 보의 크랙(crack)에 상선성이 그림 3의 EF일때, B, D점에 집중하는 응력의 크기는

$$\frac{Q}{b} \times \overline{OD}$$

이며 이것은 보강근 GH, IJ에 의하여 막아진다. 이상의 가정이 어느 정도 옳으나하는 것을 확인한 실험보고는 필자가 갖고 있지 못하나 일본 건축학회의 철근 콘크리트 계산기준해설 상권 256 p에는 위의 가정을 이용한 계산예가 제시되고 있다. 보강이 충분해도 구멍이 커지면 보의 剛性이 저하하니까 구멍의 크기는 보의 높이의 40% 이하, 구멍이 연속할 때는 그 간격이 공경(孔徑)의 3배 이상으로 하며 보강근량은 항상 넉넉히 배근할 것을 권고한다.

5. 계산례(1)

폭 30cm 높이 80cm 의 보에 $M = -10 \text{ tm}$, $Q = 6 \text{ t}$ 작용할 때 보 높이의 중앙에 $30 \text{ cm} \times 30 \text{ cm}$ 의 구멍 뚫는다. $f_t = 1600 \text{ kg/cm}^2$, $f_c = 2400 \text{ kg/cm}^2$ Fc 180 kg/cm^2 일때 이 보를 계산하라.

해답 힘에 대해서 $M/bd^2 = 10,0000/30 \times 75 \times 75 = 5.92$

$$r = 0.6 \quad p_t = 0.43\% \quad \kappa n = 0.33d = 0.33 \times 75 = 24.7 < 25 \quad \text{O.K.}$$

$$a_t = 0.0043 \times 30 \times 75 = 9.7 \text{ cm}^2$$

3-D 22를 아래에 2-D 22를 위에 그림과 같이 배근함

단에 대해서

-D 13을 쓰는것으로 보고서

$$\text{Stir. } 2-D 13, \kappa = \frac{1.27 \times 1.6 \times 2 \times 20 \times \frac{7}{8}}{3}$$

$$= 23.7$$

$$25 \times \frac{3}{4} = 18.8 \text{ cm}$$

D 13 @ 15cm 로 stirrup 배근함.

구멍이 없다고 본때의 사인장력 (斜引張力)

$$Z = \frac{6000}{30 \times 75 \times \frac{7}{8}} = 3.05 \text{ kg cm}^2$$

C절의 집중응력은

$$3.05 \times 15 / 2 = 650 \text{ kg}$$

보강철근단면적 $650/1600 = 0.405 \text{ cm}^2$ (EF 근)

안전상 2-D 13을 그림과 같이 배근한 계산과

예 (1)에서 직경 30cm의 구멍을 뚫을 때 계산표 1을써서 보강근을 배근하라.

힘에 대해서는 알과 같음.

단면에 대해서

$$\frac{Q}{b_j F_c} = \frac{6000}{30 \times 65.6 \times 180} = 0.017$$

계산도표 1에서 $H/D = 30/80 = 0.375$ 선을 보아 $p_s = 0.004$

$$b = 30, \quad c = 35$$

$$\Sigma a_s (\cos \theta + \sin \theta) = 30 \times 35 + 0.004 = 4.2 \text{ cm}^2$$

cm^2 보조근의 50%는 수직으로 50%는 45도 경사지게 배근한다면

$$\Sigma a_s (\cos \theta + \sin \theta) = (1 + \sqrt{2}) a_s = 4.2 \text{ cm}^2$$

$$a_s \frac{1 + \sqrt{2}}{2} = 1.74 \text{ cm}^2$$

2-D 13을 한쪽은 수직으로 한쪽은 45° 경사지 그림 5와 같이 卍孔의 양측에 전단 crack선 막을 수 있도록 배근하면 충분 하겠으나 안전 그림 6과 같이 배근할 것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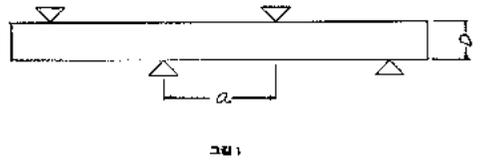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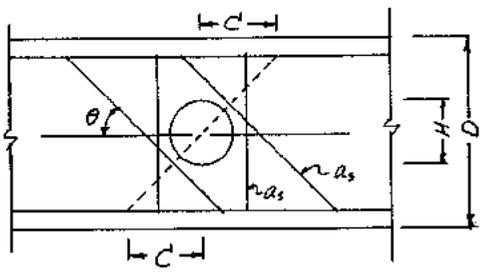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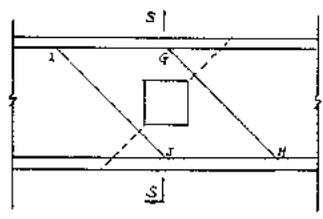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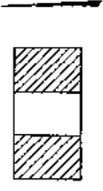


그림 2



(A) 그림 3



단면 S-S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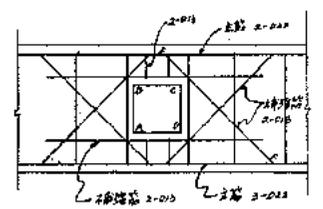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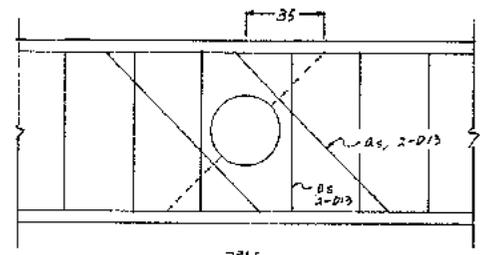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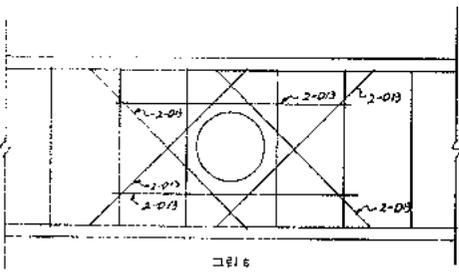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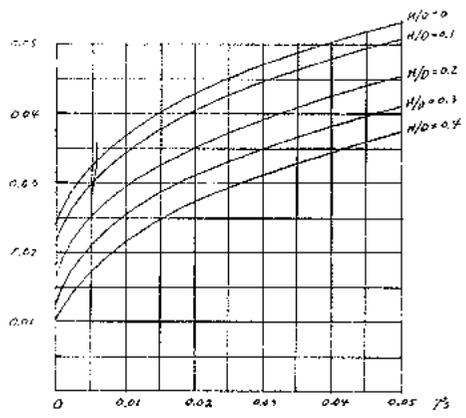


그림 6



창 문

앨릭자 안더 파이크<옥스포드대학>

현대에서와서 건물의 제요소들중 창문처럼 그 기능이 복잡해지고 그 의미가 모호해진 것은 없을 것이다. "좀더 넓은 유리창"을 지향하는 경향때문에 벽과 창문과 문의 기능이 서로 중첩되고 이것들의 정의 자체가 흐려진 감이 없지 않다.

과거 벽체에 유리없이 사용된 개구부는 자연채광과 그리고 환기, 밖을 내다보는 목적에 기여했다. 강한 햇빛은 불유쾌한 요소로서 의식적으로 가리키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샷리가 사용되었다.

적사광선에 의한 눈의 부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일찍부터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왔다. 예를들면 17세기에 사용된 창들을 두겹게 하고 장을 안쪽으로 다는 방식(아랫그림)과 같은 것이 있었지만 요즘엔 그다지 쓰이지 않고있다. 현대 즉 20세기에와서는 환경의 변화, 경제적 압력, 지식의 신장 그로 인한 나 높은 표준에의 필연적인 요구등으로 인해 창문 디자인이 자연적으로 복잡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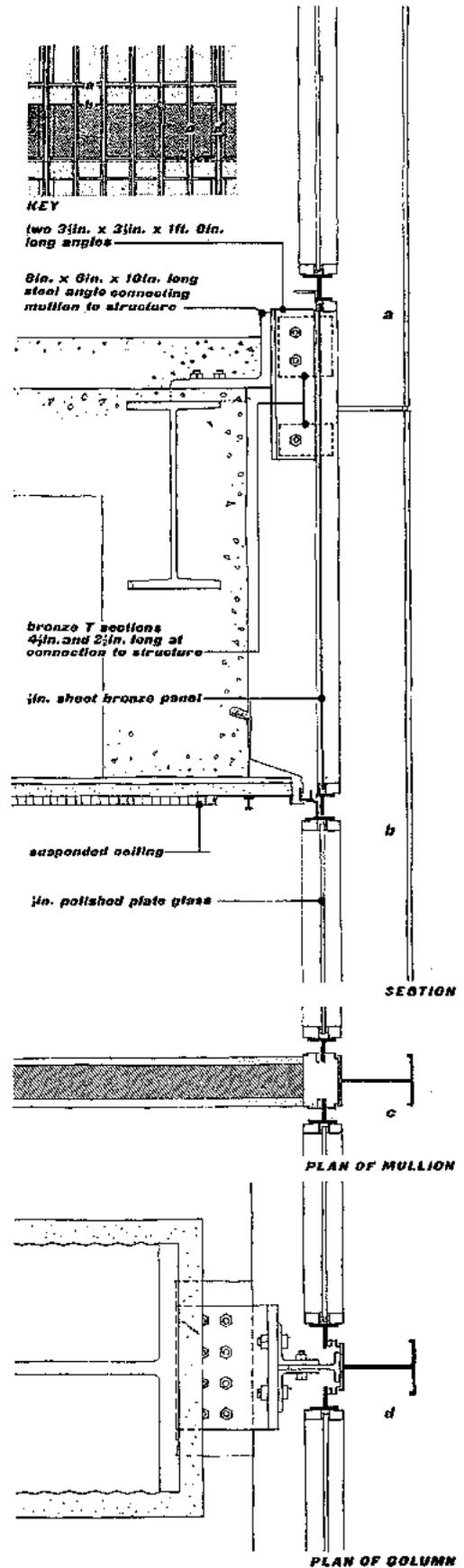
난방과 보온, 복사열, 청소와 유지, 방음과 안전등의 문제는 현대에서와서 특히 강조된 것이다. 이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창문의 규격화의 발견이라 할것이다. 증가하는 벽체창들의 생산은 대규모 투기시상의 관심을 끌었고 1차대전 전에 헨리 호프에 의해 소개된 **움막집** 창문은 오늘날 시장에서 팔리는 수많은 규격화된 철제창들의 원형이 되었고 영국 창문표준의 기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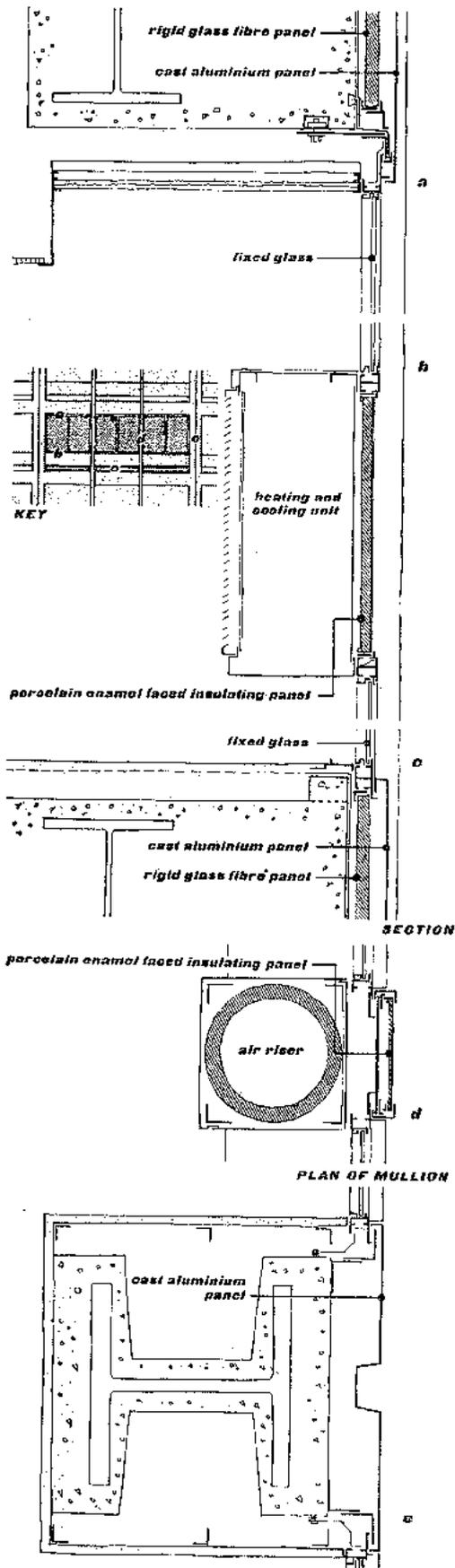
규격화된 창문은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분별력있는 수요자들은 차츰 그것의 부적당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방으로 스며드는 바람, 동화작용, 그밖에도 많은 절대적인 필수조건들이 아직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 열손실같은 것은 수요자가 발견하고 고치기엔 힘든 것이다. 유지의 곤란 따위는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시달리는 제조업자에게—건축가도 마찬가지지만—무시되기 일수다.

일고 나는 방법도 아직 너무 조잡하다고 볼 수 있다. 규격자체도 구라과 대륙이나 미국의 변화무쌍한 규격을 따라가기가 바쁜 현상이다.

설계기준 설계기준

창문에만 관계되고 또 건축가들이 고려해야할 설계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자연채광

조망

난방과 열손실

청소와 유지

조각

경제성

기계적 성능

구조적 성능

비

마찬가지로 중요한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은 시장상품으로 생산될 때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 즉 창문 자체의 성능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각 요소가 사용되는 방식과 관계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 것들이다.

광휘

태양열

직사광

환기

양음

광휘, 태양열 그리고 직사광은 완화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불유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태양의 산광이다. 필요한 조절의 정도를 정할 때 기억해 두어야 할, 태양의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는 전물의 이용자가 느끼는 한도에서 그 위치의 변동과 기후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 다양스러워지는 빛과 열에 의해, 시간의 흐름(매일 그리고 계절에 따른)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복사열의 효과는 여름에는 과히 반감지 않은 요소이지만 겨울에는 중요한 것이며 열손실의 방자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광휘

구름에 가린 태양은 구름을 통해 약화된 골고루 퍼진 빛을 보낸다. 찬란한 빛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효과는 결코 무시해선 안된다. 광휘는 구름의(명도)와 넓이에 의해서 보다는 태양빛의 강도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태양빛의 강도가 같을 때는 작더라도 밝은 명도를 가진 구름과 낮은 명도를 가진 큰 구름은 똑 같은 정도의 약화능력을 가진다.

광휘의 효과가 생기는 또다른 경우는 직사광선이 유리파위를 투과할 때, 전품외부의 어떤 밝은 면에서 반사될 때, 빛을 산란하는 물질이 있을 때 등이다. 따라서 벽면과 천정, 창틀과 창살 따위는 이러한 효과에 반하여 대조적인 명도를 갖게된다. 이러한 현상은 색유리를 생략없이 사용했을 때도 생긴다. 즉 투명유리나 열려진 창과 색유리와는 대조적인 명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광휘의 효과는 30~50%의 반사율을 갖는 색으로 벽을 칠하므로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건물 외부에 장치하여 광휘를 조절하는 방법을 전시하였다. 그러한 장치의 가치를 평가할 때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한가 하는 것이다. 또하나의 방법
으로, 처음에는, 평일 건축을
위하여 고안되었으나, 어떤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수평 루-마가 있다.
이것은 2중창가운데 집어넣어 고정
시킬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게되
어 있다.

베베시안 블라인드도 광휘를 조절
하는데 쓰일수 있지만 빛의 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또, 창문을 열어
놓고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창
문의 형식이 결정되어 버리는 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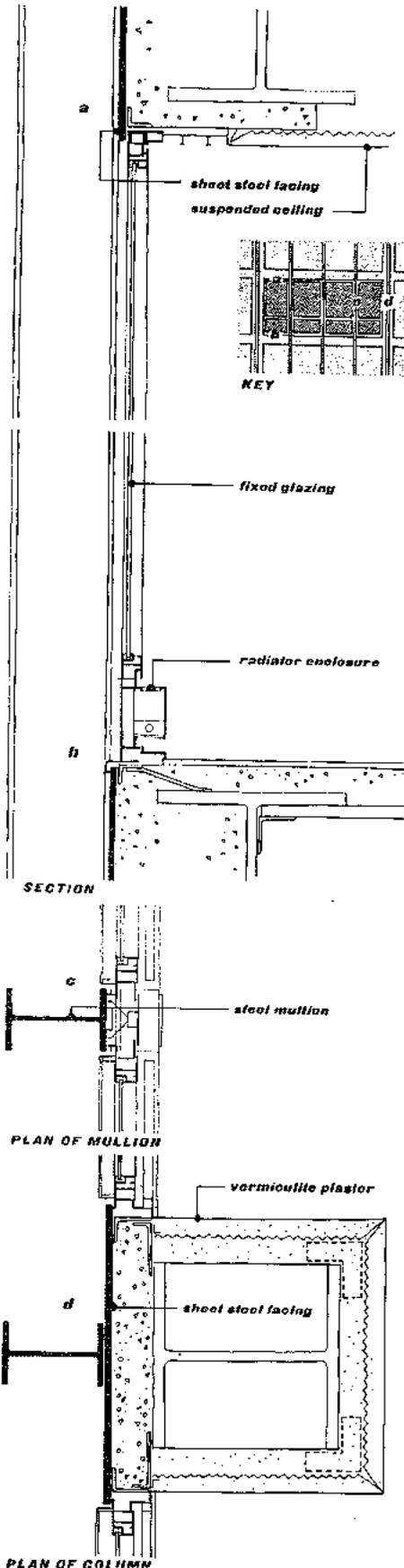
태양열흡수

일반적으로 보통유리는 태양광선을
거의 다 통과시키지만 적외선처럼 파
장이 긴 부분은 통과시키지 못 한다.
따라서 대류광선으로부터 방사되는
복사열에선 극히 일부분만이 유리에
흡수되지만 지상의 어떤 가열된 표
면으로부터의 복사열은 유리면에서 정
지장하여 흡수되어 버린다. 이렇게
흡수된 열은 전포나 대류열과 합쳐
불쾌한 기분을 주는 요인이 된다.
태양의 고도와 방향에 따라 보통유
리를 통과하는 태양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한 I.H.V.E. 의 표
를 실었다. 이 표로부터 북반구에서
는 북향이나 북동, 북서향의 창에는
태양열흡수를 특별히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의
그림은 태양열흡수를 조절하는 몇
가지 형식을 표시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태양의 복사
열을 건물 밖으로 반사시키고 유리
면과 [차일관]사이에서 공기가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 방사열을 분산
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특히 창 외
부에 망울 처든가 베베시안, 블라인
드 또는 이중창 가운데 블라인드를
넣을때 적용된다. 이것은 또한 복사
열에 의해 더워져서 파-넬 히-팅처
럼 작용하여 방에 낮은 온도의 복사
열을 방사하는 흡열유리 형식으로 사
용되기도한다.

직사광

직사광선은 특히 일출이나 일몰시,
시각을 매우 강하게 자극하여 불쾌감
을 준다. 이런 것을 직사광이라고
한다. 북향은 아니라 서북 또는 동북
향의 방에선 직사광현상이 그리 중요
하지 않다. 물론 서북이나 동북향의
경우 한 여름의 낮은 각도의 햇빛이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것이 아니므로
그런방에도 일출이나 일몰시를 위해
적당한 조절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무
의미하지는 않다. 특별한 경우의 예
외를 제외하면 광휘와 태양열흡수의 조
절은 외과 라인스 직사광선이다



다.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조망을 차단하지 않는가, 채광은 계속 잘 되는가, 조작이 쉬운가, 유지와 소재는 어떤가 등이다.

활기:

지금까지 창은 공기조화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에 있어서 유일한 환기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창의 기능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이원생각도 재고의 여지가 있게 되었다.

열을 발생시키거나 높은 습도 또는 특별한 냄새를 만들어 내는 특수한 환기 장치 가 아니라면, 자연환기라는 것이 어떤 기후조건 하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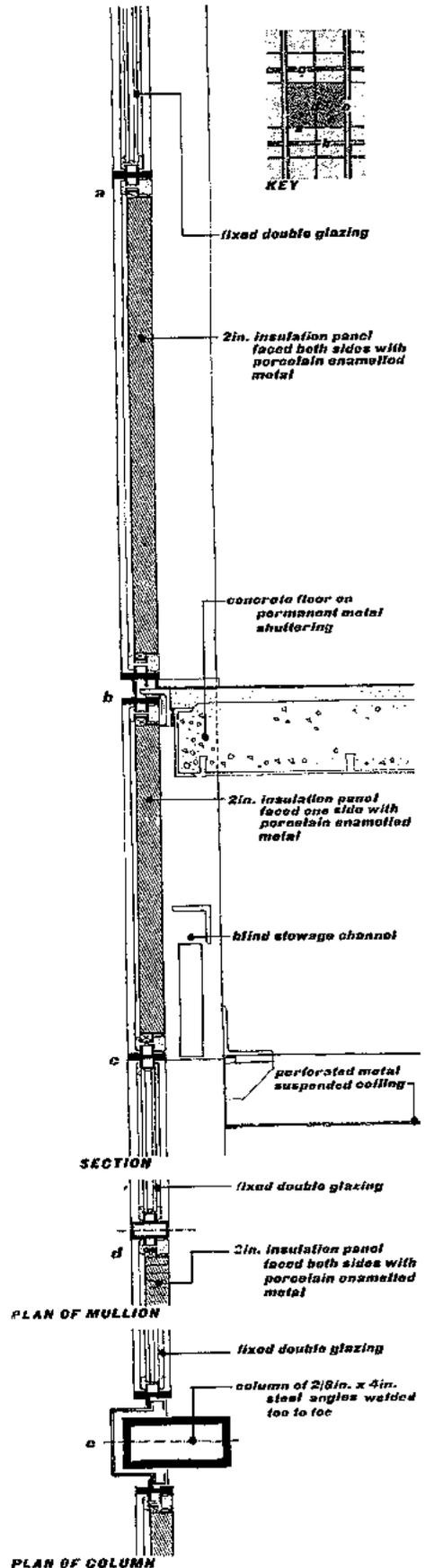
예상되는 난점들은 다음과 같다; 비의 들이침; 장함바람, 특히 태풍이나 최오리바람; 바람이 한점도 없어 도리어 공기의 유통이 안되는 경우, 구멍을 통해 새 들어오는 바람; 안밖의 온도차에 의한 열의 유출과 냉기의 유입 등에 의한 열손실 등이다.

이 많은 인자들을 고려하여 창문의 가장 적당한 크기, 모양, 위치, 조작 방법 따위를 결정할 때 자연 환기의 요구조건과 일치할 가망성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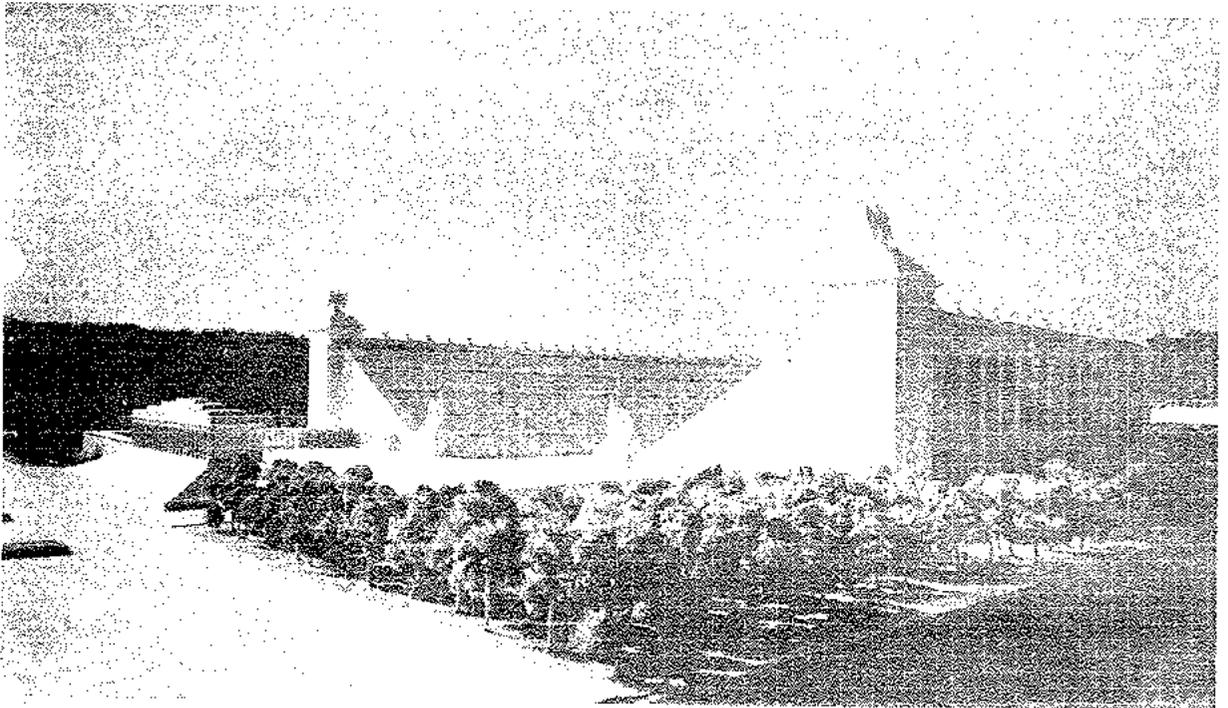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여는 창은 기본적 요구에 적합한 환기물 해주지만 각경우의 목적을 고려하여 설계하지 않으면 효율이 낮아질 것이다. 출고 바람부는 때 스며드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공기는 반드시 높은 곳에서 들어 오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는 낮은 곳에서 바람이 들어와 높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또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거나 폭풍이 잦을 때는 조절막이나 가동 그릴을 달아야 할 것이다. 물론 창에는 환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그럴까. 많은 조건을 만족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당할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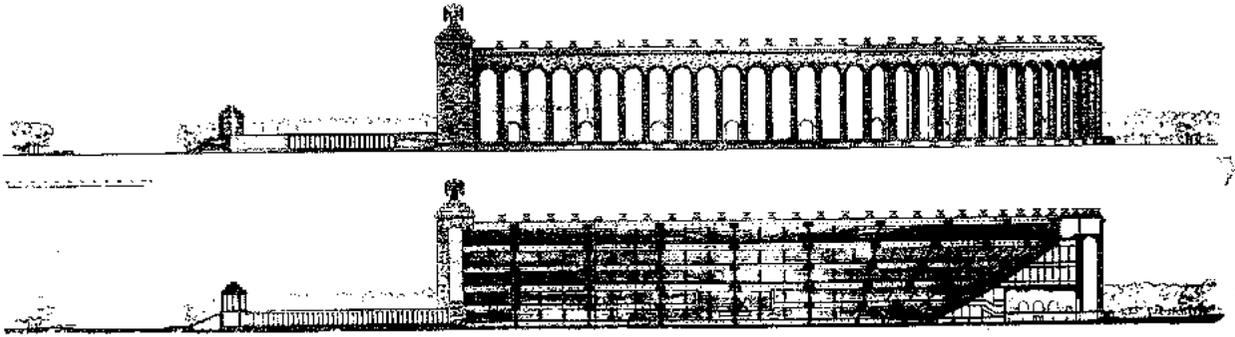
방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주 늘어나는 높은 강도의 소음원들 때문에 방음이라는 것을 일층 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문제는 규격화된 패아·글라스 창문이나 혹은 창틀에 두 줄의 틀을 파서 두장의 유리를 끼운 단순한 이중유리창이나 모두 해결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소음의 전달이 창문과 창틀의 사이 또는 창틀 자체를 통과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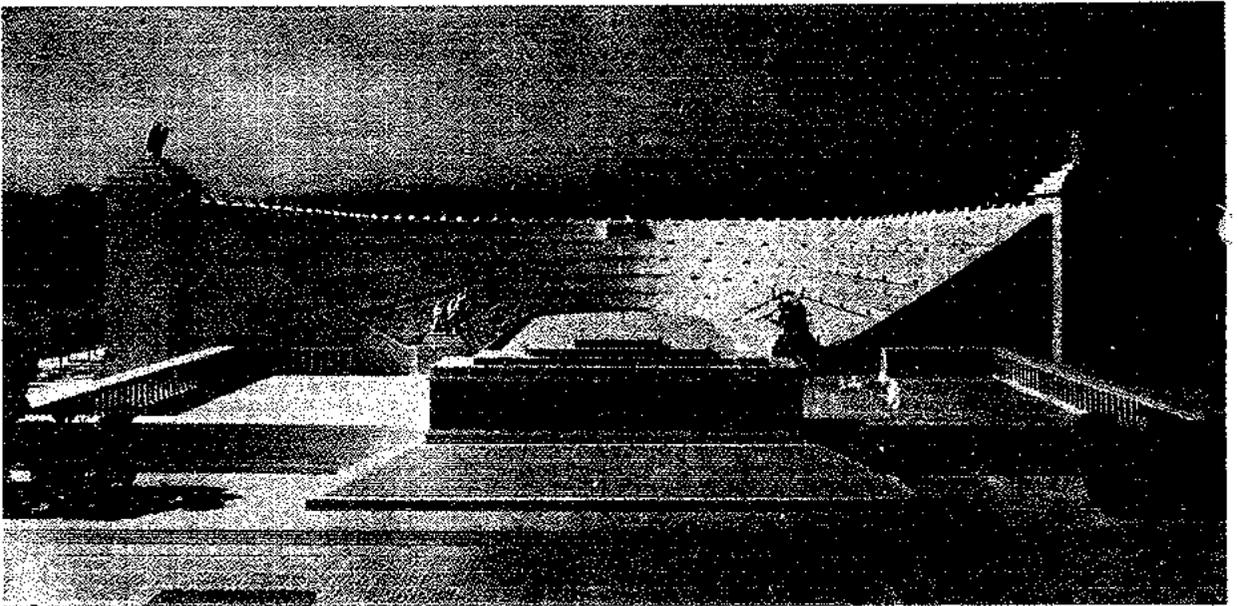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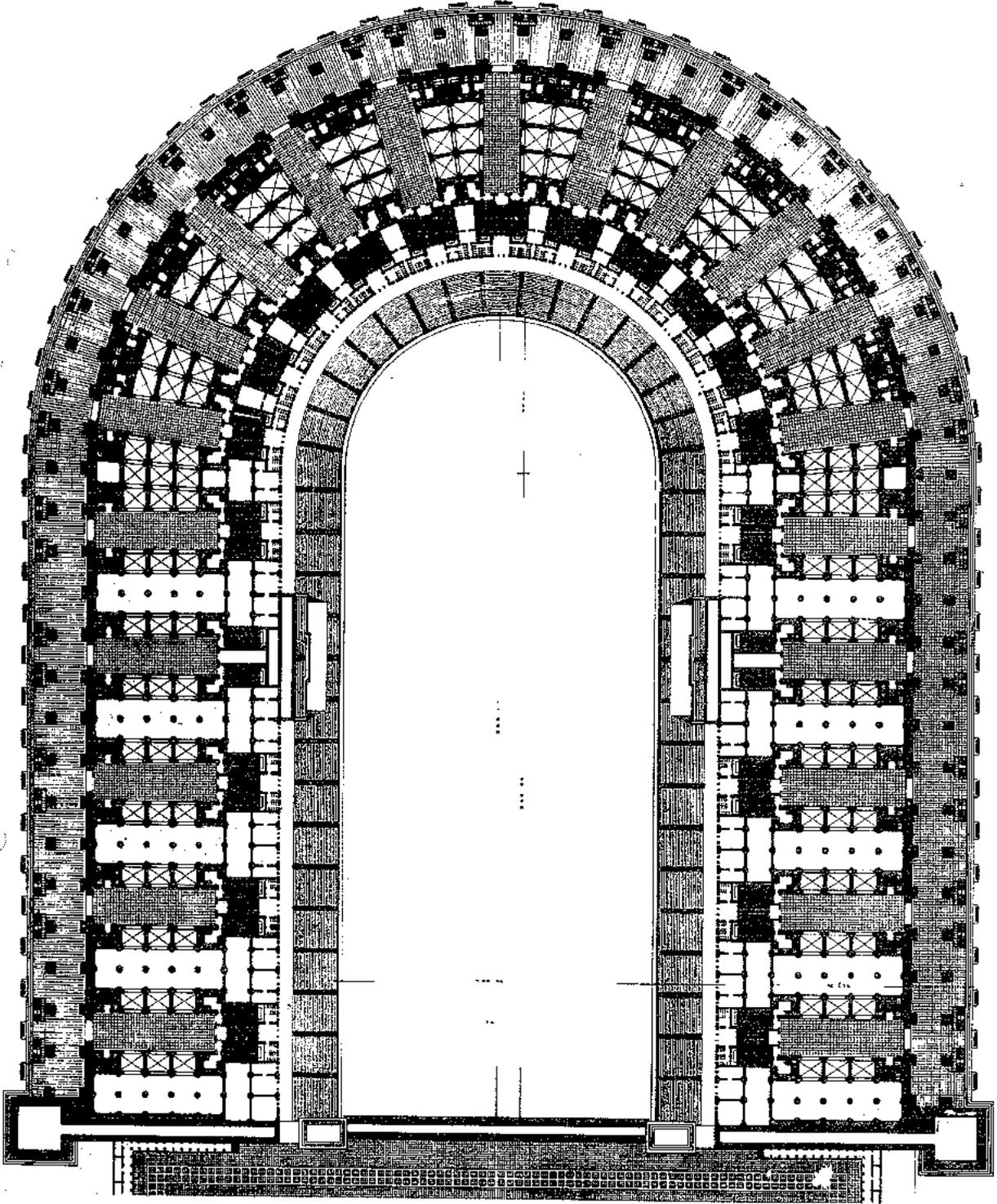
ALBERT S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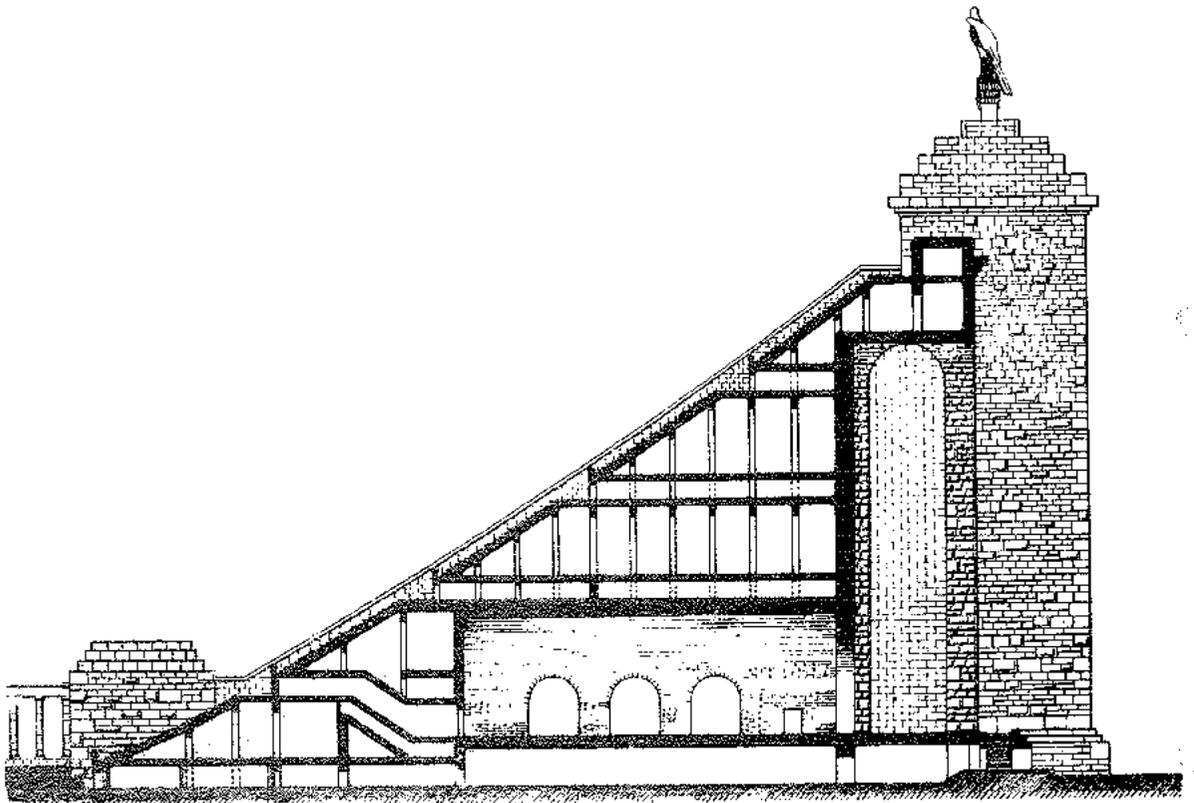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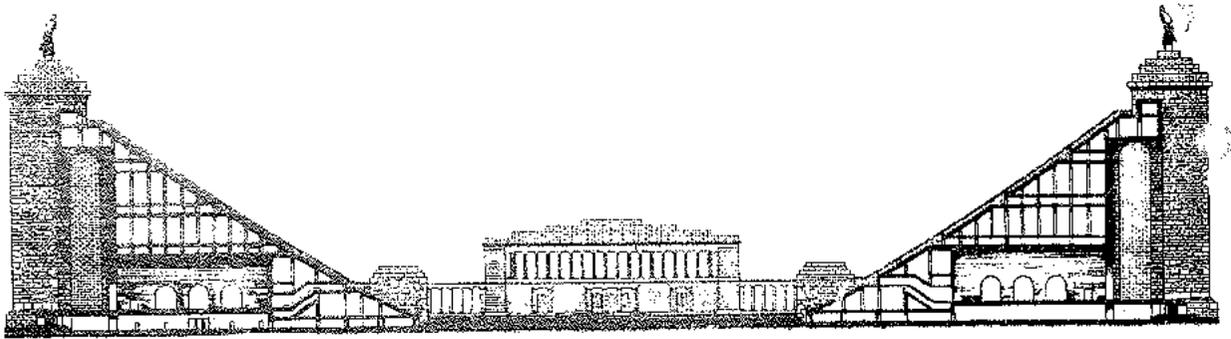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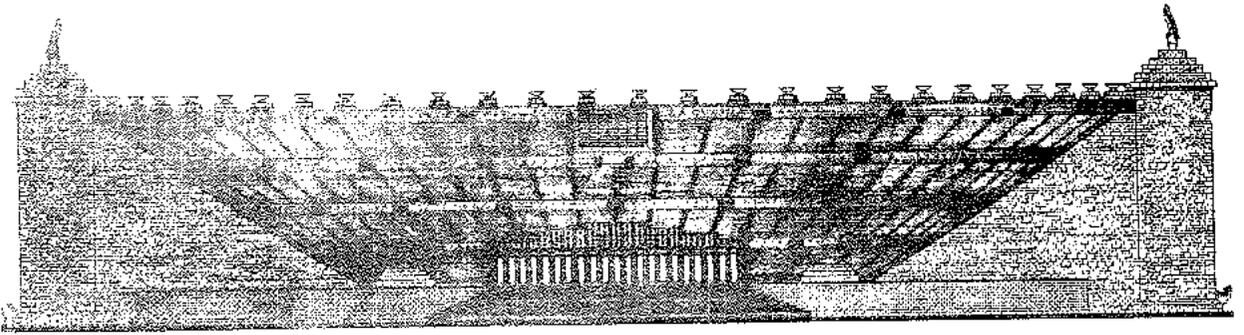




Von links nach rechts: Die 95 m breite Aufwärtstreppe, die Führentreppe und die Startertreppe, der 180 x 50 m große Vorhof, der 50 p. hohe kolonnentragige Tribünenbau, gegliedert in 5 Ränge. Die fischgrätenförmigen Türen sind 100 m hoch







제2조제3호중 “캐스”를 “카스”로 하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툰”과 기타 대동 명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전기 다음에 “전화”를 급수 다음에 “배수”를 폐회침 다음에 “쿠기지방대”를 각각 삽입 한다.

제2조제5호중 “지층”을 “지하층”으로 한다.

제2조제12호중 “개축” 다음에 “재축”을 삽입한다.

제2조제16호중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조제17호중 “제21조 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조중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은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을” 이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광주 시”으로 한다.

제5조중 “주요변경”을 “중요변경”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①건축사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당해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②건축사는 건축사법 제4조 및 제5조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사로 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방화지구 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①시장, 군수는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방화상 부치 필요한 때에는 구역의 지정 공고하고 당해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구조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구조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①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총합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 2 (주차장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신축·개축 (일부의 개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항에 규정하는 규모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주차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3 (지하층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 구조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 “방화구획·소화설비 및 피뢰설비의 설치 및 구조·급수·배수·기타의 배관설비의 방법과 구획 및 승강기의”를 “방화구획의 구조와 건축설비의 설치 및”으로 한다.

제28조중 “공중변소, 경찰관파출소 기타”를 삭제하고 “통행에”를 “교통·방화·위생상”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봉치·지구·미관지구·교육지구 및 기타 지구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방화지구 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전항 본문에 규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높이의 한도) ①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용적률 400퍼센트 이내,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800퍼센트 이내, 상업지구안의 방화지구에 있어서는 1,700퍼센트 이내, 기타지역 또는 지역의 지경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 군수가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토지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200 퍼센트 이내까지,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주위에 공원, 광장, 도로, 하천 기타의 공지가 있어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각 해당 용적률의 2배까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업지역안에 방화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12미터이상의 도도에 접하여야 하며 12미터 이하의 도도에 접하였을 때에는 그 용적률을 1,00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수평거리나 그 도로의 폭의 1.5배에 8미터를 가한”을 “수평거리의 1.5배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 안에서 토지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건축공사에 관계가 있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제45조중 제 1항제 1호를 삭제하고 제 4호중 “제39조제 3호”를 “제12조제 1항 및 제41조제 1항 단서”로 한다.

제 45조제 3항중 폐지에 관하여는 다음에 “사전예”를 “미리”로 하고 “및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3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3조의 5 (공해방지) 시장·군수가 공해방지법에 의한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공해방지법 제 5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나 사업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공해방지 조치를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 53조의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3조의 6 (표준설계도의 활용) ①건설부장관은 서민주택의 건축을 위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 5조 및 제2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5조 규정에 위반한자.
2. 제 39조, 제 40조 또는 제 4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 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9조 내지 제 11조, 제 15조 내지 제 17조 제 18조제 1항 및 제 2항 제 20조 내지 제 22조의 3 제 25조 제 27조, 제 27조의 1항, 제 28조 제 31조 제 35조 제 36조 규정에 위반한 당해건축물, 공사불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2. 제 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를 위촉하지 않은 건축주
3. 제 12조 및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다만 설계도서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때의 당해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제 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6조 (동전) 제 4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6조의 2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다.
2. 제 7조제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다.
3. 제 4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별표 1 내지 별표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1

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별표의 2와 별표의 4에 해당하는것 다만, 별표의 4 (1) 중 1 내지 4 및 12의 물품, 가연성가스 또는 카아바이트의 저장 또는 처리에 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 (2)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작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것.
-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용량 10瓩터 이상 30瓩터 미만의 아세틸렌가스 발생기를 사용하는 금속공업
 2. 출력의 합계가 0.75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 빙질
 3. 원동기를 사용하는 2대 이하의 연마기에 의한 금속의 건조연마 (공구단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4. 풀크, 에보나이트 또는 합성수지의 분취, 또는 건조연마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것.
 5. 제재, 재봉기, 직염사, 조세, 편발, 제대 또는 활칼날 세우기로서 출력의 합계가 0.75 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
 6. 인쇄·제책 또는 석재를 쪼개는 일로서 출력의 합계가 1.5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것.
 7. 인쇄용 평판의 연마
 8. 땅의기를 사용하는 과자의 제조
 9. 원동기를 사용하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10. 연선 쇠그물의 제조 또는 직선기를 사용하는 금속선의 가공으로서 출력의 합계가 0.75 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것.
 11. 출력의 합계가 2.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원동기를 사용하는 제분
 12. 원동기를 사용하는 어육의 연제품의 제조
- (4)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 이상의 자동차 차고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것을 제외한다)

- (5) 연예장 또는 관람장
- (6) 카바레·무용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에 공하는 건축물
- (7) 창고업을 경영하는 창고

별표의 2

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별표의 4에 해당하는것
- (2)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작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0명방미터를 초과하는것(일건신문의 인쇄소 및 작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명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수리공장을 제외한다)
-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 1. 완구용 보통화공품의 제조
 - 2. 아세피렌가스를 사용하는 금속의 공작(아세피렌가스발생기의 용적이 30리터 이하의 것 또는 용해아세피렌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 3.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 또는 드라이다이닝
 - 4. 세루로이드의 가열·가공 또는 기계톱을 사용하는 가공
 - 5. 인쇄잉크 또는 그림색 물감의 제조
 - 6. 출력의 합계가 0.75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로의 분질
 - 7. 아황산가스를 사용하는 물품의 표백
 - 8. 풀탄 기타 동물질탄의 제조
 - 9. 우모유의 세조·염색 또는 표백
 - 10. 빙마·부스럭삼·휴지·현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소독·선별·세조 또는 표백
 - 11. 제재·제면·고연의 재제·기모·박모 또는 벨트의 제조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 12. 백·빨·조개류의 조개 및 건조·염마 또는 3데이상의 염마기에 의한 금속의 건조·염마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것,
 - 13. 광물·탄석·노사·유광·암속·유리·벽돌·도자기·백 또는 조개껍질의 분쇄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것,
 - 14. 맥·외등회 또는 연탄의 제조
 - 15. 활자 또는 금속공예 룬의 주조(인쇄소에서 활자의 주조를 제외한다)
 - 16. 기와·벽돌·도기·도자기·인조숫돌·목 또는 범랑·철기의 제조
 - 17. 유리의 제조 또는 사공 홈
 - 18. 동력추를 사용하는 금속의 추조
 - 1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또는 세멘트 공대를 사후 처리하는 것으로서 출력의 합계가 2.2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원동기를 사용하는것,
 - 20. 비누의 제조
 - 21. 어분 또는 어분을 원료로 하는 사료의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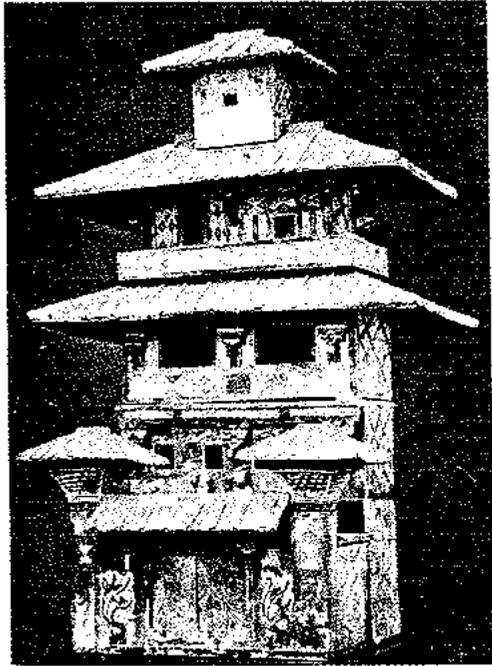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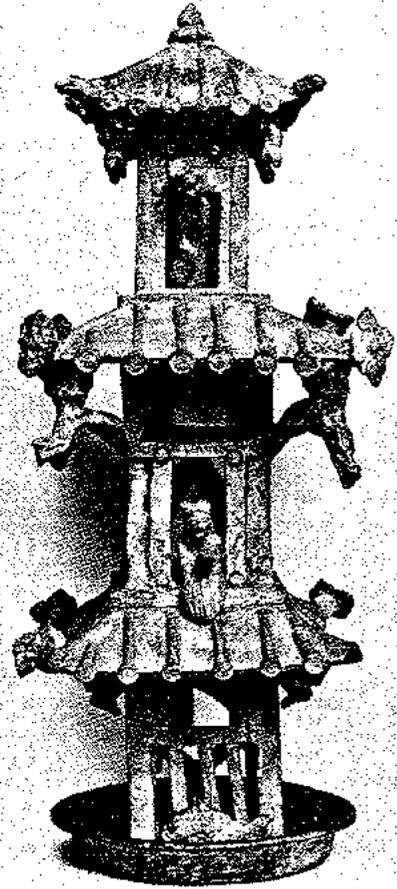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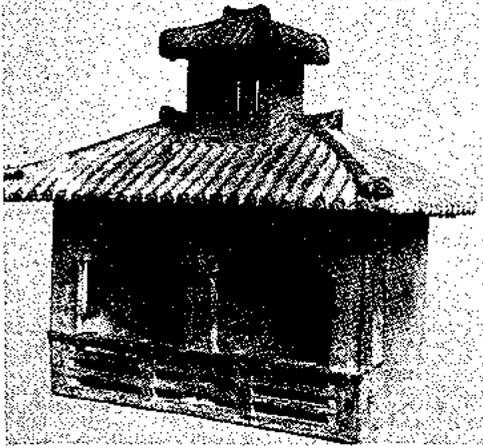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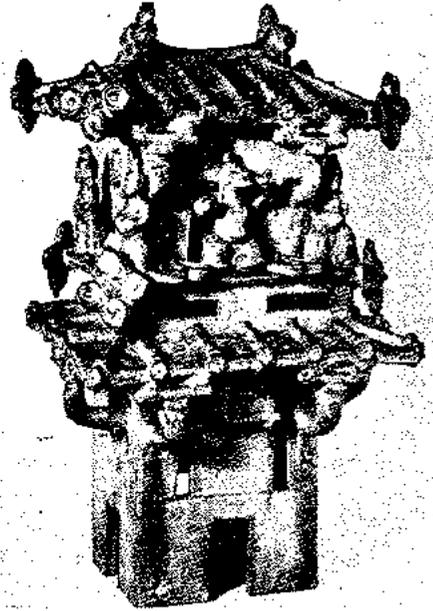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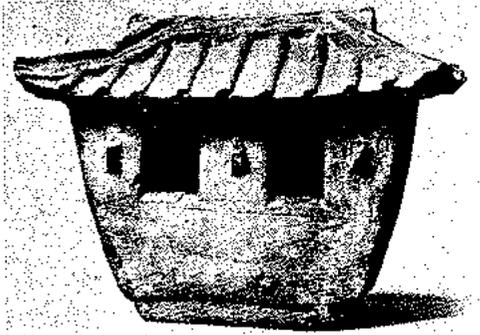
별표의 3

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농업·임업·축산업을 목적으로 당해 지역안의 토지 또는 원료채를 이용하는 업무에 쓰이는 건축물
- (2) 전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주거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
- (3) 공원·운동장·요지류의 시설에 부속되는 관람석·휴게소·탈외장·관체사무소·공중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시설의 기능을 다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 (4) 주택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사원·교회·가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 (5) 학교·도서관·공회당·병원·탁아소·양육원·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2달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0년도 사업계획

1. 건축사법 개정

(1) 목 표

건축사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여 건축사업무의 개선은 물론 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위함.

(2) 이 유

불합리한 규정을 시정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다.

- ①국제간의 건축사자격의 부여에 있어 호혜정신에 입각하여 국제성을 보장하고 (사법 2. ① ②)
- ②선진국에 없는 건축사등급제도의 폐지 (사법 3. 4. 5. 6 등 관계조항)
- ③건축사업무중 공사감리규정의 보완으로 건축행정의 체계화를 기한다. (사법 20 ③)
- ④무등특등의 금지조항에 결적금지조항 신설
- ⑤기타 불합리한 조항 (사법 25 ① ②)

(3) 방 법

본회에서 건의되어 이미 건설부에서 개정시 참가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국회건설전문위원회에도 참고하도록 제출된바 있어 이를 국회 및 관계부처에 조속 추진토록 촉구

2. 건축법 개정

(1) 목 표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2) 이 유

불합리한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함에 있으며 주요조항은 아래와 같다.

- ①건축물의 공사시에 공사감리자불 두도록 규정한다. (법 6)
- ②건축면적에 있어 대지면적에서 30m²를 감하는 규정을 삭제 (법 39)
- ③건축물의 높이 한도규정을 삭제 (법 40)
- ④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법 41 ①)
- ⑤기타 불합리한 조항

(3) 방 법

본회에서 건축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건설전문위원회 제출, 정부 서울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심 의시 반영토록 추진중에 있음. 이의 적극적인 환동으로 개정되도록 할 것이며 기작성된 건의안중에서도 수정이 요하는 사항은 제수 반영토록 함.

3. 건설업법

(1) 목 표

건설업법중 건축사업무와 연관성있는 조항중 불합리한 것을 개선토록 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건설기술자 변위취득에 관한 사항을 계속 개선되도록 추진

(2) 이 유

건설업법중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여 건축법의 질적향상과 회원의 업무집행의 원활을 기하고 권익을 신장하고자 함.

(3) 방 법

- ①자료수집
- ②공정회 등 개최
- ③분회위원회 활용 개정안 작성
- ④건의 및 추진

4. 과세표준

(1) 목 표

회원의 업무에 대한 과세표준소득세의 현실화 69년도에 이어 계속추진

(2) 이 유

건축사 업무의 과중한 과세로 건축법 건축사법의 정신과 목적을 다할 수 없음 뿐더러 회원의 경영난등 도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과세유연실과를 추진코져 함.

(3) 방 법

본회의 총력을 기울여 당국과 접촉 추진함.

5. 보수기준 개정

(1) 목 적

현행 보수기준을 개선하여 업무수행상의 모순을 지양하고 권익의 신장 복리 증진을 도모함.

(2) 이 유

현행보수기준중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것을 상기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방 법

현세 당국에 제출된 개정안을 분석 검토하여 보완 추진 하서 인가받도록 함.

6. 건설자재 노임시세자료수집 및 보급

(1) 목 적

회원의 업무중 결적서 작성과 건설자재에 대한 시세과락등을 조장 발견하고자 함.

(2) 방 법

건설부 건설협회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경제적인 방법을 연구 수집하여 회원이 이용되도록 특 작저부단위로 보급함.

7. 회지발행

(1) 목 적

현행 건축사회지의 질적향상을 연구하여 발전시키고, 격월간을 월간지로 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검토하여 회원과 국가건설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이 유

건축기술의 향상과 건축행정 건설적인 비판과 건의, 학술의 탐구, 시공기술의 제공, 창작활동의 현황, 설계작품의 논평, 실무경험기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사항등 증진을 도모함.

(3) 방 법

그간 독립 채산으로 발전시키고져 특별회계를 설정 운영하였던바 그것의 질을 분석한바 별로 발전을 보지 못하고 독립채산으로는 운영키 곤란하며 계속 일반회계에 의존함으로써 면목상으로도 독립채산이지 실제로는 일반회계의 부담만 증가할 뿐만 아니라 회지의 질적향상의 분과, 불합리하고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70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단일화함으로서 제반 불리한 사항을 일소코져 함.

8. 강습회

(1) 목 표

회원 실무강습회 기타.

(2) 이 유

회원업무의 향상과 국제간의 기술교류등 회원자신의 식견을 신장하고 기술 향상과 품위를 증진하는 데 있음.

(3) 방 법

- ① 계획수립
- ② 계획표 작성
- ③ 자료 수집
- ④ 교재 작성
- ⑤ 각지부별 개최
- ⑥ 가능한한 본회에서 경비 전담

9. 행 사

(1) 목 적

협회의 권위신장과 건축사업부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정부관계 및 국제관계 행사

10. 선전계몽

(1) 목 적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농어촌 및 서민주택의 개선 및 생활향상 도모를 꾀한 건축사업부의 정당한 계몽과 협회에 대한 인식을 쇄신하기 위한 P. R. 임.

(2) 방 법

- ① 농어촌 및 서민주택, 설계작품 수집 및 전시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선전계몽
- ② 각종 매스콤을 이용한 P. R. 사업

11. 각분야 시찰

(1) 목 적

회원의 기술향상 및 식견을 넓히고 친목을 꾀하는 자문야 시찰

(2) 방 법

- ① 관계부처와 협의
- ② 계획서 작성
- ③ 시찰계획 통지
- ④ 시찰 및 보고서 작성
- ⑤ 회지발행에 반영

12. 회원명부

(1) 목 적

협회 회원명부 발간

(2) 이 유

협회 및 회원간의 업무연락 및 선전

(3) 방 법

- ① 수서로 이동사한 조사정리
- ② 편집, 교정, 인쇄

13. 농어촌 주택작품 전시회

(1) 목 적

국가시책에 호응하여 미개발된 농어촌의 주택의 개선과 계몽을 위한 작품 전시

(2) 방 법

- ① 추진위원회 구성
- ② 계획수립
- ③ 작품모집
- ④ 전시

협 회 기 사

1970년도 제 1회 정기 이사회
(1970. 1. 7 (주요일) 16. 30)

토의 사항

- (1) 열악지출액 및 사무처 지출 전액에 결정
- (2) 공문서 발송사무 사무규칙에 건
- (3) 차경순 총리위원회 제소의 건
- (4) 각·분과 위원선정

윤리위원회 위원장 소 언 주

위원 강봉진 이봉도 김재철 배기철
김희준 송문규

지도위원 위원장 김동규 이사

위원 김승업 김장삼 김우근 한장진 유동영
지철근 서울시 자부장

건축사 업무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진천

위원 박영만 이승우 안인보 장진삼 강대웅
함정호 김봉규 서울지부장 전철부건축
제 서울시 건축과 시경 소방과

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봉노

위원 김진천 서울지부장 경북지부장 부산지
부장 전남지부장 서울지부 총무간사, 서
울지부 사업부장사, 서울지부 지부간사,
신현대, 김원안, 윤태현, 민병준, 김지태
신형범, 장종진, 이명환,

편찬위원회 위원장 한장진

위원 이정덕 최향규, 나상진, 한정섭, 이해성
유경철, 박교석, 정인국, 강명주,

제 2회 임시 이사회

(1970. 1. 14 11시 30분)

부의안건

- (1) 신분증 경신의 건
- (2) 제주도지부 전임 지부장 표창장 수여 의뢰건
- (3) 경기도지부 총회 휴회 및 지부사무소 이전의 건.
- (4) 건축법 시행령 건의안
- (5) 과년도 미수금 처리문제 (약 90만원) 불금
- (6) 과년도 미수금 처리문제 (5,896,250원)
- (7) 건축사법개정 건의안 (2급대표 추진위원회 제 1회)
- (8) 건설총회 및 감사기일 결정
- (9) 회원명부 인쇄
- (10) 당당 이사가 임시의 건.

제 1회 지부장 회의

1970. 1. 10 오후 1시 본회 회의실에서 전국 지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건축법 시행령 건의안을 심의하였다.

건축업무연구 위원회

1970. 1. 9 오후 3시 본회 회의실에서 건축사 업무
연구 위원회가 개최하였는데 중요안건은 건축법 개정
에 따른 시행령 건의안 심의를 하였다.
주요 공사관리 한계와 규모, 표준건제도서의 활용 등
에 관한 사항유 심의 하였다.

1970. 1. 21 오후 3시 제 2회 건축사 업무연구위원회
를 건축사 문공계 폐지를 수권자로 한 건축사법개정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2급 대표자 간담회

1970. 1. 12 오후 1시 본회 회의실에서 전국 2급 건축
사 대표 자들이 각 지부에서 17명 11명이 모여 문공
계 폐지 추진 위원회를 결성키 위하여 준비 위원회
를 가졌다.

회원가입

김성태 (김성태 건축연구소) : 서대문구 향원동 18-42
김희광 (한원건축개발공사) : 종로구 남우동 167-1
정승업 (협성건축제사) : 용모구 사각동 16
유천준 (공신건축연구소) : 중구 용서동 1가 50
장신기 (협신건축기술공사) :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56
함정서 (새진건축연구소) : 마포구 서교동 373-48
양보국 (보국건축사무소) : 영등포구 신림동 19-65
김달훈(건축제사) : 전래시 송학동 30외 7
안준희 (정독사) * 보사시 부구 대외도 20 20 20

便利하고 合理的인!

一實用新案 特許

第2845號

用途

政府廳舍、빌딩、호텔、病院、食品工場、化學工場、製藥工場、纖維工場、沐浴湯、機械工場、洗濯所 等 其他。

〈受賞種別〉

- 第一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서울 特別市長 優秀賞
- 第二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大韓建築士協會長 優秀賞
- 1967年度優良工產品生産獎勵會에서 優秀賞
- 第七回全國商品會에서 內務部長官의 優秀賞
- 第八回發明品展示會에서 國會議長의 最優秀賞
- 第九回發明品展示會에서 大法院長의 最優秀賞
- 上記展示會에서 商工部特許局長의 優秀賞
- 科學의 날 優秀한 機械 工產品의 發明으로 科學技術 振興한 功勞로 韓國 科學技術總聯合會會長으로 부터 表彰狀을 받음.
- 原動機 技術賞審査委員會의 審査에서 特殊水管式보일러部門의 技術 開發과 振興에 奇異한 功勞로 國立工業研究所長 으로 부터 技術開發費을 받음

主要納入處

大韓住宅公社
시온제과 Co.
自由선 타
産業銀行
大田皮革 Co.
서울여자學院
韓一染色 Co.
世宗호텔
中央産業 Co.
釜山鐵道廳

三岡産業 Co.
仁川園藝組合
國防部建設本部
春川聖心大學
美八軍洗濯所
大韓體育會
大韓重石 Co.
宇盛化學 Co.
東洋紡織 Co.
首都醫附屬病院

大韓染織 Co.
同和藥品 Co.
柳韓洋行 Co.
韓國유리 Co.
韓國나일론 Co.
大韓클크 Co.
清溪商街아파트
大韓造船公社
울림포스호텔
웅당산호텔

호수호텔
韓獨商社 Co.
聖바오루病院
大興심유 Co.
聖心綜合病院
大韓生命保險
公務院訓練院
林業試驗場
南大門警察署
大韓産業

京畿農産 Co.
廣日빌딩
蠶國洋灰
麗水觀光호텔
第一病院
自動車保險
새한빌딩
江原道庁業
韓獨藥業
韓國산토리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會社

代表理事 朴 鍾 泰

本社： 서울特別市龍山區交培洞14의 1

電話：(42) 1673 (42) 9775-6

工場： 서울特別市龍山區交培洞12番地